

KB금융 내부갈등 확산일로

금융당국, 회장 '황제경영' 금지 지배구조 전면 재검토
금소원, 전산시스템 교체 이권 개입 경영진 수사의뢰
林회장-李행장 입장 평행선...내일 긴급 이사회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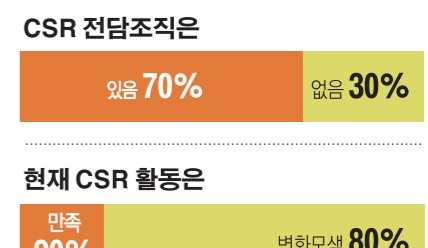
KB금융그룹의 내분 사태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진호 국민은행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이진호 회장은 "국민은행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진호 회장은 "국민은행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진호 회장은 "국민은행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고 말했다.

원하나 위험관리협회를 거쳐 자회사에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다음달 발표한다. 지주사의 책임은 강화되고 권한은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당국은 또 금융지주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완전 자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없앨 방침이다. 국민은행처럼 KB금융지주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는 사외이사의 임명권을 지주가 갖게 된다.

사외이사가 지주의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아울러 관공이나 유력 정치인 등이 금융지주 회장 자리를 차지하는 관행도 앞으로 사라진다. 금소원은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를 놓고 경영진 간 갈등이 불거지자 지난 19일 전문인력을 국민은행에 파견해 감사에 들어간 데 이어 20일에는 KB금융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KB금융의 내분이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라 내부 통제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 것이다. 임영록 회장과 이진호 행장의 입장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앞서 임 회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갈등은 은행 경영진과 이사회 간 문제이지, 지주 회장과 행장 간 문

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이사회 의결이 정해지면 존중돼야 하고 은행 CEO는 이사회 결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사실상 이사회에 힘을 실어줬다. 반면 이 행장은 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된 문제를 금소원에 제기한 것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하며 감사 문제를 계속 문제 삼을 것이라 입장을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국민은행 사외이사들은 오는 23일 긴급 이사회 개최를 요청했다. 감사위원회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병기 감사위원과 사외이사 간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한편 금융소비자원은 주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이권 등을 수사해 달라며 임 회장과 이 행장 그리고 사외이사들을 검찰에 배임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김민지 기자 kimmj@

기업 70% "CSR 전담조직 운영" "정부의 체계적 지원 필요" 82%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을 사회공헌, 지속가능경영, 윤리경영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동향에 맞춰 CSR의 구체적 형태와 규모, 방향성 등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대한민국 CSR 국제컨퍼런스 대외위원회(위원장 이현재·신영무)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위기대응 핵심전략, CSR'을 주제로 '2014 대한민국 CSR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코스리(한국CSR전략연구소)와 임팩트 투자 컨설팅 기업 MYSC는 '2014 한국 기업의 CSR 현황 및 이슈'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0%가 사내에 CSR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등 국내 기업들의 CSR 활동이 체계를 잡아 나

가는 모습을 보였다. 또 82%는 정부 등 공공부문이 법제화나 제도화를 통해 CSR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기업 스스로의 노력뿐 아니라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해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CSR 인터넷 서널 설립자인 웨인 비서 박사가 '위기관리 전략으로서의 CSR'을 주제로, 로지컬 매니지먼트 시스템사의 기어리 스키치 회장이 'CSR 기반의 위기대응 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또 이어진 패널 토의를 통해 국내외 전문가들은 위기대응 전략으로서의 CSR의 의미를 되새기고 구체적인 실천방향을 논의했다. 조남호 기자 sprdan@

공식 선거전 돌입...정몽준·박원순 첫 행보는 '안전'



6·4 지방선거 공식선거전 첫날인 22일 새벽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하철 6호선 청구역에서 승강장 철로 및 노반을 청소하고 있다(왼쪽). 한편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도 이날 새벽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을 찾아 역무실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 관련기사 6면 연합뉴스

구글, 글로벌 M&A에 30조원 쏟아

디지털지도·사물인터넷 등 사업 다각화 거침없는 행보

구글이 해외 인수·합병(M&A)에 최대 300억 달러(약 30조7650억원)의 자금을 비축한 것으로 밝혀져 어떤 기업이 구글의 M&A 대상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전날 공개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구글이 보낸 지난해 12월 20일자 서신에서 회사는 "모바일 기기 등 다른 영역으로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려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해외 M&A에 약 200억~300억 달러의 현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FT는 구글이 지난 3월 말 기준 해외에 있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345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구글은 올 초 디지털 온도계 업체 네스

트랩스를 32억 달러에 인수하는 등 M&A를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한편 구글은 해외 M&A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자회사인 모토로라를 레노버에 팔아치웠다. 또 IT산업 관계자들은 구글이 미국 외 다른 나라에서 매력적 인수대상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구글이 대규모 해외 M&A 가능성을 열어 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구글이 검색 외 다른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풀이했다. 구글은 SEC에 보낸 서신에서 지난해 말 협상이 결렬됐지만 한 외국 기업을 40억~50억 달러에 인수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구글은 그 회사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다. 구글이 지금까지 실시한 해외 M&A 중 최대 규모는 이스라엘 디지털 지도 서비스 업체 웨이즈를 10억 달러에 인수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유력한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관련 기업을 꼽았다. 구글은 SEC에 보낸 서신에서 "우리는 언젠가 냉각과 자동차 계기판, 안경과 시계 등에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배준호 기자 baejh94@

2014 대한민국 CSR 국제컨퍼런스

오늘 오후 2시, 대한상의 국제회의장 ▶ 관련기사 4-5면

빵집 놓고 '오락가락 공정위'

'거리제한' 2년만에 폐지...동반위와 엇갈려 정책 신뢰성 훼손

정부가 '갑의 횡포'를 저지하기 위해 2012년 도입한 '빵집 신규 출점 거리제한'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모범거래기준을 폐지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규정을 만든 지 불과 2년 만에 폐지할 경우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고 관련 업계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완화 방침을 너무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21일 기준 운영 중인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 25개 가운데 18개를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7개 중 5개는 자체적 심사지침으로 전환하고 2개는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폐지되는 기준들은 '경제민주화' 화두가 제기되던 2012년 이후 부랴부랴 만들 어졌다.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제과·제빵, 피자, 치킨, 커피, 편의점 5개 분야)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제빵·커피 500m, 치킨 800m 등 점포 간 거리제한 기준을 명시했던 규정이 다. 당시 제시된 수치가 시장의 현실에 맞

지 않다는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의 원성이 많았다. 공정위는 필요한 내용이 이미 상위법규에 담겼으며 과도한 내용을 없애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가령 빵집 등 거리제한 규정의 경우 8월 시행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점주 보호조항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커다란 이익의 경우 "다소 숨통이 트였다"며 환영의 뜻을 보였지만 제과업종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제한(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은 중소 제과점에서 도보로 500m 이내 출점제한)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큰 기대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일부 가맹점주와 골목상권 상인들은 불안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 편의점 점주는 "개정 가맹거래법에 점주 보호조항이 있지만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을(乙)인 점주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불안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중소제과점을 대표하는 대한제과협회도 향후 골목상권 침해 소지가 생길 경우 즉각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숫자로 본 NEWS

삼성 브랜드가치 1계단 상승

구글이 애플을 제치고 글로벌 브랜드 가치 1위에 올랐다고 2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밀워디브라운유포티머가 이날 발표한 '2014년 글로벌 브랜드Z 100대 기업' 순위에서 구글은 1588억4300만 달러(약 163조원)의 브랜드 가치로 애플(1478억 8000만 달러)을 추월했다. 한국 기업 중에서는 삼성이 유일하게 순위 포함됐는데 브랜드 가치 약 259억 달러로 29위를 차지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2014 글로벌 브랜드 구글 1위

순위(지난해 순위)	브랜드	가치(억 달러)
1위(2)	구글	1588
2위(1)	애플	1479
3위(3)	IBM	1075
4위(7)	마이크로소프트(MS)	902
5위(4)	맥도날드	857
29위(30)	삼성	259

한국 국가경쟁력 4계단 하락

우리나라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26위를 기록했다. 지난 3년 연속 지켜 온 22위에서 4계단이나 밀려난 순위다. 22일 IMD가 발표한 '2014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분석 대상 총 60개국 중 26위를 차지했다. 2011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22위를 유지해 왔지만 올해는 4단계 하락했다. 27위를 기록했던 지난 2009년 이후 최저 순위다. 전민정 기자 puri21@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



Life 목욕객 19~23년 커버스토리 지방 부동산시장 후끈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취임 5개월 권선주 '친정체제' 시동

〈IBK기업은행장〉

IBK자산운용 주영래 대표

임기 6개월 남기고 사의 표명

증권 조강래 대표도... 30일 주총



권선주 IBK기업은행 행장이 취임 5개월 만에 계열사 인사에 나섰다. IBK투자증권 조강래 대표의 후임을 결정 짓는 임시 주총이 오는 30일 열리는 가운데, IBK자산운용 주영래 대표가 돌연 사퇴해 후임 인선 작업이 병행될 예정이다.

취임 5개월째를 맞은 권선주 IBK기업은행 행장이 친정체제 구축에 나섰다. 실제 자산운용과 투자증권 등 IBK기업은행의 주요 금융 계열사 최고 경영자(CEO)들이 잇달아 교체될 전망이다. 권 행장은 작년 12월 취임 후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계열사 대표 교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IBK자산운용의 주영래 대표가 지난 17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IBK자산운용은 전 아이다이브릿지운용 대표를 지낸 김홍일 부사장이 CEO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주 대표는 임기가 아직 6개월이나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중도 하차와 관련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그의 임기는 오는 2015년 1월까지다. 주 대표는 1981년 기업은행에 입행한 이후 종합기획부장, 고객만족추진단장, 경영전략본부장, 개인고객본부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후 지난 2013년 1월 IBK자산운용의 새 사령탑에 선임됐다.

IBK자산운용 관계자는 "주 대표가 개인 사정으로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이 맞다"며 "추후 새

사장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지만, 아직 주총과 관련해 자세한 일정이 나온 것은 없다"고 밝혔다.

IBK자산운용 신임 대표로는 IBK기업은행 부행장 출신 인사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IBK투자증권도 오는 3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조강래 대표 후임을 선임할 예정이다. 지난해 임기가 1년 연장된 조 대표는 그동안 교체 가능성이 높게 점쳐져 왔다.

조 대표는 지난 2011년 6월 선임된 이후 작년 5월 임기 1년이 연임돼 3년간 재직해 왔으며 재직기간 IBK투자증권의 실적이 호전되는 등 양호한 성

과를 냈다. 현재 IBK투자증권 선임 사장 후보군에는 정해근 동부증권 IB담당 부사장, 신성호 우리신물 사장을 비롯, 3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업계 고위 관계자는 "권 행장 취임 반년을 맞아 계열사 CEO들의 본격적 인사 물갈이가 진행되는 모습"이라며 "권 행장과 코드가 통하는 인사가 얼마나 계열사 신임 CEO로 선임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이며 권 행장 취임 이후 본격적 친정체제 구축도 가속화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김경아·김민지 기자 kakim@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 글로벌 특허공세 '지킴이'로

중소 최초 지식재산보호협회장 취임
"특허 관리·대응 방법 회원사와 공유"
日니치아와 3년 분쟁 '상호 특허' 결실



런 대응을 해야 하는지 방법을 공유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서울반도체도 2006년 세계 LED 1위 기업인 일본 니치아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한 바 있다.

니치아와 특허전에서 이긴 기업은 거의 없어 빨리 수습하지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지만 당시 이 대표는 정면 돌파를 택했다. 그동안 철저히 관리했던 특허를 모아 3년간 니치아와 긴 싸움을 벌였고, 끝내 '크로스 라이선스(상호 특허 사용)'란 좋은 결실을 맺게 됐다.

이정훈(사진) 서울반도체 대표가 중소·중견기업계 최초로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장에 취임해 국내 기업들의 특허 관리에 앞장선다. 22년간 LED사업 한 분야에서 쌓아온 특허경쟁력과 지식재산권 관리 경험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 공격으로부터 국내 기업들을 보호하겠다는 포부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달 초 한국 지식재산보호협회장으로 조용히 취임했다. 이 대표는 평소 외부 노출을 기피하는 성향대로 협회와 회사에도 협회장 취임 소식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국내 산업발전과 지식재산 분야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9년 설립된 특허청 산하기관이다.

특허업계에선 이 대표의 협회장 취임을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대기업 임원이나 변리사 등이 협회장을 맡았던 것과 달리 국내 중소·중견기업계에서 수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 대표를 차기 협회장 1순위로 지목하고 끈질기게 권유했다"며 "이 대표가 그동안 LED업계에서 지식재산경영을 선도해 왔고, 특허 관리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처음엔 계속 거절의 뜻을 전했던 이 대표도 '국내 기업들의 지식재산 보호'라는 큰 뜻을 거스르지 못해 결국 협회장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 활동을 극도로 꺼리는 이 대표의 성격상 외부 단체의 수장으로 취임한 것은 큰 변화다. 그만큼 이 대표가 지식재산 경영에 큰 애착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협회에 따르면 이 대표는 협회장 승낙 당시 "서울반도체도 과거 특허 분쟁으로 힘들었는데, 협회장에 취임하면 다른 국내 기업들에 어떤 식으로 지식재산 관

리에서 이긴 기업은 거의 없어 빨리 수습하지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지만 당시 이 대표는 정면 돌파를 택했다. 그동안 철저히 관리했던 특허를 모아 3년간 니치아와 긴 싸움을 벌였고, 끝내 '크로스 라이선스(상호 특허 사용)'란 좋은 결실을 맺게 됐다.

이후 이 대표는 특허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매년 매출의 10%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해 현재 약 1만1000개에 달하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이로 인해 서울반도체는 현재 세계 LED 업계 4위, 매출 1조원 중견기업으로 우뚝 서게 됐다.

이 대표의 이번 협회장 취임은 앞으로 국내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이 전 세계에서 상당히 보호받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이와 관련 "지식재산권은 한 기업과 개인이 행사하는 '권리'라는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 간, 개인 간에 서로 존중돼야 하는 '의무'의 개념도 포함돼 있다"며 "국내에서의 산업·상업적 활동뿐만 아니라 해외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데 있어 해당 원료, 반제품, 완제품에 연관된 물질, 디자인, 상표, 비즈니스 모델에 이르는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신중하고 고려했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유 기자 thec9@



동부화재

건강을 튼튼하게! 노후까지 든든하게!

내생애 든든 종합보험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지켜주는 든든한 종합보험
165개 담보의 고객별 맞춤보장으로 더 든든하게!
건강관리에서 노후 준비까지 이 보험 하나로 시작하세요



무배당 프리미엄 라이프 동부화재 내생애 든든 종합보험

나를 위한 맞춤형 보험	내가 원할 때 돌려주는 보험	나의 마음까지 지켜주는 보험
165개 담보로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맞춤보장 설계를 제공합니다.	적립환급금 50세~100세까지 고객이 원할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보장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같은 정신영역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4월 이상 입원시 지급)

*위 내용은 해당 특별약관 가입시 보장되는 내용입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준에 도달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저축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 한도는 본 보험 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손해보합법칙 심의필 제2014-0124호(2014. 1. 20))



이병진 한국타이어 미국법인장(왼쪽 첫번째)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투자기업 원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이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블룸버그

오바마 만난 이병진 美법인장

〈한국타이어〉

백악관 외국 투자기업 초청 간담회
주재원 비자 발급·세금 혜택 등 요청
테네시공장 가동 맨 '글로벌 5' 진입

지난해 10월 미국 테네시주를 최종 부지로 선정했다. 연산 1000만개 규모로 지어지는 이 공장에는 총 8억 달러(8200억원)가 투자된다. 첫 생산은 2016년이다. 공장이 가동되면 일자리 1800여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법인장은 미국 투자 배경에 대해 "미국에서 성공해야 세계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며 "테네시주를 선택한 이유는 운송, 물류 인프라가 가장 발달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한국타이어에 대해 승용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트럭, 버스 등의 타이어를 공급하는 글로벌 선두 기업이라고 소개했다.

한국타이어의 미국 공장이 가동되면 이 회사의 연간 생산능력은 1억2000만개로 올라서게 된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중국의 세 번째 생산기지의 충청 공장을 완공했다. 올해 초에는 인도네시아 공장을 증설해 생산능력을 600만개에서 1200만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타이어는 유럽 공략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유럽 시장의 발판인 헝가리 공장을 증설해 연간 1700만개 수준으로 생산량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한국타이어는 전 세계 공장의 단계적 증설과 준공을 통해 향후 '글로벌 톱5'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타이어는 국내 1위, 글로벌 7위권의 타이어 업체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미래생존·번영 원한다면 오늘 당장 '복원전략' 시작하라



초청연사 강연

웨이 비서 CSR인태셔널 대표 / '위기관리 전략으로서의 CSR'

국내기업 CSR

에너지·환경·빈곤 등 주변의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제양에 대한 보험·위기대응 훈련 '분쟁 조정자' 주문

미래의 각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의 경영 체질로 '복원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리더는 사회 전반을 이해하고,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CSR인태셔널 설립자인 웨인 비서 박사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4 대한민국 CSR 국제 컨퍼런스'에서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서 "미래는 과거보다 더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측된다"며 "내일의 생존과 번영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늘 당장 복원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50년 인류와 경제, 에너지, 환경 등 4개 측면에서 기업이 직면할 위기상황을 예측했다. 비서 박사는 "환경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2050년 세계에서 극빈자 생활을 하는 사람은 4억3000만명까지 감소할 것"이라며 "전 세계

적으로 물 부족 현상에 39억명이 시달리고 오염과 위생문제 등 환경위험 때문에 조기 사망하는 사람은 70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더불어 중진국 함정에 걸린 국가는 경기 하락이나 저성장에 갇히고, 2050년 2억명의 환경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비서 박사는 미래에 닥칠 이 같은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복원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말하는 복원력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변화할 때 적응하는 능력이다. 비서 박사는 복원 전략을 '방어', '다각화', '분권화', '분리', '정의'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해 해법을 제시했다.

가장 확실한 방어로 기업이 재앙에 대한 보험을 들고 위기 시 대응하는 훈련을 받은 '분쟁 조정자'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 이어 사업과 사람, 제품, 시장 등 다양한 부분에서 기업이 다각화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분권화로는 로컬 서버의 정보를 분산시키고 다중화해 인터넷이 외부 영향을 덜 받는 것처럼 운영, 인프라, 솔루션의 분산을 통해 혼란에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리 전략으로 자원에 대한 의존성을 줄여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를 최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 전략으로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줄 것을 제시했다.

비서 박사는 위기에 대처하는 리더의 소양에 대해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과 예지력 있는 행동의 복원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제네럴일렉트릭(GE)의 잭 웰치와 제프 임멜트가 지닌 'CEO로서 리더십'을 비교 설명했다.



그는 "웰치가 재정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을지 모르지만, '어떠한 회생을 치르더라도 이겨야만 하는 공격적 리더'였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반면 GE의 9대 CEO인 임멜트는 지난 2005년부터 청정 기술에 5억 달러를 투자하고 '친환경적 상상력'을 의미하는 미래 전략 '에코매지네이션(EcoMagination)'에 1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지속가능한 투자를 집행해 세계 최고 리더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리더십이란 세계의 사회, 경제, 환경문제를 모두 인지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전 세계 경영자의 93%는 지속가능성을 미래 기업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 기후 변화, 자원부족, 건강을 가장 주목받는 지속가능 이슈라고 소개했다.

대부분 '봉사' 초기단계 참여 횟수는 연 1~2회

'2014 대한민국 CSR 국제컨퍼런스'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CSR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243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 중 80%가 CSR 활동 규모나 방향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었고, 92%는 CSR 목적으로 기업평판 제고를 우선시했다. 아울러 CSR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도 82%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서 "CSR 예산 규모가 전년보다 늘었다"는 기업이 65%에 이르지만, 증가율은 대부분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 기업의 46%는 기부금 비중이 70%를 넘었다.

전체 응답 기업 중 58%가 CSR 활동의 형태, 규모, 방향 등을 바꿨다고 했으며 22%는 대안을 찾지 못해 종전 활동을 답습한다고 답해 대다수의 기업이 CSR 활동의 근본적 변화를 진행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코스리 관계자는 "한국 기업의 CSR 활동은 아직 초기 단계"라며 "지속적으로 진화해야 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보다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은 성과지표 관리에 있어 임팩트보다 당장의 결과물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CSR 모델 발굴과 지표 관리에 직원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목표 달성을 위해 예산 규모 확대 등 전담부서와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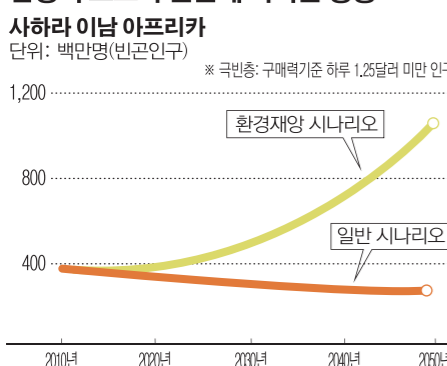
이번 조사에서는 또 응답 기업의 70%가 CSR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52%는 사내에 CSR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로 5회째인 '대한민국 CSR 국제컨퍼런스'에서는 위기대응 전략으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지니는 가치와 실천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와 코스리(한국CSR전략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는 '대한민국 CSR 국제컨퍼런스'는 지난 2012년부터 해마다 CSR 분야에 정통한 글로벌 및 국내 전문가들을 초청, 국내외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이번 국제컨퍼런스에서는 코스리와 임팩트투자 컨설팅기업 MYSC가 공동으로 실시한 '2014 기업 CSR 실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또 CSR 인태셔널 설립자 웨인 비서(Wayne Visser) 박사가 '위기관리 전략으로서의 CSR' 주제로, 로지컬 매니지먼트 시스템사의 기어리 스키치(Geary W. Sikich) 회장은 'CSR 기반의 위기대응 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섰다.

환경적 요소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



CSR 리더십 모델의 기본요소

특성	스타일
자상함/도덕성 시스템화/전제론적 사상이 탐구적/열린사고 자기인식/공감 예지력/용기	포괄적 공상적 창조적 이타적 이성적
스킬	지식
복잡성 관리 능력 비전에 대한 소통 판단력 훈련 도전 및 혁신 정기적인 생각	글로벌 도전/미래 학제간의 연관성 역학 변화/옵션 조직적인 영향/임팩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 및 견해

비서 대표 인터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자본주의 ‘동양서 찾는 추세’”

웨이 비서 박사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책임에 대해 연구하는 두뇌집단인 'CSR 인태셔널'의 설립자이자 대표다. 비서 박사는 이미 2012-2013년 두 차례에 걸쳐 CSR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한 만큼 국내에 잘 알려진 인물이다.

비서 박사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서양의 CSR를 모방하지 말고 '한국형 CSR'를 만들어 갈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날 "한국 기업이 선진국의 CSR 동향을 따라가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특히 서양의 기업을 따르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비서 박사는 "사실 서양의 주주 중심 자본주의와 산업화는 근본적 결함이 있다"며 "소득 불평등과 기후변화 등 많은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

한 자본주의를 동양에서 찾으려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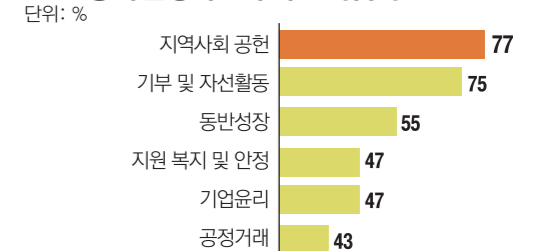
비서 박사는 한국 기업이 집중해야 할 부분에 대해 "모호하고 남용될 수 있는 '녹색 성장'의 개념을 넘어 탄소중립, 폐기물 제로 등 순환경제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클린 테크놀로지와 생체모방, 나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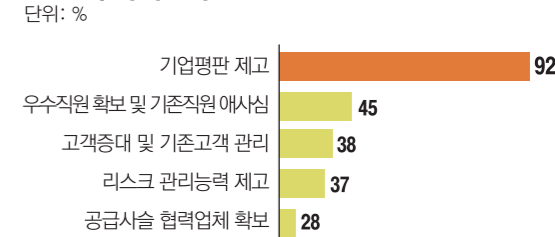
기술에 기반한 건강 솔루션 등의 분야에 장기 투자해야 한다"며 "이는 한국이 이끌어 나가기에 꽤 괜찮은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자산업은 폐기물 제로, 탄소중립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서 박사는 CSR 전문가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CSR라는 틀 안에 자신을 가두지 말아야 한다"며 "마케팅, 금융, 인적자원 관리 등 가장 관심 있는 비즈니스나 기술에 집중해 자신만의 능력을 발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SR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목표



CSR의 기대효과



이투데이 교육센터 대관안내

대관 문의
대관 담당자와 전화통화로 임대 가능여부 확인
전략사업실: 02-799-2663

대관 신청
대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및 이메일 송부
FAX: 02-784-2666

시설 현황
스크린 | 프로젝터 | 노트북 | 유선 Mic Zea | Console | Speaker
WiFi 가능 | 현수막 부착 가능

위치 안내
대방역 도보 1분
셋강역 도보 3분
여의도역 도보 10분



'이투데이' 교육센터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62길 1 이투데이빌딩 | TEL.02)799-2600 | FAX.02)784-1003 | www.etoday.co.kr

조직 구성원끼리 위기관리 프로그램 목표를 공유하라

실태 설문조사

“예산규모 늘었다” 65% 대부분 10% 미만 그쳐

그러나 대다수 기업이 봉사활동 지원에 치중하고 있었으며, 횡수는 연 1-2회에 그쳤다. CSR 활동 강화를 위해 보다 다양한 내용의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절실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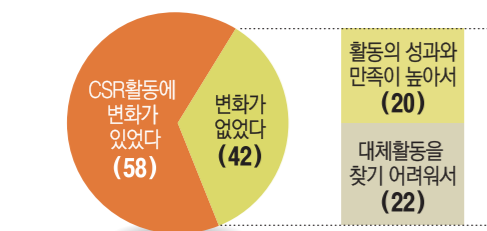
임직원의 CSR 활동을 보상하는 기업도 34%에 불과했다. 보상도 부서별 평가 인센티브, 포상, 인사 가점 부여 등에 국한돼 봉사활동 중심의 CSR에 치우치는 원인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임직원들의 자발성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보상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이 고려하는 CSR 최우선 이해관계자의 경우 고객, 공공부문, 임직원 순이며, 주주 및 투자자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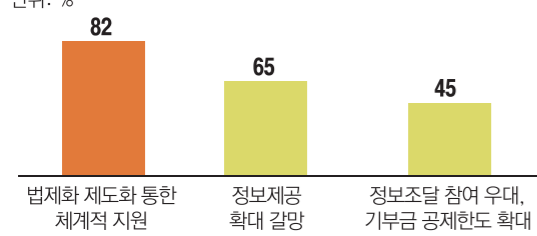
기업들의 CSR 활동 성과 공유 방법으로는 자사 홈페이지 게재, 언론보도 및 보고서 발간, 뉴스레터 등이 가장 많았다. 응답 기업들은 CSR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게 생각했다. 법제화나 제도화를 통해 CSR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82.4%에 달했고, 정보제공 확대를 요구하는 기업도 64.7%나 됐다. 정부조달 참여 우대, 기부금 공제 한도 확대 등을 요구하는 기업도 45%를 차지했다.

코스리 관계자는 “CSR 활동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다양하지만 실제 기대효과는 기업 평판 제고에 집중돼 있었다”면서 “이는 CSR가 홍보수단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만큼 경영전략 차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다 깊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환이 코스리 연구원

CSR 활동에 따른 변화



공공기관에 바라는 바



초청연사 강연

기어리 시키치 로지컬 매니지먼트 시스템 회장 / 'CSR 기반 위기대응 전략'

모든 보유 자료 체계화·유연한 상황 대처 중요 CSR 기반 리스크 신속 대처 9가지 전략 제시

기어리 시키치 로지컬 매니지먼트 시스템 회장은 위기에 처한 기업을 위한 9가지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2014 대한민국 CSR 국제컨퍼런스에서 두 번째 강연자로 나선 시키치 회장은 “위기상황에 대한 관리에도 파하지 못했다면, 대응을 잘해야 한다”고 발언을 열었다.

먼저, 기업은 조직 구성원들끼리 위기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 제시됐다.

그는 “우리는 복원력을 강화하고, 사건이 과격 국면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조직의 목표와 목적에 대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훈련을 잘 받도록 확신을 주는 게 이 과정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로 복잡성을 이해하는 과정의 필요성을

말했다. 그는 “위기의 발생은 한 두가지 이유만으로 생기지 않고 그 요인도 결과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도 알 수 없다”며 “이에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도 단순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단계는 비즈니스 연속성의 의미를 인지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즉, 비즈니스 장애물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위기 발생 시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지고, 결정을 미루게 되며, 상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커뮤니케이션이 급격히 위축된다. 뒤이어 정확한 정보에 대한 갈증이 고조되며 마음이 급해져, 또 상황 파악을 못하고 현실에서도 피하려는 심리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일련의 상황을 파악하고 각 단계마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 번째로는 위기관리 조직의 통합이 제시됐다. 그는 “당신은 조직과 연관돼 있는 내부적,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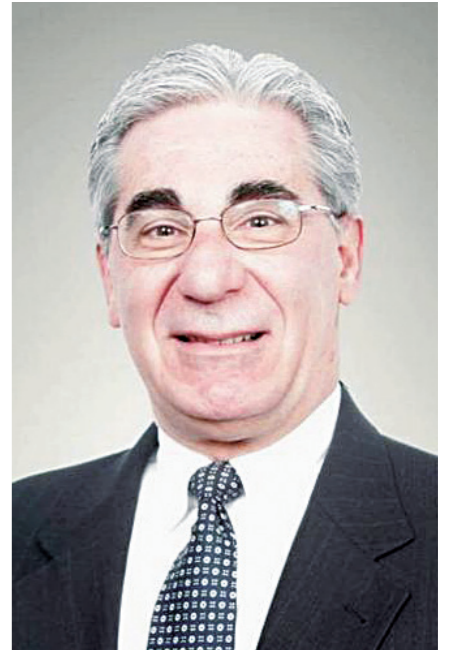
부적 ‘접점’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며 “가치 사슬과 정부, 이해관계자, 일반 대중 등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조직이 위기를 발견하면 그 즉시 총력을 완충하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결보기엔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이는 리스크들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다. 시키치 회장은 “중동, 동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볼 수 있듯이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있고 이는 대부분 기업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위기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직 입장에서 이런 위기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섯 번째는 잘못된 의사결정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극복하는 것이다. 완벽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이상, 실수는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잘못된 결정이 가져온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하라는 뜻이다. 이어 설명한 일곱 번째 단계는 우리가 준비한 위기관리 전략, 비즈니스 연속성 전략, 경영 전략 등이 법적으로 유효하도록 대비하는 것이다. 과거에 처한 피해는 미래의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도움을 준다.

여덟 번째 단계는 위기의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우리가 보유 중인 자원을 개념화하고, 측정하고, 강화하는 것이 제시됐다. 그가 말하길 전통적인 정보의 사이클은 ‘수집→비교→분석→입증→배포→통제→수집’으로 순환된다. 갖고 있는 정보를 이러한 과정을 거쳐 체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시키치 회장은 “체계화된 자료는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결단력 있게 나설 수 있는 든든한 무기”라며 “이 같은 절차 외에도 각계각층의 의사결정자들에게 그 정보를 검증받고, 그런 정보가 경쟁자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통제할 필요도 있



다”고 말했다.

아홉 번째 단계는 위기관리, 비즈니스 연속성, 사회적 책임 등 패러다임을 늘 고민하고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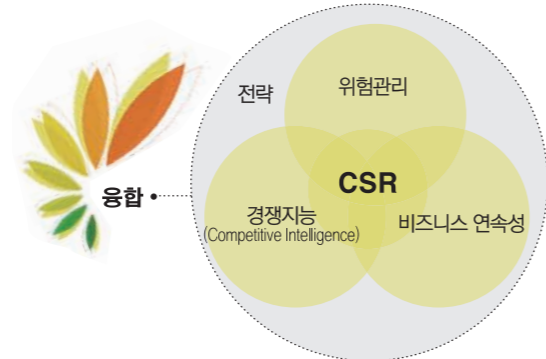
그는 “우리의 세계는 복잡하고 서로 연관돼 있으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태”라며 “만약 우리가 위기 관리, 비즈니스 연속성 등 핵심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틀에 박힌 사고를 고집한다면 조직이 현실에 대응하기 어려워진다”고 경고했다.

특히 시키치 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이라며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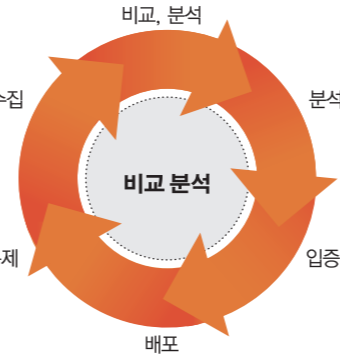
그는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하는데 몰두하는 나머지 과거 데이터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는 과거 데이터가 편리하겠지만, 그건 시야를 좁힐 뿐인 만큼 더 많은 정보가 깊이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벌어질 상황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혜진 기자 sinemargo@

CSR을 기반으로 하는 경영전략의 형태



전통적인 정보관리 사이클



시키치 대표 인터뷰

“단순 규정준수 벗어나 한국문화 담긴 차별화 전략을”

기어리 시키치 로지컬 매니지먼트 시스템 회장은 한국 문화가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접근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단지 규정을 준수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한국의 문화가 담긴 차별적인 CSR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시키치 회장은 “한국은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생존 위협을 극복하는 회복력을 잘 갖춘 나라”

라며 “한국만의 문화가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CSR부문에 차별화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시키치 회장은 “한국을 방문하게 돼 매우 기쁘고, 기대도 크다”면서 “한국의 문화와 사회에 대해 많이 배워 한국을 경험하지 못한 동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위기대응 전략을 설명하는 시키치 회장의 글

들에는 은유법이 유난히 많이 사용된다. 그는 “생생한 사례를 제공하는 것 못지 않게 조직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보다 쉽게 전달하는 데는 은유법이 효과적”이라며 “은유법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같이 비교 포인트를 제공하면 위기를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키치 회장은 일상에서의 위기 관리와 극복에 대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끊임 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게 매우 유용하다”며 “이는 소셜미디어 등 매체를 통해 듣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이해하고 있는 바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 기업과 컨퍼런스 참석자들에게 그는 “CSR을 위해 조직 내에서 수직적,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지역사회 및 정부와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보리 코스리 연구원



I'Lavita

일'라비타

ITALIAN LIFESTYLE CONCEPT STORE

OPEN 2014.02.28(FRI)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HYUNDAI DEPARTMENT STORE
MAIN STORE · B2F · 02)547-2233

첫 지도부 유세... 與 '대전' 野 '수원'

선택 6·4

오늘부터 13일간 공식 운동 애도 분위기 속 '차분한 선거' 새누리, 자극적 유세활동 자체 새정연, 정권 심판론 앞세워

6·4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2일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했다.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시·군·구에서 각각 단계장과 광역기초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전은 투표 전날인 내달 3일까지 13일간 진행된다. 이번 선거는 18대 대선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다. 다만 세월호 애도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여야는 과도한 율동이 나 퍼포먼스를 가급적 자제한다는 방침이어서 과거 선거 때보다는 차분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박대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공식 선거운동 기조를 '조용한 선거'로 정하고 차분하게 선거운동을 치르 고자 한다"며 "선거운동 기간 내내 겸손하 고 낮은 자세를 유지하고 자극적이고 극단



6·4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서 출마 후보들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했다. 22일 오전 서울 경복궁역 인근 도로변에 지선 출마 후보들의 홍보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적인 유세활동을 자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로고송 사용과 대중 유세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되 유세차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유향을 낮추는' 조건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새누리당과 비슷한 조건으로 유세를 진행하기로 하는 한편, 단호한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새누리당을 몰아붙일 계획이다. 노웅래 선대위 운영지원 본부장은 "무능과 무책임을 바로잡고 관행화된 우리 사회 부정부, 비리 적폐를 뿌리

뽑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어깨다·정당 현수막 등 모든 곳에 노란 리본을 내걸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이날 각각 대전과 수원을 첫 유세 지점으로 정했다. 새누리당은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 온 중원에서, 새정치연합은 '열세'에서 이제 막 '박빙'으로 바뀌기 시작한 경기에서 바람몰이를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되는 지역

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이른바 수도권 빅 3 지역이다.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소하게나마 새정치연합 후보들이 모두 우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장의 경우 박원순 후보가 정몽준 후보를 두 자릿수 격차로 리드하고 있고, 경기에선 김진표 후보가 남경필 후보를 처음으로 앞서는 등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인천에서는 송영길 후보가 오자 범위를 살짝 벗어난 지점에서 유정복 후보를 리드 중이다. 김의중 기자 zerg@

격전! 광역단체장 공약 비교 - 서울시장

鄭 "토건·개발 사업"... 朴 "사회적 경제 실현"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가 각각 제시한 시 발전상은 차이가 분명하다. 정 후보는 개발을 통해 서울을 '글로벌 랜드마크'로 세우겠다는 데 반해 박 후보는 공동체 복원으로 '사회적 경제'가 실현되는 수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들은 세월호 정국에서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안전 강화는 물론 서민경제 안정, 주택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정몽준	박원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부간선도로 일부 지하화·상층부 수변공원 강박 엔터테인먼트 존 지정 용산국제업무지구 추진 은행·강북·도봉 북한산belt 친환경 관광특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대 창조경제거점 육성 3대 아시아지식기반허브 구축 4대 경제특구제 도입 및 확대 서울역극 하이라인파크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조원 투자로 지하철 안전 확보 지하철 공기질 획기적 개선 폐쇄회로(CCTV)와 첨단 통제센터 확충 중학교에 학교 보안관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하철 노후차량 및 시설 전면 교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 위한 스쿨버스 도입 초미세먼지 20% 이상 감축 34개 치수위험지구 침수피해 제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한돌봄제도 시행 워킹맘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확대 어린이 도서관(영어도서관 겸용) 100개 건립 공립, 광장 등 공공장소를 와이파이 프리존으로 조성 원룸형과 기숙사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노인 요양원 30곳 설치 '원자안전병원'(보호자 없는 병실) 병상 1000개 확대 주민센터 사회복지인력 2배 확대 어린이 센터가들 3-TEN (10분이내, 밤10시까지, 구별 10개소) 프로젝트 찾아가는 복지센터 국립어린이집+1000 우리 아이 주치의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류부지 30곳에 신규투자 추진' 권역별, 구청별 일자리 정책을 통한 지원하는 '일자리 재단' 청장년을 위한 창업 멘토링 확대 일자리 재단 설립으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형 사회 및 복지서비스 좋은 일자리 59만개 창출 시장직속 일자리 위원회 신설 복지파수꾼 등 50+ 보령일자리 제공 맞춤형 100대 적정 업종 발굴

정 후보는 상대적으로 낙후한 강북지역의 민심을 겨냥해 △동부간선도로 일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 지하화 △경전철 공사 적극 추진 △22개 간선도로 조속 완공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외 서울과 중국 청도 간 뱃길 및 한강변 백사장 조성도 눈에 띈다.

정 후보의 이러한 약속들을 '묻지마 개발·재건축 규제'의 완화, 뉴타운사업의 선별 추진도 약속했다.

코엑스-한국전력공사-서울의료원 부지-잠실운동장으로 이어지는 국제교류 복합단지 조성사업이 대표적이다. 56만㎡ 규모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보다 훨씬 큰 이 사업은 박 후보는 민자유치 등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내년 철거 예정인 서울역 고가도로를 미국 뉴욕의 랜드마크인 하이라인파크와 같은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제물포(국회)대로와 서부간선도로, 동

부간선도로의 지하화 추진과 함께 신분당선을 연장하고 남부광역급행철도 등 광역철도와 경전철사업을 조기 추진하겠다는 약속은 정 후보와 일부 흡사한 면도 있다.

◇ 일자리 창출 해법, 특유·재단 설립 vs 사회적경제특구 = 정 후보는 시장 직속 중소기업진흥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자리 재단을 별도 설립해 특히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박 후보는 '사회적경제'를 일자리 창출의 핵심 열쇠로 제시한다. 주민 주도 지역발전을 위해 사회적경제특구 12개구를 지정하는 한편, 여성의 사회적 경제 모델을 만들어 10만 개의 여성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정 후보는 새벽 출근 시민들을 위해 버스지하철 요금 할인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박 후보는 안심주택 8만호와 소형주택 20만호 공급지원, 상가인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 조례 제정, 주택바우처 예산 10배 확대 등을 약속했다.

◇ 세월호 여파 속 '안전' 경쟁도 = 세월호 참사 발생 후 시내에서 발생한 지하철 사고를 의식한 듯 두 후보는 안전 분야 공약에서 지하철을 최우선에 뒀다.

정몽준 후보는 1조원을 투자해 지하철 안전을 확보하고 역대 공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CCTV와 첨단 통제센터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후보는 지하철 노후차량·노후 시설 교체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한강로를 비롯한 34개 침수위험지역 침수예방 사업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김미영·윤필호 기자 bomnal@

朴대통령 오늘 오후 수석비서관회의 긴급 소집

후임 총리 인선·개각 논의할 듯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후 예정에 없던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하면서 새 총리 인선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통상 수석비서관회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에 열렸다.

정와대 관계자는 기자회견의 통화에서 "지난 19일에는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곧바로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길에 오르면서 회의를 열지 못해 오늘 오후에 열게 된 것"이라면서 "자연스럽게 후임 총리 인선과 개각 등의 얘기도 오갈 수 있다"고 밝혔다.

여권에선 세월호 침몰사고 부실 대응 등

으로 악화된 민심을 돌릴 카드로 새 총리 지명과 개각을 꼽고 있다. 추락한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내각의 힘을 한데 모을 수 있는 리더십에 참신성을 더한 인사가 필요하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현재 여러 인사들이 총리 후보 물망에 올라 있지만,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지는 여전히 물음표가 찍혀 있다. 그런 점에서 또 한 번

감쪽 인선이 발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후속 개각은 총리를 지명할 후에 이뤄질 공산이 크다. 실제 논의를 떠나 총리 내정자가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행사한 것으로 자연스레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상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 절차가 마쳐야 하는 등 막대한 본격적인 내각개편은 빨라 지방선거 이후가 될 전망이다.

김의중 기자 zerg@

'空空기관' 불성실 공시 투성이

295개 중 291곳 허위공시 등 玄부총리 '신뢰 향상' 주문

295개 전체 공공기관 중 291개 기관이 공시불이행, 허위공시 등을 한 불성실 공시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4개 기관은 주의대상이었다. 특히 국가보훈처, 방위사업청, 국무조정실, 외교부·국방부 등의 소속 기관 순으로 불성실 공시 비율이 높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성실 공시를 한 공공기관의 최고경영자(CEO)와 담당 임원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공시가 기대 수준 이하라며 공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 부총리는 "실망스럽게도 공공기관 대부분이 공시의 정확성·신뢰성이 기대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최고경영자와 담당임원에 엄중 경고하고 담당자는 인사조치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각 기관이 알리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공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시스템

(알리오)의 운영상황을 점검한 결과 291개 공공기관이 공시불이행, 허위공시 등을 한 불성실 공시기관인 것으로 판명됐고, 4개 기관도 주의대상으로 나타났다.

현 부총리는 또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기관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모든 공공기관에서 이를 신속히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방면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영성과급을 퇴직금에서 제외하도록 한 사항이 노사 간 갈등이 되고 있다. 2010년 이후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등 22개 기관은 퇴직금에서 경영성과급을 뺐고 예산결재원과 그랜드코리아에서 등 2개 기관은 공공기관 방면경영 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 단행을 결정해 이를 반영했다.

하지만 한국전력, LH,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등 38개 기관은 아직도 고쳐치기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대법원 판례 등 관련사항을 재검토해 경영성과급의 퇴직금 산입이 불가하다는 점을 각 기관에 통보해 정상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민정 기자 puri21@

'김영란법' 원안통과 가능성

與 입장 바뀌 수용할 듯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과 관련해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 해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인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은 21일 만나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23일 열고 김영란법을 심의하기로 합의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초 발의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딴 해당 제정안은 2012년 8월 처음 입법예고됐지만 그동안 심의조차 열리지 못한 채 의면박을 받았다.

당초 새누리당은 정부 수정안, 야당은 원안 수용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로 해당 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졌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해당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하고 나서자 여당은 기존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공직자 금품수수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유지하는 데는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부정청탁의 범위와 처벌 기준, 처벌 수위 등

김영란법 주요 쟁점	
공직자 금품수수 처벌 조항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해 형사처벌
정부 안	직무관련성 없으면 받은 돈의 최대 5배 과태료 부과
야당	직무관련성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 금품 수수 시 모두 형사처벌
제3차 부정청탁 처벌	
정부 안	제3차가 공직자에게 부정청탁 시 최대 3000만원 과태료 부과
야당	이해당사자의 부정청탁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
야당	이해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부정청탁할 경우 무조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을 놓고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가성이 없어도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앞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지장이 되는 사람이라면 가차 없이 도려내야 한다"며 "원안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은 "할 수 있다면 이달 안에 상임위 처리까지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을 다루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제정안 내용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정무위는 이른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필호 기자 beettlebum@

"환율 1000원이면 1인당 소득 3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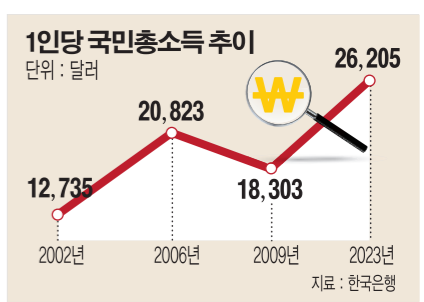
주요 연구기관 잇따라 발표

원·달러 평균 환율이 1000원에 이르면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 달러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환율이 지난달부터 급락해 1000원선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2만 달러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체감과 연결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22일 주요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원·달러 평균 환율이 올해 1000원이 되면 1인당 GNI가 3만 달러가 넘는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 4월 초 '경제전망' 자료를 통해 올해 성장률 3.9%, 환율 1030원, 1인당 GNI 2만9250달러로 발표했다.

그러나 환율은 지난달 9일 1050원선이 붕괴된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1030원선 무너지며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런 가운데 LG경제연구원은 평균 환율이 1000원이 되면 1인당 GNI가 3만127달러, 950원일 경우에는 3만1712달러가 될 것으로 분



석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난 4월 초 경제전망 이후 환율이 가파르게 떨어졌다"며 "오는 7월 수정 전망을 하는데 최근 환율 급락세를 반영해 올해 1인당 GNI가 3만 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환율 1000원을 1인당 GNI 3만 달러 달성의 분기점으로 봤다. 오정근 환경연 초빙연구원은 성장률 4.0%인 가정에서 환율이 1050원인 1인당 GNI가 2만9132달러나 1000원으로 내려가면 3만589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진영 기자 mint@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금융그룹



그 돈이
어떤 돈인데요

약간의 자존심, 접은 꿈과 맞바꾼 월급
용돈에서 아껴둔 비상금
연휴까지 반납하면서 따낸 경쟁프로젝트 보너스...

당신의 그 돈이 어떻게 번 돈인지 잘 알고 있기에
신한은 금융상품 하나하나에도 진심을 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투자환경이 급변해도 믿을 수 있는 따뜻한 금융회사가 되겠습니다

따뜻한 금융-신한금융투자

따뜻한 미래를 열어가는 [2014 신한 중위험 중수익 프로젝트]

신한명품 첫스텝 85 지수형 ELS

- 첫 조기상환 조건을 85%로 낮춰 빠른 수익상환 기대
- 코스피200, 홍콩지수, 유로스탁스50 기초자산으로 높은 안정성 추구
- 구조에 따라 연 5~8% 수준의 시증금+α 수익률 기회 제공

상담전화:1600-0119/홈페이지(www.shinhaninvest.com)참조

판매사 신용등급 : 신한금융지주AAA(한기평,2014.1)의 100%자회사 / 신한금융투자 AA(한기평,2013.12)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행사 부도 및 파산 시 원금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 기시 바랍니다. ※ 본 안내물은 청약의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청약의 권유는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 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에 따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4-02676호 (2014-04-21~2015-04-20)

프로들의 자산관리
신한금융투자

삼성생명, 泰 합작법인에 220억 유상증자 추진한다

〈타이삼성생명〉

삼성생명은 태국합작법인에 7억바트(약 22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했다. 계속되는 적자로 자기자본이 감소해 이를 충당하고 공격적인 영업을 하기 위해서다.

22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태국합작법인인 타이삼성생명에 2012년 2억 6000만바트, 2013년 5억4000만바트 등 총 8억바트의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유상증자는 삼성생명이 단독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태국 현지에 설립된 2개의 페이퍼컴퍼니와 함께 진행된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1월 351억원을 투입해 현지 특수목적법인(SPC)인 SSI와 PCH(Park Capital Holding)를 설립했다. 태국은 지난해 2월부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현지 보험사의 외자계 출자 자본율을 49%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삼성생명은 태국 현지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유상증자

타이삼성생명 현황

설립일	1997년
보유자본	3616만5049주(28.65%)
자본총계	63억3900만원(3월말 기준)
2013년 순손실	110억2800만원
직원수	임직원 280여명, 설계사 3500여명
지점수	7개

지속적 적자에 자기자본 감소 영업망 확충 등 공격영업 위해 현지 페이퍼컴퍼니 2곳 참여

를 계획하고 있다. 페이퍼 컴퍼니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기존 외자계 출자 자본율은 떨어지고 페이퍼 컴퍼니의 자본은 태국 현지법인의 자본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또한 삼성생명은 보유한 자본 외에도 SPC를 통해 간접적으로 타

이삼성생명의 자본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다만 SPC들이 얼마의 금액을 유상증자에 투입할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합작법인이기 때문에 유상증자 규모 등 전체적인 의사결정만 했을 뿐"이라며 "SPC 두곳의 유상증자 금액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이 타이삼성생명에 자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자기자본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타이삼성생명은 110억28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자기자본도 73억원으로 줄었다.

삼성생명은 이번 유상증자로 타이삼성생명의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공격적인 영업을 펼칠 계획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태국 현재 상황이 안정화된다면 유상증자로 마련된 자금으로 영업망을 확충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nfs0118@

하나SK + 외환카드 시너지 '긱'

젊은층·생활혜택

충성 고객·VIP

시장점유율 7.8%까지 기대

가맹점 공동 이용 비용 절감

금융위원회가 21일 외환은행의 카드사업 분할을 승인하면서 외환카드와 하나SK카드의 통합작업이 연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양사의 합병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도 관심이 뜨겁다.

카드업계는 하나SK카드와 외환카드가 합쳐질 경우 시장점유율, 가맹점 및 고객군, 마케팅 등에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의 규제와 카드사간 경쟁 심화 속에서 하나SK카드와 외환카드가 개별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는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다.

하나금융의 카드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나SK카드와 외환카드의 합병을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 및 마케팅과 영업면에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나SK카드와 외환카드의 합병으로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면 영업 및 마케팅 비용이 절감된다.

모바일카드를 강점으로 한 하나SK카드의 젊은 고객층과 충성 고객층이 강한 외환카드의 통합으로 양사간의 고객층이 겹치지 않는 점에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하나SK카드의 경우 통신할인 등 생활 혜택이 강하고 외환카드의 VIP 마케팅 측면에서 우위에 있어 상품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하나SK카드-외환카드 통합 전후 변화

(지난해 말 기준, 각사 취합)

	외환카드	하나SK카드	통합 카드사
점유율	3.2%	4.6%	7.8%
자본금	6400억원	5900억원	1조3000억원
카드자산	2조6000억원	3조2000억원	5조8000억원
순이익	666억원	35억원	701억원
가맹점수	220만개	40만개	260만개

특히 외환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220만개의 가맹점 네트워크를 공동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은 큰 이점이다. 하나SK카드의 현재 가맹점이 40만개에 불과해 막대한 가맹점 구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자본금 6400억원, 카드자산 2조 6000억원의 외환카드가 자본금 5900억원에 카드자산 3조2000억원의 하나SK카드와 합쳐지면 시장점유율이 7.8% 수준까지 올라 단순히 5위권으로 도약하게 된다. 하나금융지주와 SK텔레콤이 합작해 출범한 하나SK카드는 국내 카드사중 가장 낮은 4.6%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또 순이익은 지난해 말 기준 하나SK카드가 35억원, 외환카드가 666억원이다.

그러나 실제 '하나의 회사'가 되는 물리적 통합을 넘어서 화학적 통합까지 이루어지면 이해 관계자의 합의 등 적잖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두 카드사는 겹치는 부문이 적고 시너지가 나는 면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합병이 성사될 경우 중위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열리 기자 ellee@



동부화재, 자사형 GA '동부금융서비스' 출범

동부화재는 21일 자사형 독립법인대리점(GA)인 동부금융서비스를 공식 출범시켰다. 동부금융서비스는 기업 및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재무설계 솔루션을 통해 고객별 최적의 금융 및 보험자산 포트폴리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진 왼쪽부터 송하균 FC, 동부금융서비스 황원기 대표, 동부화재 김영삼 사장, 동부금융서비스 서석주 영업본부장이 기념 컷팅식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동부화재

농협카드, 해외전용 상품 출시한 까닭은

'해외 직구족' 등 타깃... 국내 사용 차단

분실·정보유출에도 제후처 없어 안심

영업을 재개한 NH농협카드가 해외전용 상품인 '글로벌 언리미티드 체크카드'를 지난 19일 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외 직구족'을 타깃으로 해 출시한 상품이지만 업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일반 범용상품임에도 해외 전용으로 출시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카드사들은 해외직구족에게 각종 할인 및 혜택을 제공하는 특화상품을 대거 출시하고 있다. 해외직구 시장이 2012년 5000억원대에서 지난해 1조원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4월 해외 쇼핑 배송대행 업체인 볼테일과 제휴해 '볼테일신한카드'를, 우리카드 역시

지난 2월 '에브리몰카드'를 각각 출시했다. 이들 카드는 모두 '국내의 경험'이다. 농협카드 역시 해외 모든 가맹점에서 한도와 횟수에 제한 없이 해외 가맹점 이용액의 2%, ATM이용액의 0.5%를 무제한 캐시백 해 주는 해외전용 상품을 선보였다.

일반 상품을 국내의 경험이라 아닌 해외전용으로만 출시한 이유에 대해 업계는 포화상태인 카드시장에서 고객의 주사용 카드가 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해외 직구족과 같은 틈새시장(니치마켓)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했다.

이 카드에 대해 NH농협카드는 정보 유출이나 위변조에 더욱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하려면 특히 제휴서비스를 탑재하는 과정에서 카드사와 제휴사 간의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데 이런 리스크 부담이 없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분실하거나 정보유출이 돼도 정보 공유 제휴처가 없고 국내 사용이 차단돼 있으니 고객이 안심하고 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열리 기자 ellee@

현대캐피탈, 그랜저HG 리스료 인하

만기시 잔가 추가 보장... 6-10% 낮아져

현대캐피탈은 22일 현대차 그랜저HG 전용 리스-렌트(이하 리스)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상품보다 만기시 잔가(예상 중고차 가격)를 추가 보장해 월 리스료를 낮춘 것이 특징이다. 리스상품은 리스료 산정시 차량가격에서 잔가(예상 중고차 가격)를 기준으로 한다. 현대캐피탈의 이번 차량가치 추가 보장은 이 잔가를 올려주는 것으로 기존 잔가에서 12%를 올렸다. 이를 리스료로 환산하면 기존 상품 대비 평균 6-10% 낮아진다.

단 차량가치 추가보장은 스계약 만료 후 연간주행거리가 3만km 이하 스운행 중 사고가 났을 경우 총 사고금액이 차량가격 5% 이내 스현대차로 리스를 다시



이용할 것 등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올렸던 잔가 12%만큼을 계약 종료 시 고객이 부담하거나 처음 계약과 동일한 리스료로 1년간 연장해 이용하면 된다.

또한 리스료 할인도 받을 수 있다. 할인금액은 총 1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차량가격이 2976만원인 그랜저HG를 36개월 운용리스(보증금 20%)로 이용할 경우 기존 리스료는 월 79만원 수준이나 전용 프로그램 이용 시 월 74만원 수준으로 3년간 180만원을 아낄 수 있다.

박열리 기자 ellee@



내 아이의 꿈에 희망을 더합니다

세상 모든 아이는 부모의 희망이기에 LIG손해보험이 아이를 평생 지켜주고 싶은 당신의 마음을 자녀보험에 담았습니다. 아이의 내일이 희망으로 가득해지고 그 희망들이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도록 LIG손해보험이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아이를 튼튼하게, 희망을 든든하게
LIG NEW 희망플러스 자녀(태아)보험

일상에서 일생까지!
희망파트너 LIG 손해보험



•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3-2857호(2013.12.30) •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LIG타워 www.LIG.co.kr • 고객센터: 1544-0114

•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 거절 및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유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LG전자 '키즈패드2' 출시 LG전자가 '키즈패드2'로 유아교육 시장을 공략한다고 22일 밝혔다. LG전자는 아가월드, 블루스프링스 등 주요 교육업체와 협력해 고객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아가월드의 전집 시리즈와 교구를 콘텐츠화해 담고, 블루스프링스 센터 내에는 체험존을 설치한다. 사진제공 LG전자

‘고객’에 다가서는 삼성전기

대형마트서 ‘전자가격표시기’ 홍보... 연내 론칭
B2B 기업 한계 넘어 ‘고객 친화 기업’ 변신 시도

삼성전기가 ‘전자가격표시기(ESL)’ 파일럿 사업을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올 하반기 국내 외 마트에 ESL 도입을 본격화하고, 세계 시장에서 적극적인 ESL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삼성전기는 이를 통해 B2B 기업의 한계를 넘어 고객 친화적 기업으로 거듭나는 한편, 본격적인 미래 수익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국내 일부 마트에서 시범 운영 중인 ESL 사업을 연내 정식 론칭할 예정이다. ESL은 정제기에 놓인 전자부품 사업을 보완할 삼성전기의 신수종 사업으로, 대형 마트 등에서 제품 정보와 가격을 전자식으로 실시간 표시하는 장치다. ESL을 설치하면 중앙 관리서버에서 가격이나 세일 현황 등 제품 관련정보를 한 번에 대량으로 변경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대형 마트 등은 제품 가격이 바뀔 때마다 마트 직원이 일일이 제품 라벨을 만들어 수작업으로 교체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홈플러스와 이마트가 ESL 파일럿 사업을 진행 중이다. 홈플러스는 동수원점과 금천점에서, 이마트는 성수점에서 ESL이 시범 운영되고 있고, 이

마트 용산점에서도 곧 ESL이 사용될 예정이다. 삼성전기는 파일럿 사업을 통해 시스템 오류 등을 점검하고, 연내 국내 마트에 ESL을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ESL 시장이 발달한 유럽에서는 이미 수백개 마트에서 삼성전기 ESL이 적용되고 있다. 영국의 대형 유통업체인 테스코 매장 수백 곳을 포함해 유럽의 수많은 리테일 업체가 삼성전기의 ESL을 이용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유럽 등 세계 시장에서 활발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거래선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삼성전기는 앞선 1월 미국에서 열린 ‘뉴욕 유통전시회(NRF)’와 2월 독일에서 개최된 ‘유로숍 2014’에 참가해 ESL 솔루션을 선보였다. 유럽과 북미 시장에 이어 이달 14일과 15일(현지시간)에는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커스토머 쇼(Customer Show)’에 참가해 다양한 ESL 솔루션을 홍보했다.

전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ESL의 세계 시장 규모는 5억2000만 달러(약 5600억원)로 아직 초기 단계지만, 오는 2017년에는 19억 달러(약 2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영 기자 gully@

삼성전자 새 2G·3G 폴더폰 ‘삼성 마스터’ 내일 출시

삼성전자가 사용자 편의를 극대화한 2G·3G 폴더폰 ‘삼성 마스터(Samsung Master)’를 23일 국내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삼성 마스터’는 3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으며 전·후면 모두 ‘갤럭시노트 3’에서 선보인 고급스러운 가죽 질감과 스티치 디자인을 적용했다. 설정된 기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정된 번호로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는 ‘안부알림’, 일정 시간 동안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약 70dB(데시벨)의 벨소리가 울리는 ‘큰소리 모드’ 등 유용한 기능을 탑재했다. 가속도 센서를 활용해 평소 운동량을 확인할 수 있는 만보기 기능, 평소 라디오를 즐겨 듣는 사용자를 위한 FM라디오 기능 등 실용성이 높은 편의 기능도 내장했다.

‘삼성 마스터’는 메탈릭 실버 색상으로 출시된 뒤, 몽블랑 블랙과 와인레드 색상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다. 2G 모델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서, 3G 모델



은 SK텔레콤, KT를 통해 각각 출시된다. 특히 출고가 24만원대에 불과해 학생층과 장년층에 큰 인기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 마스터는 조작성 간편하고 실용적인 피쳐폰을 선호하는 고객을 위해 출시한 제품”이라고 밝혔다. 서지희 기자 jhsseo@

올 리콜차량 대수 50만대

르노삼성 SM5·기아 레이 등 42차종
경차 적용 부품 수 늘어 변수 많아져

국내의 자동차업체들의 잇단 리콜을 올 들어 국내에서 리콜 차량 대수가 50만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결함신고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국내 리콜 차량은 총 42개 차종 37만 3666대다. 국산차가 4개 차종 34만4333대, 수입차가 38개 차종 2만9333대로 집계됐다. 5월 리콜 대수까지 포함되면 올 들어 국내에서 리콜을 실시한 차량은 49만 6800여대에 달한다.

지난달 르노삼성은 SM5에서 시동이 꺼지는 문제점이 발견돼 16만1700대를 리콜했다. 기아는 레이와 모

닝 등 19만7000여대를 배출가스 부품 결함으로 리콜 조치했다. 이달 들어서도 현대차의 투싼에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펴지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돼 12만2561대가 리콜 조치됐고, 한국지엠도 크루즈 574대에 대해 리콜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리콜이 급증하는 이유는 전자·제어 장치 등 경차에 적용되는 부품수가 늘어나면서 변수가 많아졌고, 이에 따라 차량 결함을 완벽하게 잡아내기가 더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가 비용을 줄이려 값싼 부품을 사용하는 사례도 결함 증가의 요인으로 지적된다. 권태성 기자 tskwon@

진에어 ‘이유있는 고공행진’

국제선·항공기 늘리며 ‘승부수’
매년 2차례 항공권 특가 판매도

올 여객수 38만명... 72% 늘어
저비용 항공사 중 증가율 1위
2위 제주항공 ‘이민호 효과’ 특출

저가항공사 국제선 여객수 단위: 명

	2013년	2014년	증가율(%)
이스타항공	215,018	259,250	20.6
제주항공	391,720	542,528	38.5
진에어	224,055	385,460	72.0
티웨이항공	142,937	168,384	17.8



올해 1-4월 저비용항공사(LCC) 중 진에어의 국제선 여객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LCC 간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연초 실시한 승부수가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22일 인천공항공사 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인천공항을 통해 외국에 다녀온 유입승객 중 진에어를 이용한 여객수는 전년 동기 대비 72.0% 늘어난 38만5460명으로 집계됐다.

진에어의 국제선 여객수 증가율은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4개 LCC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진에어의 국제선 여객수 증가율이 12.4%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6배 가량 높아진 셈이다.

진에어의 국제선 여객수 급증은 신규 노선 취항과 항공기 도입, 올 초 대대적으로 실시한 대규모 항공권 특가 판매가 원인이다.

진에어는 작년 7월과 10월에 인천-나가사키, 인천-치앙마이 노선을 신규 취항했다. 더불어 동남아 노선 성수기에 해당하는 동계 시즌에 동남아 노선을 대폭 증편했다. 이 같은 노선 확대를 위해 진에어는 지난해 6월과 9월 B737-800 항공기를 각각 1대씩, 총 2대를 추가 도입했다.

특가 판매도 진에어의 성장세를 이끌었다. 진

에어 관계자는 “지난 2012년 하반기에 백화점 정기세일 개념을 적용해 도입한 진에어 티켓이 매년 두 차례 정기적으로 항공권을 특별가에 판매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빠른 1월에 특가 판매를 실시해 봄, 여름에 여행을 떠나려는 국제선 여객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진에어 다음으로는 제주항공의 증가율이 높았다. 제주항공의 국제선 여객수는 54만252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제주항공은 LCC 중 최초로 1-4월 여객수 5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2월 제주항공 모델로 앞세운 한류배우 이민호 효과도 실제 여객수 증가에 보탬이 됐다.

한편, 국내 여행객들은 외국계 LCC보다 국적 LCC를 크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1-4월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승객 1405만명 중 14.1%인 198만명이 국내의 LCC를 이용했다. 국적 LCC 수송객수는 136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2% 늘었다. 반면, 외국계 LCC는 62만여명으로 6.4%나 감소했다. 이는 ‘가격’과 ‘서비스’를 모두 원하는 우리나라 소비자만의 독특한 심리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금융주치의’는 엄격하게 선발된 자산관리 전문가 입니다.



전문금융지식과 투자컨설팅경험을
갖춘 165명 금융주치의들이
시장의 기회와 리스크를 분석하여
최적의 자산 리밸런싱을 제안합니다.

대신증권 [금융주치의]

※ 금융주치는 특허청에 등록된 서비스표로서
상표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서비스표 등록 제 41-0271044호)

*당사는 (위험성, 수익성, 수수료, 해지방법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직원으로부터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이 따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4-02245호(2014.04.07 ~ 2015. 04.06)

9년 만에 '신형 카니발'... 레저 수요 공략

4년간 개발비 3500억 투입
업계 첫 4열 팝업 싱킹 시트
적재 공간 546ℓ... 2배 늘어
안전성·연비 등도 대폭 개선



기아자동차의 '올 뉴 카니발'이 22일 서울 광진구 W호텔에서 열린 출시 발표회에서 소개되고 있다.

사진제공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가 대표 미니밴인 카니발을 9년 만에 새롭게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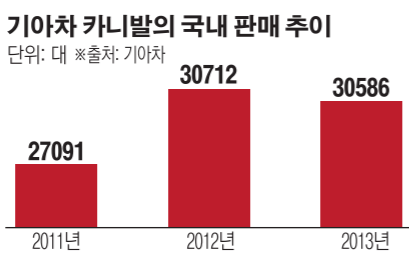
이삼용 기아차 사장은 22일 서울시 광진구 W호텔에서 열린 '올 뉴 카니발' 발표회에서 "올 뉴 카니발은 내외장 디자인, 차체 구조 및 안전성, 공간 활용도, 편의사양 등 모든 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이뤄낸 차"라고 소개했다.

기아차가 지난 2010년부터 프로젝트명 'YP'로 개발에 착수한 올 뉴 카니발은 지난 52개월간 개발비 3500억원을 투입해 만들어졌다.

올 뉴 카니발은 업계 처음으로 4열 팝업 싱킹(Pop-Up Sinking) 시트를 적용했다. 필요시 4열을 접어서 바닥으로 숨기면 최대 546ℓ의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카니발 4열을 접어 앞으로 밀어서 생기는 공간 261ℓ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레저와 캠핑 열풍으로 넓은 적재공간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고려했다고 기아차는 설명했다.

안전성도 대폭 강화했다. 최고장력 강판의 비중을 52%로 높여, 외부 충격에 의한 차체 비틀림과 굽힘 강성을 기존 모델 대비 각각 74%, 42% 강화시켰다.

연비와 친환경성도 좋아졌다. 11인승 기준 올 뉴 카니발의 연비는 기존 모델보다 5.5% 향상된 11.5km/ℓ를 달성했다. 안전성 강화로 차량 중량이 소폭 증가



비 각각 74%, 42% 강화시켰다.

연비와 친환경성도 좋아졌다. 11인승 기준 올 뉴 카니발의 연비는 기존 모델보다 5.5% 향상된 11.5km/ℓ를 달성했다. 안전성 강화로 차량 중량이 소폭 증가

(2110→2137kg)했지만 다양한 연비 개선 기술을 적용해 연료 소비 효율을 높였다. 이 차량에 탑재된 R2.2 E-VGT 디젤 엔진은 '유로6' 기준을 충족시킨다. 국내에서 저공해차 인증을 획득해 혼잡통행료 50% 할인,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올 뉴 카니발의 가격은 9인승은 2990만~3640만원, 11인승은 2700만~3590만원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카니발 출시를 계기로 국내 미니밴 시장도 크게 성장할 전망이다. 카니발은 지난해 국내에서 3만586대가 판매되며 시장 장을 견인했다. 여기에 수입업체들도 및

파라 미니밴을 국내에 선보이면서 국내 미니밴 판매 규모는 2010년 3만1527대에서 지난해 6만6005대로 3년 사이 109% 성장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가족 단위의 이동과 여가를 즐기는 세대들이 늘어나면서 미니밴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카니발은 1998년 첫 선을 보인 이후 국내에서 57만대, 해외에서 89만대 등 모두 146만대가 판매됐다. 출시 이후 16년 동안 연평균 9만1000여대가 팔린 셈이다. 카니발은 북미시장에는 하반기 투입될 예정이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타보니

볼보 트럭

안락한 승차감... 너 트럭 맞니

인공지능 자동변속기 'I-시프트'
기존보다 연비 5% 높이는 효과
운전석 선투프 등 안전성 개선



트럭이 진화하고 있다. '거칠고, 힘이 넘친다'는 기존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유연성과 부드러움'까지 갖췄다. 승용차에서 느낄 수 있는 안락함과 안전 편의사양도 대거 장착됐다.

지난 19일 경기도 평택 볼보트럭 종합출고센터에서 신형 볼보 트럭을 타고 운오프로드를 달려봤다. 먼저 볼보 FH 트럭을 타고 비포장도로를 주행했다. 차량 밖에서는 걸걸한 엔진소리가 귓가를 때렸지만, 운전석에 올라 차 문을 닫자 생각보다 진속함이 느껴졌다.

액셀러레이터를 밟자 묵직하게 트럭이 나아갔다. 첫 출발은 묵직했지만 이내 가속력이 금방 붙었다. 특히 적재함에 20톤에 이르는 화물을 싣고 달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적재함의 무게가 차량 속도에 힘을 실어줬다. 이 트럭의 최고속도는 시속 90km/h. 국내법상 트럭의 최고속도는 제한돼 있다.

인공지능 자동변속기 I-시프트도 만족스러운 기능이다. I-시프트는 신속하고 부드러운 변속이 가능한 것은 물론, 고출력의 토크를 발휘해 우수한

주행능력과 높은 연비를 구현했다. 실제 볼보트럭에 따르면 I-시프트 장착으로 기존보다 연비가 5%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

오프로드 주행에 이어 운로드에서는 핸들링을 중점적으로 살렸다. 적재함을 떼고 S자 코스를 연이어 달렸다. 핸들링은 정교하고 부드러웠다. 차체의 크기가 커 코너를 크게 돌긴 했지만, 큰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자유롭게 S자 코너를 주행할 수 있었다.

볼보 신형 트럭은 운전자 편의성과 안전성도 개선했다. 이전 모델보다 수납공간과 뒷좌석 짐대공간은 더 넓어졌고, 계기판과 센터페시아는 운전자가 차량 속도에 힘을 실어줬다. 이 트럭의 최고속도는 시속 90km/h. 국내법상 트럭의 최고속도는 제한돼 있다. 혹시 모를 차량 전복 사고가 일어나 운전석이나 조수석 문이 열릴 경우, 망치로 선투프를 깨고 운전자가 탈출할 수 있도록 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밤술 라이벌' 쿠쿠-쿠첸 신사업도 잘나가네

쿠쿠전자, 2010년 정수기 진출 '업계 2위' 성장
리홈쿠첸, 여름철 겨냥 신제품 제습기 2종 출시

국내 밤술 시장의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쿠쿠전자와 리홈쿠첸이 새로운 사업으로 재도약을 준비 중이다. 국내 포화상태인 밤술 시장에서 벗어나 정수기, 제습기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모델을 찾고 있는 것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쿠쿠전자는 2010년 정수기 사업 진출 이후 꾸준히 정수기 판매를 늘려왔다. 밤술 시장에서는 7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지키며 부동의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수기 시장에서는 아직 2위권에 머물러 있다. 최근 새롭게 출시된 '코크살균 정수기 인앤아웃'은 전기분해 살균수가 저수조부터 코크까지 자동 살균하는 제품으로 유해물질을 99.9%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이다. 물이 저장되는 저수조는 스테인리스로 제작해 세균 번식과 물때가 끼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쿠쿠전자는 특히 디자인에 대한 혁신을 앞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로 보

고 있다. '코크살균 정수기 인앤아웃'은 블랙과 화이트 색상을 통해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설계됐다. 기존 밤술 디자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쿠쿠만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쌓아온 노하우를 정수기에도 그대로 적용했다.

국내 밤술업계 2위 리홈쿠첸은 올 여름 시장을 뜨겁게 달궈줄 제품이 제습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름철 생활가전의 강자는 에어컨이 대세였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 제습기 수요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리홈쿠첸은 여름철 쾌적한 생활을 위해 2014년형 제습기 2종을 새롭게 출시했다. 리홈쿠첸 신제품 'CCD-CD10 시리즈'와 'CCD-CD15 시리즈'는 각

각 일일 제습량 10ℓ, 15ℓ의 넉넉한 양으로 오랜 시간 동안 습도를 조절할 수 있게 설계됐다.

신제품 제습기 2종은 제습-정지를 반복해 알맞은 습도를 찾아줄 수 있는 자동습도 기능을 탑재했다. 바람의 세기를 설정할 수 있는 풍량 조절 기능을 통해 CCD-CD15 시리즈는 강약 2단, CCD-CD10 시리즈는 3단계까지 조절할 수 있다.

최준봉 리홈쿠첸 상품기획 부문장은 "최근 고온다습한 여름이 길어지면서 제습기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며 "리홈쿠첸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만든 2014년형 제습기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tlatio@

위기의 중소 로봇청소기 제조업체

대기업 공세에 적자 허덕
성능 평가서도 낙제점 받아

로봇청소기를 제작하는 중소기업들이 정제기에 빠져들었다. 대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중소기업에 설 곳이 없다는 지적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로봇청소기 시장은 2008년 11만대까지 성장했지만 이후 둔화세를 보이며 10만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여기에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이 시장에 가세하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시장점유율이 60~70%에 달하고 있다. 대형 제품을 구매할 때 로봇청소기를 판촉물로 끼워주는 일이 많아 '로봇청소기는 사은품'이라는 인식까지 생겨났다.

이에 따라 한때 잘나가던 로봇청소기 제조 중소기업들의 수익구조는 점차 악화되고 있다. '아이클레보'를 판매하는 유진로봇은 지난해 매출 260억원, 영업이익 25억원을 기록하며 적자로 돌아섰다. 마미로봇 역시 매출 141억원, 영업이익 12억원으로 침체기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

또 지난해 12월 소비자시민모임이 발표한 로봇청소기 제품 성능평가 결과도 시장 부진에 기름을 부었다. 국내 유통 중인 로봇청소기 7개 제품의 비교 성능 평가에 따르면 먼지제거, 자율이동성능 등의 항목에서 절반이 넘는 제품이 기대에 못 미쳤다. 4월에는 한국소비자원이 로봇청소기 관련 상담 건수가 2010년 72건에서 지난해 164건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조성준 기자 tlatio@

서울시우수기업브랜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 OZ

재개발 없이 그대로 앱에서 보고서를 본다!

하나의 소스로 멀티플랫폼을 지원하는 스마트 OZ

OZ Report는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태블릿PC에서 별도의 개발 없이 보고서를 볼 수 있는 전용 앱을 지원합니다.

www.forcs.com

(주)포시에스 ·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49-6 유한양행빌딩 12층 · 대표전화 02)828-1400 / 제품문의 02)828-1431 / 팩스 02)828-1414

알뜰폰 요금 더 알뜰해진다

이통3사 저가폰 공세에 요금할인 나서 CJ헬로비전, 기본료 한달 면제 프로모션 KCT, 통화료 초당 0.9원 요금제 내놔

이동통신3사의 저가폰 공세에 알뜰폰 업체가 요금 인하로 맞대응에 나섰다.

22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영업재계에 나선 이통3사가 업체마다 9-11종의 저가폰을 출시하자 알뜰폰 업체들이 가입자 수성을 위해 다양한 요금할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CJ헬로비전은 내달 25일까지 통신 기본료 한달치를 면제해주는 특별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기본료를 면제받기 위해 소비자들은 '조건 없는 유심(USIM) LTE' 요금제를 사용하면 된다.

조건 없는 유심 LTE는 고객들이 이동통신 가입 시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약정기간을 없애고 높은 통신료를 줄인 요금제다. 현재 '조건 없는 유심 LTE 21', '조건 없는 유심 LTE 26', '조건 없는 유심 LTE 31' 등 3종이 있다. 헬로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와 번호 그대로 사용하면서 유심만 교체하면 된다.

CJ헬로비전 김중철 상무는 "조건 없는 유심 LTE는 이전에 단말기 보조금을 많이 받고 고가요금제를 계속 써야 했던 고객들이 음성-메시지-데이터를 똑같이

쓰면서 가계통신비를 반값으로 줄일 수 있는 기회"라며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혜택을 직접 비교해보고 고스란히 가져가는 알뜰 고객들이 더욱 많아질 거"라고 말했다.

한국케이텔레콤(KCT)도 이날 국내 최저 음성 요금 0.9원을 적용한 '티플러스 음성영구요금제'를 선보였다.

티플러스 음성영구요금제는 기본료 6900원에 음성 통화료가 기존 초당 1.8원의 반값인 0.9원이다. 한달 평균 음성 통화량이 60분인 고객의 경우 타 통신사는 통화료가 6480원(1.8원/초)이지만 티플러스 음성영구 요금제는 절반 가격인 3240원(0.9원/초)에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요금제는 가입시 의무 약정이 필요 없으며, 가입 후 6개월 이상 유지시 가입비(2만4000원)면제 혜택까지 추가로 제공된다. 또 유심(USIM)전용 상품으로 서비스 가입 후 배송 받은 유심을 기존 3G 단말기나 스마트폰에 넣어 바로 사용하면 된다.

알뜰폰 업체들은 앞으로 요금인하와 다양한 요금제, 서비스 확충 등 통신 본원적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단말기 공동 조달을 위해 알뜰폰 협회 차원에서 제조사와 협상을 벌이는 등 단말기 수급을 원활히 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통 3사가 영업재계와 동시에 들고나온 저가폰 마케팅 전략에 맞서기 보다는, 이를 우회하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KT 올레닷컴 야구상품 할인 KT는 올레닷컴 액세서리샵에서 한국프로야구 구단 상품을 판매하고, 통신사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액세서리 할인쿠폰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올레닷컴 액세서리샵에서는 올레부터 퓨처스리그에 합류한 kt wiz의 모자·유니폼·캐릭터 상품과 삼성라이온즈·두산베어스의 구단 모자와 유니폼을 판매한다. 그리고 유명 야구 브랜드인 롤링스·미즈노의 글러브·야구배트, 게임웨어의 프로야구 구단 천연가죽 팔찌도 판매한다. 사진제공 KT

中企 졸업한 중견기업 60% “세제지원 줄어 단점 더 커”

졸업 직후 매출 증가율도 크게 떨어져

국내 중견기업 10곳 중 6곳은 중소기업을 졸업한 후 '단점이 더 크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11-2013년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 239개의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졸업 후 '단점이 크다'는 답변은 57.4%로 조사됐다. 반면 '장점이 크다'는 응답은 10곳 중 1곳(9.9%)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졸업 후 줄어드는 지원책으로 '세제지원(77.0%)'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정책자금 지원'(12.6%), '인력지원'(4.9%) 순이었다.

중견기업들은 중소기업 졸업 후 장점으로는 '가입위

상 제고'(52.7%), '규모의 경제효과'(13.7%), '인력확보 용이'(12.2%), '민간자금 조달 용이'(10.7%) 등을 꼽았다.

한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을 졸업한 직후 매출액 증가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회가 조사대상 기업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졸업 직전 3년 평균 16.2%였던 매출액 증가율은 졸업 후 1-3년 평균 2.7%로 떨어졌다. 반면, 고용 증가율은 졸업 전 7.1%에서 졸업 후 평균 6.2%로 감소했다.

국내 중견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데는 19년이 걸렸다. 기간별로 보면 '10년 이상-20년 미만'이 30.5%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년 이상-30년 미만'(26.4%), '10년 미만'(25.1%), '30년 이상'(18.0%) 순이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밴드 게임’의 반란... 구글 앱 10위권 진입

출시 10일 만에... ‘라바링크’ 8위로

네이버의 '밴드 게임'이 출시 10일 만에 앱 마켓 상위권에 진입했다.

밴드 게임은 지난 19일 출시 일주일 만에 누적 다운로드 100만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날 현재 밴드 게임 내 인기부문 1위부터 3위를 기록 중인 코카반의 '라바링크', 아프리카TV의 '역전! 맞짱투구', 피닉스게임즈의 '명랑운동회' 등이 구글 플레이 상위에 진입했다.

특히 코카반의 라바링크는 꾸준히 다운로드가 발생해 구글 플레이 앱 전체 인기부문 순위에서 8위를

기록하며 10위권 내에 처음으로 진입했으며, 카카오키프 게임 일색이던 게임 카테고리에서는 4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밴드 게임 내 라바링크와 1위 다름 중인 아프리카TV의 '역전! 맞짱투구'는 게임 카테고리에서 11위에 올랐고, 앱 전체 순위에서 17위에 오르는 등 순위가 급상승하고 있다.

피닉스게임즈의 명랑운동회는 전체 앱 순위로는 46위, 게임 카테고리에서는 23위를 기록 중이다.

애플 모바일 관계자는 "출시 초반 평가를 내놓기는 이른 감이 있으나, 신생 게임 플랫폼으로서 중소 개발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만큼은 충분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태현 기자 119@



응답하라! 리니지 페인

엔씨소프트 리니지2 '클래식 서버' 오픈

엔씨소프트가 리니지 타이틀에 신규 콘텐츠를 추가하고 업데이트로 생명력을 불어넣으며 실적 반등을 노리고 있다. 엔씨소프트의 핵심 캐시카우였던 '리니지' 타이틀의 매출이 급감한 데 따른 조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지난 1분기 리니지 매출이 410억원으로 전년대비 무려 37.9%나 줄었다. 리니지2 역시 116억원 매출에 그치며 전년대비 18.5% 감소했다.

이에 엔씨소프트는 리니지에 신규 서버를 오픈하고, 캐릭터를 추가해 유저들을 다시 끌어모을 계획이다. 6월 11일 '전사' 탄생 업데이트라는 이름 아래 6년만에 신규 서버를 오픈하고 신규 클래스를 추가키로 한 것이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2와 관련해서는 오는 28일 클래식 서버를 오픈한다. 올해 서비스 11주년을 맞은 리니지2는 서비스가 장기화함에 따라 최근 매출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 출시에는 매년 100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으나 최근에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이같은 상황에서 클래식 서버

1분기 매출 급감에 업데이트 “가장 리니지다운 리니지” 과거 유저들 복귀 노려

를 오픈해 유저들을 다시 끌어모으는 전략이다. 사실 클래식 서버는 유저들이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와, 서버가 활성화할 경우 과거 유저들이 많이 몰려들 것으로 업계에서도 내다보고 있다.

리니지2 개발 총괄 남궁근 PD는 “클래식 서버는 리니지2 ‘카오틱 크로니클’시대의 과거 클라이언트 환경을 구현한 특화 서버”라며 “클래식 서버는 고객들이 가장 재미있게 즐겼던 시기의 리니지2이자, 가장 리니지다운 가치를 철저히 지켜내는 리니지2”라고 설명했다.

이 서버는 노력에 비해하는 확실한 보상은 기본이고, 1000레벨 시스템은 지양한다. 힘든

환경에서도 성장할 때마다 확실한 체감을 느끼게 해, 지속적인 성장 목표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거 특색있던 31개 클래스의 개성을 회복시킨다. 또한 10년 전 바츠혁명전쟁의 원동력이었던 소규모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전장에서 지속적인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사랑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는 한편 PK(Player Kill)에 대한 동기도 함께 부여해 확신이다.

엔씨소프트 측은 “리니지는 아이템 매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월정액 매출은 견고한 상황”이라며 “리니지와 리니지2를 단기간의 아이템 판매가 아닌 콘텐츠 업그레이드를 통한 장기성 장전략 아래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키움증권 안재민 애널리스트도 “엔씨소프트의 1분기 실적은 상당히 부진했지만 2분기 이후 신규 게임과 리니지의 회복 등을 감안하면 실적 회복세를 기대해 볼만하다”며 “중국에 상용화를 시작한 ‘월드워2’, ‘블스’, ‘와일드스타’ 등도 2분기 이후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정유현 기자 yhssoo@

HYUNDAI MANSOFT
softman soft, beyond smart



말하라!
그 길이 열릴 것이다

New 국내 최다 200만개 단어인식, 국내 최고 음성인식률!

소프트맨 음성인식 내비게이션

사용설명서가 필요없을 만큼 편리한 내비게이션



설명서가 필요없는 쉬운 사용성
소프트맨 S571



편리하고 안전한 음성인식 경로 탐색
소프트맨 S571V



8인치 대형 화면의 우수한 시인성
소프트맨 S581V



매일 전용 9인치 최고급 프리미엄 품질
소프트맨 S591V



http://www.softman.co.kr 본 제품의 수리권 중 일부는 무료 개안 수리 지원에 소중하게 쓰여집니다.

고객센터 1577-4729 | 현대엔소프트㈜ 창작점 모집 안내 : 02-3483-8471, 8473

업계 최초 연동유류 환 센터 운영 & 전국 약 50여 개 서비스 지정점 구축

이라크서 분당급 신도시 개발... '제2의 중동 붐' 신호탄



한화건설은 이라크 등 중동에서 SOC(사회기반시설) 강자로도 이름을 드높이고 있다. 2015년까지 매년 25%의 매출 성장을 유지, 해외매출 비중을 65%까지 끌어올려 글로벌 건설사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2012년부터 공사를 진행 중인 80억 달러 규모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는 10만 가구의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동남쪽으로 10km 떨어진 비스마야 지역에 1830ha(550만평, 여의도 면적의 6배) 규모의 신도시를 개발하는 공사로 설계·조달·시공을 한 회사가 모두 진행하는 디자인 빌드(Design Build)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사기간은 7년이다. 단독 프로젝트로는 해외건설 사상 최대 규모로 2012년 대한민국 해외건설 수주액(649억 달러)의 12%를 상회하면서, 누적수주액 5000억 달러 달성에 방점을 찍었다.

80억달러 규모 비스마야 신도시 10만가구 설계·조달·시공 플랫폼 기술력과 SOC 노하우 앞세워 신규 시장 개척 나서 톱10 건설사 진입...내년까지 해외매출비중 65% 달성 목표

◇세계 최대 규모 PC플랜트 준공식 가져= 한화건설은 지난 4월 16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규모의 PC(Precast Concrete) 플랜트 준공식을 갖고,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주택 10만 가구 건립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진행된 준공식은 누리 카밀 말리키(Nouri Kamil Al-Maliki) 이라크 총리, 사미 알 아라지(Dr. Sami R. Al-Araji) NIC 의장, 조정원 이라크 대사,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준공식에서 말리키 총리는 플랜트 설비의 규모와 자동화 시설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말리키 총리는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어떻게 지원할지 많은 고민을 했다”며 “오늘 준공한 PC플랜트를 통해 김승연 회장을 비롯한 한화의 역량이 감탄했으며,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화건설은 10만 가구 주택과 단지조성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며, 제한된 시간과 비용에 맞춰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을 완수하기 위해 PC공법을 통한 통합수행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한다. PC공법은 건축물을 구성하는 기둥, 벽 등을 PC플랜트에서 모든 콘크리트 건축부재를 생산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건축 공법이다. 공기 단축은 물론 경제성과 품질 면에서도 뒤지지 않는 공법으로 과거 국내 건설업체가

리비아 주택건설공사 등에 적용해 성공적으로 공사를 수행한 바 있다. 최광호 한화건설 전무는 “이번 PC 플랜트의 준공은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의 본격적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준공식을 당초 계획보다 2달여간 앞당겨 진행할 정도로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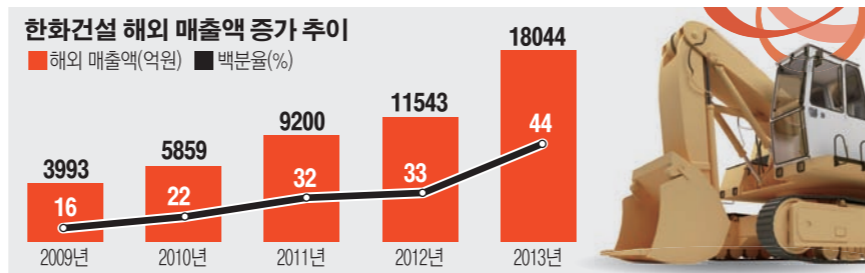
현재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현장에는 PC 플랜트를 비롯해 14개의 자체 생산공장이 완공돼 각종 건설자재를 차질 없이 생산 중이며 본격적인 하우징(주택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총 8개 지구, 58개 단지에 10층 아파트 839개 등이 들어서게 되는데, 공사가 본격적으로 오르면 PC공법을 통해 두 달에 한 번씩 잠실 3단지(4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게 된다. 한화건설은 이번 PC 플랜트의 준공으로 2015년부터 연평균 2만 가구씩, 5년에 걸쳐 1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해외건설 수주 140억 달러 달성= 한화건설이 해외사업 수주에 지속적인 성과를 올리며 지난 2월 해외건설 수주 140억 달러를 달성했다. 한화건설의 해외매출 실적은 2007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전체 매출 4조원에서 해외 매출 비중이 44%(1조8000억원)를 차지하는 등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화건설은 여천NCC, 한화케미칼 등 국내 플랜트 공사에서 축적된 케미칼 및 파워 플랜트 공사 기술력과 신



한화건설은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규모의 PC 플랜트 준공식을 갖고,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주택 10만 가구 건립의 본격적 시작을 알렸다. 사진은 이라크 PC 플랜트 전경. 사진제공 한화건설



프로젝트명(공사기간)	국가	공사내용	총공사규모	발주처
Bismayah New City PJ (2012년 6월~7년간)	이라크	신도시, 단지조성공사 및 10만호, 국민주택, 건설공사	80억달러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
Jazan Refinery and Terminal Project Package #14, Marine Terminal Project/ 자잔(Jazan) 정유 및 터미널 프로젝트 중 14번 패키지 (2012년 6월~7년간)	사우디	해안터미널 공사	5.85억달러	Saudi Aramco
Ad Duwayhi Gravity-CIL Gold Project/ 골드프로젝트 (2013년 2월~2015년 2월)	이라크	광물 플랜트	2.7억달러	Ma'aden Gold & Base Metal Co.
알제리 450MW Biskra Simple Cycle Power Plant/ 알제리 발전 플랜트 (2013년 10월~2015년초)	알제리	발전 플랜트	4.5억달러	알제리 SPE
인산생산설비 화공 플랜트 (2012년 6월~7년간)	사우디	화공플랜트	9.35억달러	MA'ADENIH, MOSAIC, SABIC(3사)

도시 개발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신규시장을 개척한다는 전략이다.

이라크, 사우디, 알제리, 필리핀 등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진출국과 인접국을 중심으로 사업거점을 확장하되, 지역 위험도 등을 고려한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신규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한화건설은 이라크 비스마야 프로

젝트 등 해외사업의 순환을 바탕으로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평가한 2013년 시공능력 평가에서 국내 10대 건설사 대열에 합류했다. 또 올해는 김승연 회장의 글로벌 경영 의지를 담아 '신도시 인프라' 등의 건설을 통해 국내를 넘어 세계에 가치를 부여하자'는 의미의 새로운 기업 비전인 'Design the World'를 선포했다. 강영만 기자 kwan@

해외서도 협력사와 동반성장

김승연 회장 '함께멀리' 경영철학 100여개 하도급 업체와 이라크行

50대 장년층도 과감한 채용 능력 중심의 현장인력 눈길

한화건설은 2012년 김승연 회장의 글로벌 경영전략과 전폭적 지원을 기반으로 80억 달러 규모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를 수주해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100여개 국내의 중소 자재 및 하도급 업체와 1000여명에 달하는 협력사 직원들이 동반진출해 있다.

한화건설을 비롯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라크 내 추가 수주가 이어진다면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외화 획득,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한 경기침체 극복의 활로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연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본부장은 작년 4월 열린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 및 일자리 창출 세미나'에서 "한화건설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 수주는 김승연 회장을 필두

로 이라크 재건사업에 대한 의지와 용기를 보여줘 타기업의 귀감이 된 우수 사례"라며 "이는 제2 중동붐의 시작점이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성공적 동반성장 사례가 되고 연인원 55만명이 넘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화건설은 이라크 현장 투입인력 중 10%는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50대 후반 중년층을 경험한 실버인력으로 채용하고, 나머지 90%는 열정과 패기를 지닌 청년층으로 선발해 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왔다. 김승연 회장은 강조하는 능력 중심의 인재채용 이념을 반영, 실천한 것이다.

앞서 이근포 한화건설 사장은 "김승연 회장의 경영철학인 '함께 멀리' 정신을 바탕으로 협력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분야의 지원책을 확대하고 이라크 신도시 건설공사를 비롯한 해외공사에도 협력사와 동반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영만 기자 kwan@

개포·둔촌 재건축 소식에... '오를텐데 왜 팔아' 매물 회수

둔촌주공 1만1106가구·개포1단지 6662가구 심의 통과 현지 중개업자 "매도자들 가격상승 기대감에 거둬들여"

개포1단지와 둔촌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심의가 통과되면서 인근 매물이 사라지고 있다. 기대 심리에 물건을 싸게 내놨던 매도자들이 재건축에 탄력이 받자 더 좋은 조건에서 가격을 올려 팔기 위해 다시 물량을 거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들 단지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명품주거단지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주택 재건축제비사업 계획안을 보면 강남구 개포동 660-3번지 일대인 개포주공1단지는 6662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개포1단지 재건축 사업 대상지의 면적은 30만7566㎡이며 획지는 3개로 분할됐다.

1·2번 획지는 건폐율 19.34%, 용적률 249.99%를 적용해 지하 4층, 지상 35층, 연면적 114만 701.13㎡로 건축되며 아파트 6662가구가 들어선다. 조합원 및 일반분양 물량은 6267가구, 재건축소형(임대) 주택은 395가구다.

3번 획지에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

선다. 이 곳은 건폐율 46.30%, 용적률 229.75%를 적용해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1만6715.00㎡로 건축된다.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착공 예정일은 2015년 6월이며 준공 예정일은 2018년 10월이다.

또한 대지면적은 46만3106.6㎡인 둔촌1동 170-1번지 둔촌주공아파트(1-4단지) 일대는 미니도시로 변모하게 된다.

특히 단일 재건축 사업단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1만1106가구 아파트 단지로 바뀌게 된다.

건폐율 19.11%, 용적률 273.88%가 적용돼 지하 4층, 지상(최대) 35층, 연면적 219만 3677.32㎡로 재건축되고 아파트 1만1106가구가 들어선다.

조합원 및 일반분양 물량은 1만60가구가 재건축 소형(임대)주택은 1046가구가 착공은 2016년 7월, 준공은 2019년 7월로 예정돼 있다.

이처럼 재건축 사업 추진이 가속화되자 급매물 위주로 내놨던 물량들이 사라지고 있다.

둔촌동 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단지명	개포주공1	둔촌주공
신축가구	6662(395)가구	1만1106(1046)가구
전용면적	42㎡~168㎡	29㎡~134㎡
층수	최고 35층	최고 34층
용적률	250%	274%
시공사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대우·롯데·현대산업개발
공사	2015년6월~2018년10월	2016년7월~2019년7월



둔촌주공 아파트(왼쪽)와 개포주공 1단지의 조감도.

"일단은 하락세가 멈췄다. 물량을 싸게 내놨던 매도자들이 가격 올리려고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고 있다"면서 "지난주까지 나왔던 매물이 400여개에서 벌써 30여개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 35㎡는 지난해 가을 5억원대 중반에서 올해 2월 6억2500만원까지 올랐으나 5월 현재

5억8500만원으로 조정됐다. 또 둔촌주공1단지 58㎡는 작년 말 6억원에서 올해 초 6억2000만원까지 올랐다가 주춤한 상태다.

그는 "6월 이후 하반기로 접어들면 시장이 살아나면서 올리는 거래가 작년보다 눈에 띄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박태진 기자 tjpippo@

현대건설 '평택' 삼성물산 '용산' 내일부터 분양 레이스

두 지역서 건분주택 고객맞이 서부권역 첫선 '송담 힐스테이트' 전용면적 59·72·84㎡ 952가구

높이 150m 2개 동 '래미안 용산' 오피스텔 782실 아파트 195가구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각각 23일 평택과 용산에 건분주택을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

현대건설은 23일 '평택 송담 힐스테이트'의 모델하우스를 개관하며 평택시에 처음으로 힐스테이트를 선보인다.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택지지구 80-1블록에 위치하는 '평택 송담 힐스테이트'는 지하 1층-지상 27층 12개동, 총 952세대 규모로 전용면적 △59㎡ 496세대 △72㎡ 218세대 △84㎡ 238세대로 구성돼 있다.

평택 송담 힐스테이트는 송담택지지구에 분양하는 첫 아파트로 평택시 서부권역(청북면, 안중읍, 오성면, 현덕면)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로 인근지역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회리 838(안중터미널 주차장 부지)에 개관

하며 오는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 1·2순위, 30일 3순위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6월5일이며 계약은 6월11일부터 13일까지다. 입주는 2016년 10월 예정이다.

삼성물산도 23일 '래미안 용산' 건분주택을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

이 복합주거단지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342번지 일대 용산역전면3구역을 재개발한 것으로 교통, 생활편의시설, 개발호재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빼어난 입지가 장점이다. 특히 지하9층-지상 40층, 2개동의 트윈타워로 만들어지고 건물 높이만 약 150m에 달해 향후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42·84㎡ 782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35·243㎡ 195가구(오피스텔 57실 포함) 등 총 977가구가 구성되며 이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오피스텔 597실과 공동주택 165가구 등 762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특히 21층에 조성되는 테라스하우스(전용면적 135.161㎡) 4가구도 일반에 선보인다.

오피스텔 분양가는 3.3㎡당 1540만~1620만원에서 공동주택은 3.3㎡당 2900만원대에 책정될 예정이다. 건분주택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 갤러리 5층에 마련된다. 입주는 2017년 5월 예정이다.

문의 아파트: 02-401-3303/오피스텔: 02-451-3369 강영만 기자 kwan@

출구 빠지는 美연준, 초저금리는 유지

지난달 FOMC 회의록 “인플레이 상승 위험 없다” 채권매입 규모 등 세부내용은 다음달 논의 예정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초저금리 정책은 고수할 전망이다.

연준이 21일(현지시간) 공개한 지난 4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실업률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은 아니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의사록은 물가가 연준의 목표인 2%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2개의 목표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또 금리 정책에 대한 가이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준은 금리인상을 결정할 뒤 단기 금리를 관리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가졌다. 프레젠테이션에는 역일몰 역환매조건부채권(Reverse Repurchase Agreement, 역RP)과 초과준비금 이자 등이 포함됐다. 자산 매각은 언급되지 않았다.

위원들은 이와 함께 출구전략에 대한 초기 논의는 통화정책의 명확성과 신뢰를 강화하는 방식이 되어 한다면서도 일정

등 세부 내용은 결정하지 않았으며 다양한 정책 수단을 고려하기로 했다.

FOMC 위원들의 경제 전망은 기존의 낙관적인 입장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전문가들은 이날 의사록이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들 크롱크 웰스프라이빗뱅크 투자책임자는 “의사록에서 놀랄 것은 없다”면서 “비둘기파적인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연준이 출구전략에 대한 준비에 나섰지만 물가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초저금리는 상당 기간 유지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다.

전일 연준 내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윌리엄 더틀리 뉴욕연방은행 총재 역시 금리인상 속도가 느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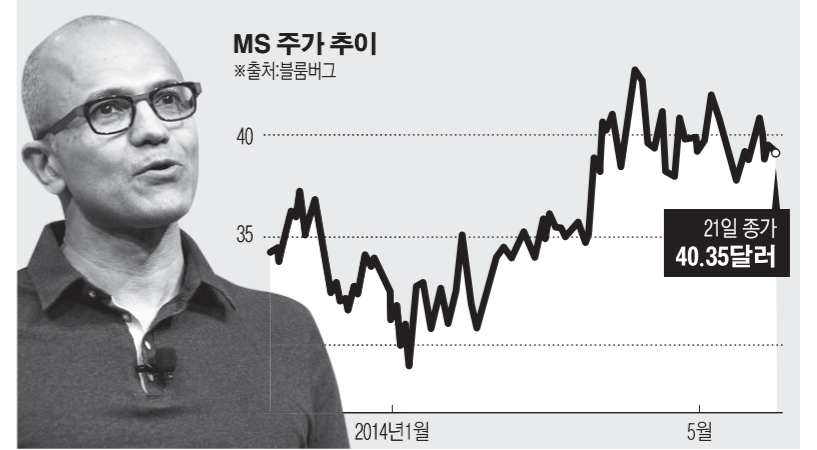
물가는 연준이 오는 6월 FOMC에서는 출구전략과 관련해 보다 세부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루크렌달 라이트스ICA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의 세부적인 출구전략 논의는 빠르면 6월 FOMC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준은 6월 17일부터 이를 동안 차기 FOMC를 개최한다.

연준은 지난달 30일 FOMC에서 채권매입 규모를 450억 달러로 100억 달러 축소하고 기준금리를 연방기금목표금리를 0-0.25%로 동결했다.

투자자들이 FOMC 의사록 내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다우지수가 158.75포인트 오른 1만6533.06으로 마감하는 등 이날 주요 3대지수는 일제히 상승세를 연출했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글로벌 리더



“나델라, 발머보다 혁신적” MS, 제2 전성기 맞나

애플용 오피스 SW 개발 ‘서비스 프로 3’ 공개 등 취임 이후 제품 출시 활발 주가 40달러 돌파 상승세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경영자(CEO)의 리더십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MS의 주가 전망 역시 밝다고 투자전문매체마켓워치가 21일(현지시간) 분석했다.

MS는 전일 태블릿 신제품 ‘서비스 프로 3’을 공개해 관심을 끌었다. MS의 서비스 신모델이 이전에 비해 주목할 정도로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랩톱과 경쟁하겠다는 포부가 성공할지는 확실치 않다고 마켓워치는 전했다.

마켓워치는 그러나 나델라 CEO의 취임 이후 MS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는 주목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시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MS의 주가는 최근 40달러를 돌파했다. MS의 주가가 40달러를 넘어선 것은 2000년 닷컴버블 이후 처음이다.

스티브 발머 전 CEO가 사임 입장을 밝힌 지난 8월 이후 주가 상승폭은 25%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S&P500지수의 상승폭을 2배 이상 웃도는 것이다.

발머의 사임 등 MS의 경영진 혁신 움직임은 2013년 중반부터 시작됐으며 시장은 이제 나델라 CEO에 주목하고 있다고 마켓워치는 설명했다.

나델라의 혁신적인 행보는 취임 직후부터 확인할 수 있다. 나델라는 2월 취임 이후 1달 만에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작동하는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공개했다. 이는 기존 자사 제품에만 제한했던 마케팅 전략을 변경한 것이다. 발머 전 CEO 시절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으로 그만큼 성장 가능성도 커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인도 스마트폰업체에 원도폰 사용료를 받지 않기로 한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글로벌 스마트폰시장에서 구글과 애플에 밀려 미미한 점유율에 그치고 있는 MS가 보다 개방적인 전략으로 변신하고 있는 셈이다.

마켓워치는 소프트웨어 공룡인 MS가 최근 첨단기술시장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MS는 지난해 288억 달러 규모의 영업 현금흐름을 창출했고 배당률도 2.8%로 양호하다. MS는 지난해 말 4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역시 주식을 사야 할 이유라고 마켓워치는 권고했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맥너니 보잉 CEO “애플 제품전략 따라하겠다”

한번 히트치는 문샷보다 꾸준한 업그레이드 통한 신제품 개발 방식에 초점 “높은 제작비 부담” 분석

세계 최대 항공업체 보잉의 제임스 맥너니(사진) 최고경영자(CEO)가 애플의 제품 전략을 모방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혀 이목을 끌었다.

맥너니 CEO는 21일(현지시간) 시애틀에서 열린 연례 투자자모임에서 애플의 전략을 거론하며 회사의 제품 개발 전략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그는 “우

리는 획기적 한 방을 노리는 ‘문 샷(Moon shots)’을 지양한다”면서 “우리는 애플과 같은 전략을 원한다”고 말했다. 획기적인 방식을 도입해 한 번의 히트를 치는 문 샷은 상당한 리스크를 동반하기 때문에 애플처럼 세대교체를 통해 꾸준히 업그레이드 된 신제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맥너니 CEO의 이런 발언은 최근 항공기 관련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외부 압력을 의식한 것이라고 WSJ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회사가 수년간 ‘787드림라이너’의 업그레이드 버전 항공기 건조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부담감으로 작용해 이번 발언의 배경이 됐다는 지적이다.

신제품 개발에 대한 어려움은 보잉만의 문제는 아니다. 경쟁업체인 에어버스가 그룹도 신규 항공기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

어 보잉과 에어버스 양사 모두 향후 5년간 ‘출중한 사양의(clean sheet)’차세대 항공기를 내놓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WSJ는 전했다.

보잉의 경우 지난 2년간 신제품 개발에 시간과 돈을 쏟는 대신 기존에 있던 ‘베스트셀러’ 단일복도형 737과 대형항공기 777을 개조해왔다.

톱 엔지니어 에어버스 CEO도 재설계된 A320 모델에 대해 높은 개발 비용 없이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양사는 현재 생산비용 절감과 차세대 항공기 개발을 보다 단순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맥너니는 이날 종전의 올해 실적 가이드를 다시 강조하면서도 상업용과 군사용



신규 모델 개발·생산 비용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향후 5년간 방위산업부에서 2억 달러(약 21525억원)의 비용을 추가로 줄이겠다고 맥너니는 밝혔다. 앞서 회사는 방위산업부에서 40억 달러 가량을 줄였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테슬라 모델S 60kWh 중국 판매가격 산출표 단위: 위안 *출처:중국경제시보

미국 내 판매가격	42만2895
유통 및 포장비용	7079
관세 및 기타세금	12만4630
증가세	9만4283
중국 내 판매가격	64만1800

신차 출시 테슬라 중시장 공략 ‘액셀’

모델S 3번째 제품 ‘60kWh’ 한 번 충전으로 390km 달려

미국 최대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모델S 85kWh·85kWh 퍼포먼스(Performance)에 이어 모델S 60kWh를 출시하는 등 중국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간) 중국 경제시보가 보도했다.

테슬라 모델S 중 가장 배터리 용량이 적은 모델S 60kWh는 한 번 충전으로 390km를 달릴 수 있다. 배터리 용량을 제외한 기본적인 설계는 앞서 출시된 모델S 85kWh·85kWh 퍼포먼스와 동일하다.

모델 60kWh의 중국 내 출시가격은 64만 8000위안(약 1억669만원)으로 미국 내 판매가격 42만2895위안보다 1.5배 비싸다.

테슬라 관계자는 또 “중국 소비자들에게 기존보다 편리한 전기 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전기충전소에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 공급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중국 상하이시 자딩구와 진차오 지역에 전기충전소를 설립했으며 이른 시일 내 베이징 왕징지역에도 전기충전소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중국 시장에서 친환경자동차가 점점 더 주목받는 상황에서 앞으로 테슬라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낙관했다.

정혜인 기자 haen2558@



나이지리아 폭탄테러 보코하람 소행 추정

21일(현지시간) 나이지리아 중부 조시시 중심 버스 터미널과 쇼핑몰 주변에서 30분 간격으로 두 차례의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118명이 사망한 가운데 현장에 잔해가 양산하게 나타났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라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의 소행으로 추정했다.

조시/AP연합뉴스

이베이도 털렸다... 고객정보 유출

패스워드·주소·전화번호... 신용카드 등 금융정보는 안전

세계 최대 온라인경매업체 이베이를 해커가 공격해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이베이는 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해 지난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해커의 공격을 받았으며 고객의 이름을 비롯해 비밀번호

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다만 신용카드 등 금융정보는 유출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회사는 신용카드 정보나 금융정보는 암호화된 형태로 별도로 보관된다고 덧붙였다.

이베이에 따르면 해커들이 일부 이베이 임직원의 업무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해 이베이의 전산망에 접근했다. 이베이는 임직원들의 업무용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탈취된 사실을 2주 전에 알게 돼 자체 조사를 벌였다.

이베이는 해당 사실을 1억4500만명 회원 전원에게 알리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라고 당부했다. 해커들이 이베이 암호를 이용해 다른 사이트에 로그인하는 방식으로 명의의 도용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최근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미국 대형 할인점 타깃은 지난해 4000만명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고객 금융정보와 70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미국 내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고조시켰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글로벌 리포트

中·러 410조원 가스공급 계약 체결

중국과 러시아가 400억 달러(약 410조원) 규모의 천연가스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중국 석유천연가스집단지(CNPC)와 러시아 가스프롬이 이날 계약을 체결했다.

10년 넘게 끌어왔던 가스공급 계약 체결에 성공하면서 양국의 협력관계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러시아는 동부 가스전 개발과 파이프라인 공사가 끝나는 2018년부터 중국에 연간 380억㎥의 가스를 공급하게 된다. 이는 중국 가스수요의 23%, 가스프롬 수출량의 16%에 달하는 규모다.

양국은 가스 가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가스공급량과 전체 계약 금액을 감안하면 1000㎥당 350달러로, 러시아가 유럽에 제공하는 가스 가격 380달러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앤디 류 테네오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는 “러시아는 중국과의 가스공급 계약을 이용해 유럽을 압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노동권리지수 세계 최하위

한국 근로자들은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제노동조합연맹(ITUC)이 19일(현지시간) 공개한 세계노동권리지수(GRI)에서 한국은 최하위인 5등급으로 분류됐다. 5등급은 ‘노동권 보장 없음(No

guarantee of rights)’을 의미한다.

한국의 노동권 보장 수준은 중국 인도네시아 등 23개국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1등급 국가에는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등 18국이 포함됐다. 스위스 러시아 일본 등 26국이 2등급에 들었고 3등급에는 영국 대만 호주 등 33국이 포함됐다.

미국 홍콩 등 30국은 4등급을 받았다.

ITUC는 국제노동기구(ILO) 자료에서 지난 1년 간 97개 노동권 관련 지표를 뽑아 단결권을 비롯해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등의 보장 정도를 분석해 이번 지수를 산정했다.

방한 중국관광객 1000만명 육박

중국에서 한국 관광의 인기가 날로 커지면서 한국을 찾는 중국인 방문객이 오는 2018년에는 1000만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2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최근 중국 관광객(요우객)을 두고 한국과 경쟁하는 베트남·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하는 등의 악재를 겪으며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 2위 금융그룹인 CIMB증권 관계자는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들이 오는 2018년까지 연평균 17.2% 증가해 전체 중국인 국외여행객 연평균 증가율 11.7%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중국인 한국 여행객은 올해 530만명에서 2018년에는 960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할 전망이다.

태안 기름유출...“당진 어민 피해 없다”

서산지원, 사정재판서 피해액 22억 인정 받았던 27명 패소 지난해 피해배상 소송에 불복 12만2000여건 중 첫 선고

법원이 2007년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인근 당진 지역 어민들은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1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민사7부는 태안 기름유출 사고 당시 유조선사인 허베이스 피리트사가 지난해 1월 사정재판에서 피해금액 22억원을 인정받은 충남 당진시 송산면 가곡어촌계 소속 어민 27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민사소송 선고공판에서 “채권자들의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정재판이란 법원이 원고가 신청한 피해 당사자 적격 여부, 피해 종류, 규모, 금액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판정을 내리는

일종의 예비재판이다. 이해당사자 중 한쪽이 법원 결정에 불복하면 별도의 민사소송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기름유출 사고 후 당진지역에서 발견된 기름은 용무치해안과 대난지도 등에서 타르볼 형태로 발견된 12kg에 불과하며 이 역시 사고 후 2~3개월이 지난 뒤에 발견돼 유조선에서 나온 기름인지가 의문”이라며 “이 정도의 기름으로 수산자원이 감소했다고 볼 수 없고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정재판에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당진지역 어민 4500여명이 허베이스피리트사를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소송 역시 피해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민들은 사고 후 조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진지역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업제한 조치가 없었던 만큼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산지원 민사6부도 사정재판에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서천지역 맨손어업 어민 이모씨가 유조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해 1월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사정재판을 통해 태안 기름유출 사고에 따른 피해금액이 주민 직접피해 4138억원, 해양복원사업에 사용된 비용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채권액 2174억원, 방제비용 1029억원 등 모두 7341억원에 달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의 사정작업에서 피해금액으로 산정된 1824억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지만 피해주민들이 피해액으로 청구한 4조2000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어서 국제기금과 피해 주민들 사이에 심수문 건의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중 주민 측에서 최근 소송을 취하한 사례가 6000여건.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여 소송이 종료된 사례가 500여건이다.

이날 판결은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 보상과 관련해 서산지원에서 진행 중인 12만2000여건의 소송 중 판결을 통해 대규모 피해주민의 피해 여부와 규모가 가려진 첫 선고이다.

2007년 12월 7일 태안군 만리포 북서쪽 5마일 해상에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단과 홍공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의 충돌로 원유 1만2천547kg가 유출됐다. 삼성중공업은 피해주민과 국제기금 간 소송과는 별도로 국회로부터 지역발전 출연금 3600억원이 지난해 11월 확정됐다.

유혜은 기자 euna@

세월호 참사 檢, 유병언 부자 검거 실패

금수원 8시간 뒤졌지만 허탕 비밀별장·신도 집 ‘뜯구름’만

구원과 충돌 피하려 능장 구인 비난 여론속 수사 장기화 우려

검찰이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과)와의 충돌을 피하려고 뒤늦게 구인에 나서면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자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검찰은 21일 정오께 구원과 신도들이 봉쇄를 풀자 금수원에 수사관 70여명을 동원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은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44)씨가 금수원에 은신하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과 혹시 이미 금수원을 떠났더라도 이들을 추적할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검찰의 기대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8시간 동안 이어진 압수수색에서 검찰이 손에 쥔 것은 종이상자 8개 분량의 압수물뿐이었다.

특히 검찰이 구원과 신도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장기간 금수원 진입을 피해오다 결국 유 전 회장의 피리를 잡는 데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 접촉 탐문, 잠복 상황, 관련자 통신내역 등을 종합해 유 전 회장이 금수원에 거주하다가 인근 ‘비밀별장’으로 이동, 지난 17일 전후까지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후

유 전 회장은 서울의 신도 집 등으로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균씨가 유 전 회장과 함께 은신하고 있는지도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가족이나 측근의 비호 속에 금수원 밖에 도피생활을 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금수원 주변에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시한다.

금수원의 전체 면적은 46만6000여㎡로 축구장 30개 크기와 맞먹고 주위에 울창한 원시림도 조성돼 있기 때문이다. 또 10여개의 개인주택과 수십채의 농가주택, 창고 등이 있다.

검찰이 유 전 회장을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밝혔지만 그가 철저히 모습을 숨긴다면 수사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을 대비해 검차를 유 전 회장이 검거되지 않는다면 오는 23일께 구속영장이 발부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유 전 회장의 270억원대 부동산 명의의 세월호 침몰 직후 구원과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해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유씨는 세월호 침몰 8일 만인 지난달 24일 전 재산을 위로금 명목으로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혜은 기자 euna@



도심속 모내기 체험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양재천 벼농사학습장에서 어린이들이 모내기 체험을 하며 모를 심고 있다. 연합뉴스

“옛사주, 법정관리기업 차명인수 막는다”

법원, 파산부준칙 개정안... 검찰은 관피아 수사 착수키로

법원과 검찰이 '제2의 유병언 사례'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두 발을 걷어 부쳤다.

서울중앙·수원·인천·대전지법 등은 지난 21일 중앙지법 파산부 회의실에서 주요 법원 파산수석부장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파산부 준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매각주간사는 인수·합병(M&A)이 추진되는 기업의 인수 희망자에게 옛 사주와의 연관성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인수 희망자가 자료 제출 등에 응하지 않으면 인수 선정에서 배제할 수 있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한 뒤에도 옛 사주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채권자협의회,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조화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준칙 개정안은 부실 경영 사주가 회생절차를 악용해 부당하게 경영권을 되찾는 '제2의 유병언 사례'를 막는 데 목

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도 이날 대검 청사에서 전국 고지검장과 대검 차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공직사회 부정부패와 민관 유착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은 관피아 범죄, 공기업 등 공공기관 비리, 공직자 및 공공 부문 업무수행자의 민관 유착 비리 등이다. 아울러 전직 고위 관료가 산하기관·단체나 관련 민간기업의 기관장, 대표이사, 감사 등으로 취임해 정부의 감사·감독 기능을 약화하는 '낙하산-전관예우 인사'도 포함된다.

이 밖에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공공기관(304개) 비리 수사뿐 아니라 정부 업무 위탁받아 대행하는 민간 협회·단체에 취업한 퇴직 관료의 비리에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연수 기자 tearand76@

車·정유 8000만원-가구·출판 3000만원

‘셀러리맨 연봉’ 업종간 양극화 커져

국내 셀러리맨 연봉의 양극화가 점점 심화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재벌닷컴은 22일 금융감독원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1713개 12월 결산 법인의 직원 임금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 업종이 평균 8087만원으로 1위를 차지, 최하위(40위)인 내수 관련 업종(3000만원대)과 큰 격차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자동차에 이은 연봉 2위 업종은 정유 부문으로 나타났다. 정유 업종 근로자들의 평균연봉은 8045만원으로 올해 처음 8000만원대에 진입했다. 뒤를 이어 전통적인 고액 연봉 업종인 금융 부문이 나란히 순위권에 올랐다. 증권회사 직원들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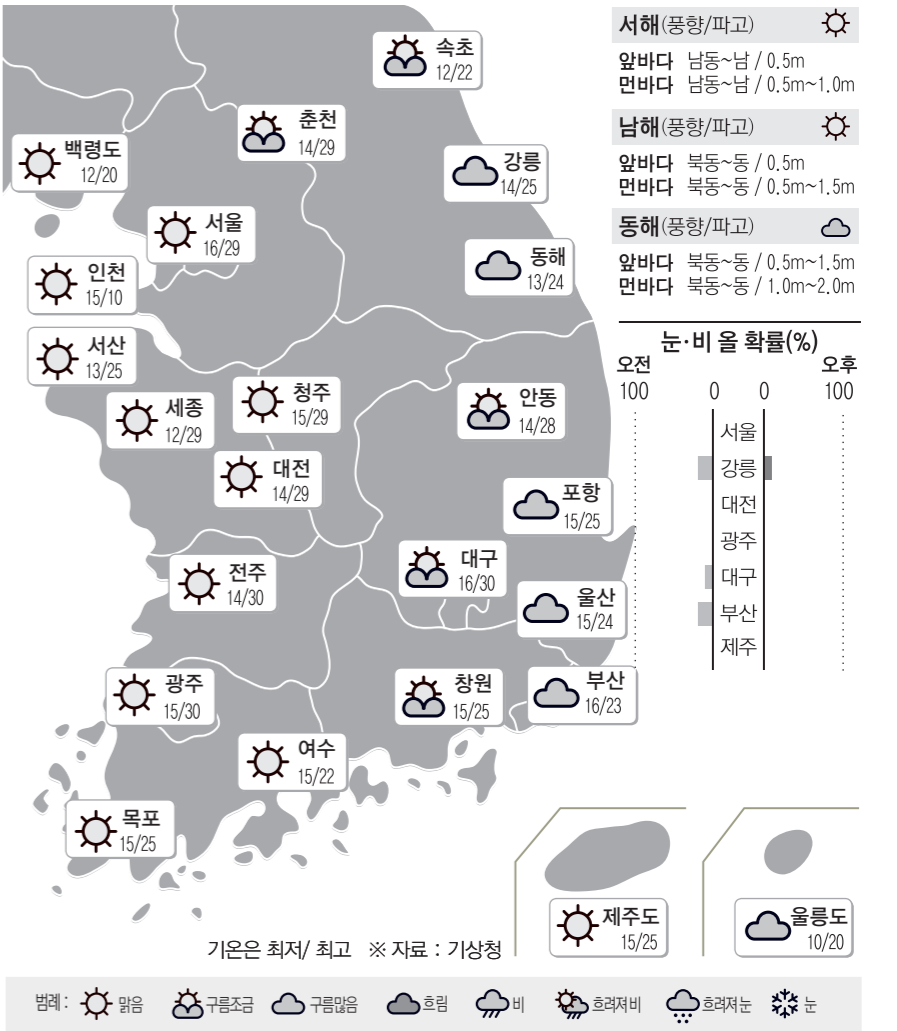
연봉은 7364만원으로 3위, 은행 직원 7328만원 4위로 각각 집계됐다. 이어 가스제조 업종 7290만원, 조선 업종 7182만원, 철강 업종 6684만원, 보험 업종 6676만원, 통신 업종 6589만원, 전자 업종 6452만원 순이었다.

반면 전통적으로 월급이 적은 내수 관련 업종 직원의 연봉은 평균 3000만~4000만원대로 평균 연봉 순위 129위인 자동차·정유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 비교 대상 40개 업종 중 여행 업종은 평균연봉이 3191만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가구업(3304만원), 엔터테인먼트업(3365만원), 백화점(3388만원), 수산업(3677만원), 출판업(3959만원) 등 분야의 연봉도 평균 3000만원대 머물렀다.

정효진 기자 js62@

내일의날씨 5월 23일 ☀해돋이 05:17해질 19:41 달출 01:44달짐 14:01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동해 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맑겠으나 동해안은 구름 많겠고 강원도 영서와 경상남·북도도 오후 한때 구름 많겠다. 동해안과 경북 내륙은 낮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0~16도, 낮 최고기온은 17~31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2.5m로 일겠다.



“대학 브랜드 ‘이화’ 허락없이 못쓴다”

대법, 이화학당 승소 원심 확정

국내에 이화여대로 널리 알려진 ‘이화’라는 명칭을 허가 없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대법원이 확정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공인기획업체 이화미디어를 운영하는 문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문씨는 이화(梨花, Ewha, ewha 포함)라는 상호가 포함된 간판과 광고물, 블로그 등을 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이화미디어의 홍보사이트인 이화닷컴(ewha.com)도 폐쇄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1930년대부터 이화여대를 운영해왔고, 2004년 실시한 브랜드 인지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9%가 ‘이화’ 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으로 이화여대를 꼽을 만큼 학교 이름의 인지도도 높다”며 “이화라는 명칭을 허가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연수 기자 tearand76@

환자는 조사를 통해 사망보상금이나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암 치료 의약품, 체외진단용 의약품, 약국 제제나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자기치료용 의약품 등은 제외된다.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한국약품안전관리원에 내면 된다.

의약품과 부작용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규명은 한국약품안전관리원에 설치되는 전담 조직이 시행하게 된다. 피해구제급여는 ‘부작용심의위원회’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박성제 기자 psj@

12월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암, 체외진단·자기치료용 등 제외

올 12월부터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처방 받고 복용했음에도 부작용으로 인한 입원, 사망 등의 피해를 볼 경우에도 피해구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부터 의료인, 약사, 소비자 등이 적절한 처방·조제·투약을 했는데도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입원치료를 한

환자는 조사를 통해 사망보상금이나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암 치료 의약품, 체외진단용 의약품, 약국 제제나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자기치료용 의약품 등은 제외된다.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한국약품안전관리원에 내면 된다.

의약품과 부작용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규명은 한국약품안전관리원에 설치되는 전담 조직이 시행하게 된다. 피해구제급여는 ‘부작용심의위원회’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박성제 기자 psj@

‘年 100만원 성과급’ 롯데백화점 계산원

〈강남·평촌점〉

모집요강

모집직종	계산대수납원
직무내용	상품계산, 반품 및 취소
접수마감일	2014년 6월10일
고용형태	기간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4개월
경력조건	6개월 이상
학력	무관
우대사항	여성

인력과연결체 (주)동양이엠에스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강남점 계산원을 모집한다.

상품 계산, 반품 및 취소, 상품권 관련 사무 등이 주 업무이며 오전조와 오후조로 나뉘어 교대 근무한다.

오전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며 급여는 94만7000원이다. 오후조는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하고 급여는 103만1000원이다. 급여 외에도 연 100만원의 성과급과 추석 및 설날 귀향여

비 각각 15만원, 휴가비 20만원을 지원한다. 복리후생으로 4대보험과 퇴직연금, 중식이 제공된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되며, 팩스나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학력은 무관하나 경력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접수 마감일은 오는 6월 10일이다.

이 업체는 롯데백화점 평촌점(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계산원도 모집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276-1510)로 문의하면 된다.

유혜은 기자 euna@

“앞선 장애인복지 시스템 배워갈래요”

밀알복지재단, 베트남 장애인복지 관계자 초청 연수 빈통성 인구 3% 장애인 등록... 지원 시설 시급 관계자 간 네트워크 형성해 협력사업 펼치기로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정책을 배우러 베트남 현지 시설 관계자들이 방한했다. 밀알복지재단은 베트남 빈통성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들을 한국으로 초대해 한국의 장애인복지 현장연수를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베트남 현지 장애인 복지시설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은 것은 현재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고령제 등으로 장애를 앓고 있어 이 분야 지원에 대해 배우기 위해서다. 스웨덴 스톡홀름의 국제평화연구소는 1962~72년까지 베트남에 9100만kg의 고령제를 살포했다고 설명했다. 인간에게 직접 피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이었으며 이를 통해 질병과 기형아 출산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94년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군인 및 민간인 약 200만명이 고령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밀알복지재단 국제협력팀은 “35년이 지났지만 3세대에서도 기형아가 출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지 빈통성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팡(Chang)은 “빈통성 전체 인구의 3%인 3만1000여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고 그 중 신체장애의 비중이 가장 높다”고 털어놓았다. 5년 전에는 빈통성 내 특수학교가 운영됐으나 최근 일반학교로 통합되면서 장애인들을 위해 교육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분야는 수공업, 미용 분야로 한정돼 있어 장애인을 위한 취업 지원의 기회가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1월 밀알복지재단 정형석 상임대표의 베트남 현장 방문시 빈통성 내 사회복지시설장 일행은 한국을 방문해 선진 복지시설을 견학하고 싶다고 요청을 했다.



베트남 빈통성의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5명은 밀알복지재단의 초청으로 지난 19일 방한해 국내 복지관련 시설과 자원에 대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 밀알복지재단

이에 밀알복지재단은 이달 19일부터 5박6일의 일정으로 한국의 장애인 복지현장을 보고 시스템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빈통성 사회복지 주요 관계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향후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협력사업을 펼쳐 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고령제 환자 및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초청연수에는 빈통성 사회복지시설장, 직업소개시설장, 장애인 재활시설장, 유치원장,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등 총 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수학교인 밀알학교부터 강남구직업재활센터, 미래형 직업재활시설인 굿월스토어, 통합보육시설 목련어린이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유리 밀알복지재단 국제협력팀 과장은 “국내에서 20년 동안 장애인복지를 수행해 노하우를 전달하고 한국의 복지시설을 탐방하면서 베트남 빈통성에 적합한 장애인지원 및 시스템이 설립되고 운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태진 기자 tipippo@

폴 매카트니 첫 내한공연 결국...

바이러스성 염증 악화 28일 콘서트 취소키로



뉴시스

전설의 록밴드 비틀스 출신 폴 매카트니(72·사진)의 첫 내한 공연이 취소됐다. 공연 주회사인 현대카드사는 28일 오후 8시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20 폴 매카트니’를 폴 매카트니의 건강 문제로 인해 취소했다고 밝혔다.

폴 매카트니는 바이러스성 염증에 따른 건강 악화로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18일, 19일 열릴 예정이던 일본 공연 2회를 무기한 연기했고, 21일 도쿄와 22일 오사카에서 진행 예정이던 공연까지 모두 취소했다.

폴 매카트니는 현대카드를 통해 “오랫동안 공연을 기다려온 한국 팬들과의 만남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었기에 더욱 더 미안하다”며 “모든 한국 분들의 사랑과 건강을 걱정해 준 의료의 메시지에 감사드립니다. 꼭 빠른 시일 내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사과 인사를 전했다. 폴 매카트니의 내한공연 역시 “유감스럽게도 예정이던 폴 매카트니의 첫 내한 공연을 연기하게 됐다. 일본에서 바이러스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고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권고가 있었다”면서 “이후에도 아티스트의 컨디션이 호전되지 않

아 부득이 첫 내한 일정을 연기하게 됐다. 추후 일정을 재조정해 공연을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1963년 비틀스 1집 앨범 ‘플리즈 플리즈 미(Please Please Me)’로 데뷔한 폴 매카트니는 ‘에스터데이(Yesterday)’, ‘렛 잇 비(Let it be)’, ‘헤이 주드(Hey jude)’ 등 전 세계적으로 사랑 받는 명곡을 작곡하며 음악적 명성을 쌓아왔다. 지난 1997년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작위를 받았고, 1999년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 2012년에는 런던올림픽 개막식 무대에 올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홍셋별 기자 byu0104@

“할머니들 손맛 보러 ‘꽃밭에서’ 모여요”

노인일자리기관 옥천시니어클럽 분식점 열어 60·70대 할머니 16명 무쳐 고향 음식 맛 선택

충북 옥전에 사는 노인들이 분식점을 차려 손맛 자랑과 함께 활기찬 생활을 이어나가 화제가 되고 있다.

22일 옥천군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제공기관 옥천시니어클럽이 이달 초 옥전을 삼금로에 갈곡수와 만두를 주메뉴로 하는 분식점 ‘꽃밭에서’를 열었다. 이 가게의 사장 겸 총괄원은 인근에 사는 62~79세의 할머니 16명이다.

이곳에서 일하는 노인들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3개조로 나눠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월급은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때까지 한 달 36시간을 근무하고

20만원을 받기로 했다.

무엇보다 이 분식점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할머니들의 손맛이다. 옛 방식 그대로 국수와 만두를 빚고 김치와 반찬도 직접 담근다. 고객에게 어머니가 조리해 주는 것 같은 ‘고향 음식 맛’을 선택하는 게 영업 전략이다. 가격도 손갈곡수 4000원, 만두 4500원, 만두국·공국수 5000원으로 저렴한 편이며 배달 주문도 받고 있다.

이들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박찬정 옥천시니어클럽 대표는 “할머니들의 손맛이 소문나면서 벌써 점심시간에는 줄을 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창업 초



기지만 정조가 매우 좋다”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해 7월 문을 연 옥천시니어클럽은 지역의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해 노인일자리를 창출·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현재 329명에게 일자리를 알선했으며 군위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구성원 기자 carlove@

보잉코리아 신임 사장에 美 외교관 출신 에릭 존

보잉은 미국 외교관 출신의 에릭 존(사진)을 신임 한국 사장으로 선임한다고 22일 밝혔다. 존 신임 사장은 한국 내 기업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존 사장은 30여년 동안 미 정부 외교관 경력을 마감하고 이달 30일부로 보잉에 입사한다. 전임 잭 게인스 사장은 오는 9월 보잉에서의 27년 근속을 마치고 은퇴할 예정이다.

존 사장은 조지타운 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국방대학교에서 국가 안보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미 외교관계위원회의 종신회원이며,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구사할 수 있다.

존 사장은 경력 외교관으로 미국 외교국에서 근무했다. 그는 미 국무부 산하 정치군사국의 안보협상 및 협정 선임보좌역을 맡았으며, 다양한 국제안보 조약에 대한 미 정부의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최근에는 대한민국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정부 공사참사관직을 수행했고, 워싱턴 D.C.에서 한국 담당 과장으로 근무했다.

조남호 기자 sprdn@



‘동탑산업훈장’ 박상일 인터컨스텍 대표

박상일(사진) 인터컨스텍 대표이사에게 ‘제12회 건설 신기술의날’ 기념행사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건설신기술의 날 기념식을 열고 박상일 대표이사에게 동탑산업훈장을 수여했다. 박 대표이사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6년 연속 1위를 했으며,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투자로 신기술 개발, 활용 촉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4건의 건설 신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신기술의 현장 활용을 촉진해 국가예산과 공사기간을 줄이는 데 기여한 김삼귀 삼부토건 상무이사에게는 산업포장이 주어졌다. 조명희 남해환경 대표이사과 이재호 인천국제공항공사 차장에게는 대통령 표창이, 최영숙 원하중합건설 대표이사, 정운섭 한국토지주택공사 차장, 김석원 삼성건



업 전문이사에게는 국무총리 표창이 각각 수여됐다. 이 밖에도 20명이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도태호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설산업의 발전과 기술개발에 노력해 온 신기술 관계자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한다”면서 “첨단기술의 개발에 더욱 노력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새로 개발된 기술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첫 고객 되어주기” 과정을 추진하는 등 신기술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내 신기술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영관 기자 kwan@

IEEE·ASME 최고논문상 서태원 영남대 교수 선정

서태원(33·사진) 영남대 기계공학부 교수가 미국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와 미국기계학회(ASME)가 수여하는 ‘2014 최우수 논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서 교수의 논문은 ‘수동 유전 관절을 이용한 트랙형상 모듈 기반 등반로봇 개발’에 관한 것으로 기존 능동관절로 움직이던 다관절 등반 로봇 기구에 유연한 수동관절을 적용해 외부 환경요인에 쉽게 적응하도록 한 연구이다. IEEE와 ASME는 매년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IEEE/ASME 트랜잭션스 온 메카트로닉스’에 게재된 논문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논문 1편을 선정해 ‘최우수 논문상’을 수여한다.

서 교수는 “등반로봇의 사용 범위를 확장한 구조물로 확대해 다양한 지형지물에서도 등반로봇의 사용 가능성을 제시한 점이 이번 연구의 성과”라고 말했다.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에서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한 서 교수는 2009년부터 2010년 8월까지 미국 카네기멜론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2010년 9월부터 영남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로봇 설계, 제어 및 최적화 분야 논문 21편을 SCI급 저널에 발표했다.

유혜은 기자 euna@

‘무등산 시인’ 범대순씨 별세

‘무등산 시인’, ‘아름다운 가난의 시인’으로 널리 알려진 원로시인 범대순(사진)씨가 21일 타계했다. 향년 85세.

1930년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난 고인은 광주서중과 고려대를 졸업한 뒤 전북대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목포여고·광주사범학교·광주제일고 교사, 목포교대 교수를 거쳐 1968년부터 28년간 전남대 영문학과에서 가르쳤다.

1958년 조지훈 선생의 추천으로 문단에 나와 60여년을 광주에서 주로 활동하며 수많은 시를 발표했으며 주요 작품집으로는 ‘흑인 교수 루이의 북’, ‘무등산’ 등 30여권이 있다. 국민훈장 동백장(1994년)과 문예한국 대상(2002년), 광주예술 부문 시민대상(1996년)을 받기도 했다.

최근 무등산 사랑을 담은 시집 ‘무등산’을 펴내 시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으며 지



난 2월에는 광주 동구 계림동 자택에 자신의 시문학관을 열기도 했다. 주인을 잃은 문학관은 가족들이 운영하기로 했다.

소설가 문순태씨는 “젊은 문인들의 존경도 받은 원로 시인으로 광주 문단에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유족으로는 부인과 1남 3녀가 있다. 빈소는 전남 화순 전남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3일 오전 8시다.

구성원 기자 carlove@

어서린 커즌 WFP사무총장 이화여대 명예 정치학 박사

이화여자 대학교는 어서린 커즌(사진)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에게 명예 정치학 박사 학위를 수여한다고 22일 밝혔다.

미국 국적인 커즌 총장은 지난 30년간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단체, 국제기구 등에서 활동하며 전 세계의 기아·식량·재난 대응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은 인물로 평가된다.

지난 2012년 WFP의 12번째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커즌 총장은 현재까지 한해 80여개국 9000만명에 달하는 극빈층을 돕고 있으며 올해 타임지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이름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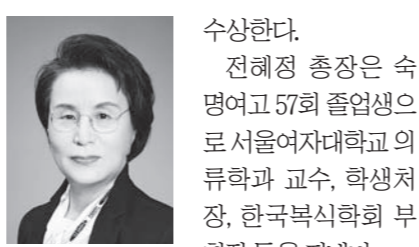
김신옥 이화여대 총장은 “전 세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선 커즌 총장의 공로를 인정해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여식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이화여대 중앙당에서 열린다. 박태진 기자 tipippo@



‘자랑스러운 숙명인상’에 전혜정 서울여대 총장

전혜정(사진) 서울여자대학교 총장이 22일 오후 6시 서울 삼성동 서울컨벤션에서 열리는 숙명여고 창립 108주년 숙명인상’에 참가하면서 ‘자랑스러운 숙명인상’을



수상한다.

전혜정 총장은 숙명여고 57회 졸업생으로 서울여자대학교의 류학과 교수, 학생처장, 한국복식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그는 지난해 서울여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박태진 기자 tipippo@

- ▲박영원(가야자동차 노사정책담당 부장)·헤민(강남구청 계장)·해옥(주부)·준완(GS칼텍스 뉴미디어팀장)씨 부친상, 정달성(선박안전기술공단 부부장)·황민선(에스마를 대표)씨 장인상, 오화경(유남수학원장)·정은연(GS칼텍스 부장)씨 시부상 = 21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 발인 23일 오전 9시, 02-3010-2230
- ▲이동엽(동흥전자 이사)·정민(위즈플러스치과 원장)·정은(이정은한의원 원장)씨 부친상, 김지혁(갑구정 새일굴치과 원장)씨 장인상 = 21일 오전 5시 20분,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23일 오전 8시, 031-787-1500
- ▲이형락(포스트커뮤니케이션 대표)씨 부친상 = 21일 오후 3시, 영남대병원장례식장 301호, 발인 23일 오전 9시, 010-7320-1600
- ▲문창석(뉴스1 사회부 기자)씨 조부상 = 21일 오전 8시 40분,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 62번지 동의의료원 장례식장, 발인 23일 오전 9시, 051-866-3757
- ▲유기용(서강대학교 총장)씨 모친상 = 20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23일, 02-2258-5940
- ▲오호근(선문대학교 흥보대외협력팀장)씨 모친상 = 21일 오전 3시, 서울건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03호, 발인 23일 오전, 장지 대전현충원, 010-6357-3200
- ▲범대순(시인·전남대 명예교수)씨 별세, 범희승(전남대 교수)씨 부친상 = 21일 오전 9시 10분, 화순전남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3일 오전 8시, 061-379-7444, 010-4601-5641

장세영의 서울 숨은그림 찾기 선유도공원

녹슨 정수공장에 생태를 입히다

봄소풍을 부르는 계절의 여왕 5월이 중반을 지나 후반으로 흘러가고 있다. 화창한 봄날 바쁜 일상에 지쳐 아직 봄 여행이 그림의 떡인 많은 사람들에게 강추하고 싶은 공간이 있다. 초록 잔디밭 위 나무 그늘 아래 누워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낮잠에 푹 빠져 볼 수 있는 한강의 작은 섬 선유도공원이다.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에 속한 선유도공원은 1978년부터 20여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울 서남권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정수장이었다. 그러나 2000년 정수장이 폐쇄된 후 선유도는 옛 정수공장의 흔적을 고스란히 유지한 채 팔라디움 같은 외관을 품고 나무와 꽃 200여 종이 자리하면서 한강과 어우러진 녹색 생태공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2011년 전문가들이 뽑은 '한국의 대표 건축 1위'와 세계조경협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조경작품상을 수상할 정도로 예술미 뛰어난 선유도공원은 폐기된 산업시대의 공장시설을 재활용해 만든 건축물로 국내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선유도공원을 가는 방법은 2가지다. 지하철 9호선 선유도역에 내려 한강 쪽으로 가서 구름다리 형태의 선유교를 통해 가는 방법, 시내버스를 이용해 양화대교에서 진입하는 방법 등이다.



옛 정수장 약품 침전지의 구조물을 이용해 만든 수질 정화원. 이곳에서는 수생식물들의 물속 질소, 인 등 오염물질의 정화과정을 볼 수 있다.

선유도공원 내부는 크게 산책로와 정원 공간으로 나뉜다. 선유도 돌레를 따라가는 산책로는 가로수가 그늘을 선사하는 호젓한 길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한강을 한강 안에서 바라보는 이색적인 공간으로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산책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저녁 시간이면 여의도 고층빌딩의 야경과 저 멀리 남산타워의 불빛 등 아름다운 서울의 야경을 두루 볼 수 있어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인기가 높다. 정원 공간은 한강역사관을 중심으로 시간의 정원과 수생식물원이 자리 잡은 선유도공원의 중심 지역이다. 옛 정수장 구조물의 콘크리트 기둥을 따라 자리하는 텃밭식물이 녹색의 기둥을 만드는 역사관은 송수 펌프 건물을 이용해 한강의 생태와 문화유적, 한강관리의 역사를 찾아보는 곳으로 수생식물원은 물분선과 쇠뜨기수련-검정말 등 각종 수생식물 1만여 본이 심어져 있고, 복층 구조의 마로처럼 만들어진 시간의 정원은 118종의 수목과 풀꽃을 여러 개의 작은 정원에 나눠 심어 사계절을 느낄 수 있도록 꾸며 놓았다. 그리고 세로 41m, 깊이 5m 규모의 침전지 2개를 활용해 만들어 이곳이 한때 수원지였음을 보여준다. 구조물의 직직한 색깔과 거친 표면, 불규칙한 선이 각종 식물들과 절묘하게 어울려 마치 시간이 정지된 듯한 느낌을 준다. 그 외에도 대부분 자생종인 다양한 식물들을 보호하고 키우는 온실과 수질정화원, 여름철 어린이들의 물놀이 공간인 환경물놀이대, 그리고 200석 규모의 원형 소극장과 카페테리아나 루 등 부대시설도 들어섰으며, 자작나무 숲과 미루나무 길도 조성되어 있다. 사진팀장 phototink@



*이투데이 홈페이지에서 사진 등 더 많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배국남의 직격탄



문화경제국장 겸 문화부장

SM 주가가 요동쳤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 등 한류팬들이 들쭉이다. 국내 팬들은 서명운동을 펼친다. 인터넷에선 수천 개의 기사가 쏟아지고 중국 등 외국 연예 매체들도 시시각각 다양한 뉴스를 내보내고 있다. 이 현상의 진원지는 최고 인기 아이돌그룹 엑소 멤버 크리스(본명 우이관·24)다. 지난 15일 크리스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효력을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을 내며 대중음악계가 발칵 뒤집혔다. 국내외에서 비난과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한류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우려의 소리가 들린다.

SM 소속의 아이돌그룹 멤버 탈퇴는 크리스가 처음이 아니다. 슈퍼주니어의 중국인 멤버 한경은 2009년 소송 후 그룹에서 탈퇴했다. 국내외 팬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한국 연예기획사 이미지도 함께 추락했다. 2009년 동방신기 역시 소속사 SM과의 불공정 계약 논란이 불거져 3명의 멤버 탈퇴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 김준수, 박유천, 김재중은 2009년 7월 소송을 낸 뒤 JYJ를 결성해 활동하고 나머지 멤버 유노윤호, 최강창민은 동방신기로 나서고 있다. 동방신기의 일본, 중국팬은 분노했다. 격노한 팬들은 SM엔터테인먼트에 직격탄을 날렸다.

크리스는 왜 엑소를 탈퇴하려 할까

일본에서 한 해 600억원이라는 엄청난 수입을 창출한 카라는 어떤가. 2007년 데뷔 이후 카라는 일본에서 걸그룹 선봉의 선두에서 K-POP 신화를 일으켰다. 하지만 지난 2011년 DSP미디어를 상대로 한승연, 니콜, 강지영이 탈퇴 요구를 하며 내리막길을 걸었다. 최근 니콜의 재계약 포기, 강지영의 탈퇴로 카라는 존재감을 잃었다.

엑소부터 카라까지 수많은 스타와 그룹들이 연예기획사의 문제로 팬과 연예산업, 한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대중문화 시장의 성장과 한류로 인해 스타를 키우고 아이돌 그룹을 양성하는 한국 연예기획사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졌다. 한국 연예기획사는 경쟁력 있는 스타 시스템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연예기획사 시스템을 배우거나 협업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외국 연예업체들이 줄을 잇고 있다. 또한 스타가 되기 위해 한국 연예기획사의 오디션에 참가하는 외국인들도 급증하고 있다. 외국 언론들은 한류의 주역이 바로 한국 연예기획사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한국 연예기획사는 한류의 본산이자 한국 대중문화의 메카라는 화려한 찬사를 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불공정 노예계약과 주먹구구식 연예인 관리, 비전문적 교육 시스템, 성폭행·탈세 등 각종 범죄 발생, 연예인 사생활과 인권침해, 위기관리 능력 부재 등 어두운 그림자도 엄존한다.

이 때문에 한국 연예기획사는 무명하고 신인을 스타로 키우는 '진정한 스타 메이커'라는 찬사도 있지만 "스타 연예인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라는 한 스타의 말처럼 '연예계의 암적

존재'라는 양극단의 시각도 있다. 하윤금 박사는 '방송과 연예 매니지먼트 산업'을 통해 낙후한 한국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을 방치해 두면 대중문화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스타를 통한 한류 열풍은 지속시킬 수 없고 외국 연예매니지먼트사에 우리 대중문화 시장을 고스란히 내주게 되는 최악의 결과도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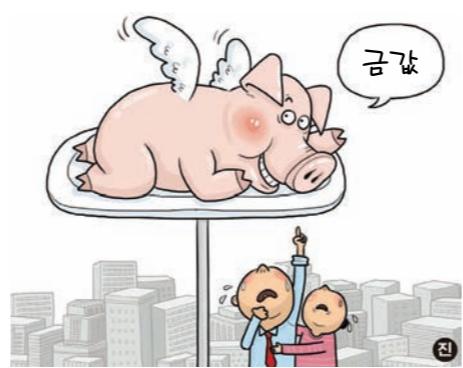
전 세계 대중문화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스타 시스템 주체인 워너브라더스 WMA, CAA, UTA, ICM 등에 취업하려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그리고 MBA 출신 등이 넘쳐난다. 데이비드 렌신(David Rensin)가 'The Mailroom-Hollywood History From The Bottom Up'에서 하버드 로스쿨 경쟁률이 9대 1이고, 콜롬비아 저널리즘 스쿨 경쟁률 4대 1, 스탠퍼드 경영대학원 입학경쟁률이 4대 1인 데 비해 워너브라더스 입사 지원률이 30대 1에 이른다고 지적한 것은 미국의 연예인시 현주소를 알려주는 하나의 단초다. 이들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으로 전 세계 대중문화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한국 연예기획사는 하루빨리 뛰어난 인재를 영입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예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공정한 계약관행, 그리고 연예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장하는 매니지먼트, 수입과 수익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배분하는 체제구축, 위기관리 능력 보완 등의 과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크리스, 동방신기가 속출할 것이다. '연예계의 암적 존재'라는 오명도 지속할 것이다. knbae@

온라인 와글와글

돼지고기 공급 늘었다는데 왜 아직도 금값?

○...돼지고기 공급이 증가했음에도 여전히 '금값'을 유지하고 있다. 돼지유행성신사병(PED) 피해에 대한 우려가 지나 치다는 지적과 함께 현행 돼지고기 도매가격 산정 기준이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소식에 한 네티즌은 "대한민국 물가는 비가역적(원래 상태로 되돌리지 못할)인 듯, 한 번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는 일은 없다"고 해 다수의 공감을 얻었다. 이 밖에도 "농가는 죽어라 일하고 사료 값도 값이 어려운 상황이고 소비자들은 금값이라 먹기도 힘들다. 결국 유통구조가 문제", "그냥 앉아서 돈 버는 유통업자를 가장한 시기꾼들", "유통 마진이 반 이상" 등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영국의 한 다이어트 회사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여성은 38세, 남성은 44세에 살이 가장 잘 찰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나이 들면 젊었을 때 대충 먹고 먹었던 것 처럼 먹으면 100% 살찌고 아랫배부터 나온다", "역시 이런 조사는 영국이야", "남녀가 6살 차가 공감이 잘 맞는 이유가 있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은 자신의 상황을 빚대 "제 나이는 계속 38살인가 봅니다", "난 평생 38세군"이라고 했다.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한 네티즌은 "복극곰 되기 싫으면 운동만이 답"이라고 해 시선을 끌었다. 김우영 기자 hura@

- 1 텐센트, 브랜드 가치 삼성전자보다 앞서... 어떤 기업인가
- 2 정몽준 "박원순, 위험한 분"... 선대위에 김형식·나경원 영입
- 3 대구살인사건 법인, 시신 옆에서 8시간 동안 술까지 마셔
- 4 김현영 KBS 사장 "사퇴 없다"강경...이사회는 해임안 상정
- 5 검찰 김수원 진입 '허당'... 소득없이 구원받아 회돌렸다



이투데이 온라인 집계

오늘의 배극명

www.baekn.com

5년만에 영화 '경주'...반값다 신민아



배극명감독은 21일 배우 신민아를 만났다. 신민아는 오는 6월 12일 개봉을 앞둔 영화 '경주'에서 찻집 아리솔의 아름다운 주인공 공윤희 역으로 출연한다. '경주'는 고혹적인 도시 경주에서 펼쳐지는 1박2일을 그려며 7년 전 보았던 춘화를 찾아 경주에 온 최현(박해일)과 공윤희(신민아)의 만남을 다룬다. 신민아는 "4-5년 만에 영화에 출연하게 됐다. 고인이 많았다. 기존에 보여드리지 못한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이 많았기 때문이다"며 "장물 감독의 '두만강'을 유심히 봤다. 음악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작품을 보면서 '장물 감독과 작업하면 어떨까?'라는 호기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민아는 이어 "시나리오가 어렵고 모호했지만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위해 선택했다"고 밝혔다. 신민아는 지난 2009년 영화 '10억'에서 호흡을 맞춘 박해일과 '경주'를 통해 5년 만에 다시 만났다. 이에 그녀는 "박해일과 작업하면 편할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 난 친하다고 생각했는데..."라며 "함께 촬영해 보니 진심이 다가오는 배우이자 오빠라고 생각한다. 오랜만에 만났고, 이전 작품과 비교할 때 완전히 다른 색깔의 작품이지만 나도 30대가 되어서 그런지 좋았다"고 말했다. 신민아는 극중 인물에 대해 "공윤희는 사연이 있는 캐릭터다. 요즘 여자 같지 않다. 찻집을 운영하는 것처럼 묘한 매력 있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감독님이 그런 면을 좋게 봐주시길 같아서 진지하게 표현하려 노력했다. 감독님과 대화를 통해 더 신비한 캐릭터가 나왔다"고 밝혔다. '경주'는 '풍경', '두만강', '만종' 등으로 인지도 높은 장물 감독의 첫 코미디 멜로 영화다. 박해일, 신민아 외에도 김태훈, 신소율, 류승언, 윤진서 등이 출연한다. 최두선 기자 sun@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에 따라 적응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변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 한다.

말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 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만의 고유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이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 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변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변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 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스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착용 전 정확한 검사, 착용 후 꼼꼼한 관리가 중요!

보청기 구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정확한 청력측정을 통해 난청의 정도와 귀 모양에 맞는 맞춤형 보청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맞춤 제작된 보청기는 사용하는 기간

동안 어떻게 관리 받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보청기의 사용기간이 달라지며 난청인이 새롭게 들을 수 있는 부분도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와이덱스 보청기 전문점들은 이를 위해 최신식 청력측정 장비를 완비하여 무료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정확한 청력측정을 통해 정교한 소리조절 및 체계적인 난청관리를 통하여 난청인에게 만족을 보장하고 있다.



<p>서울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사 02-2093-1388 강남서초점 02-3465-1482 강동천호점 02-3152-8000 노원점 02-930-5488 목동점 02-2061-3730 사당점 02-534-3733 상봉점 02-495-5800 서울대점 02-878-1222 성북점 02-953-99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촌점 02-3141-1300 영등포점 02-2672-0880 왕십리점 02-2295-5060 잠실롯데점 02-424-9200 홍로점 02-2266-5515 청량리점 02-966-0090 <p>인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석점 032-427-1388 계양점 032-548-00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평점 032-362-1888 인천점 032-763-9911 <p>경기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양일사점 031-915-9500 광명점 02-2616-5060 구리점 031-569-0073 부천점 032-666-0128 분당점 031-703-9900 분당점 031-390-6680 성남점 031-758-9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원점 031-244-8600 시흥점 031-311-6066 안산점 031-405-6700 안양점 031-465-2100 안양명학점 031-446-6500 홍익점 031-337-0046 이천점 031-637-1427 파주점 031-954-1388 <p>광주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석점 062-225-99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장점 062-225-9970 <p>대구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구점 053-257-4455 <p>대전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구점 042-471-9796 용문점 042-535-9995 유성점 042-824-9957 중구점 042-242-0117 	<p>부산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래점 051-557-1399 서면점 051-805-1388 수영점 051-625-28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울산점 052-246-4500 <p>강원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점 033-641-8201 속초점 033-638-9009 원주점 033-746-1133 	<p>경상남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산점 055-256-4400 마산합포점 055-242-9992 양산점 055-365-5233 진주점 055-748-9940 <p>경상북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미점 054-455-9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천점 054-437-9112 안동점 054-841-9999 포항점 054-274-2504 <p>전라남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포점 061-281-9191 순천점 061-755-7969 여수점 061-684-2800 	<p>전라북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점 063-251-3331 <p>충청남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산점 041-665-1170 천안점 041-563-0007 <p>충청북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천점 043-643-0551 청주점 043-223-5000
---	--	---	---	--	--	---	--	---

데스크 칼럼

매뉴얼보다 훈련이다

세월호 참사 후 정부 기관마다 나름 이력저런 아이디어를 모으는 모습이 무척 아름답다. 가슴을 절절히 후벼팠을 이번 참사의 교훈을 와신상담의 자세로 끊임없이 이런 상황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것이니 아름다울 수밖에. 오랜만에 나라가 제대로 방향키를 잡은 것 같아 내심 쾌재를 불렀다. 지금까지 국민 세금으로 봉급은 꼬박꼬박 받아 챙기면서도 제 몫은 제대로 못 한다는 생각을 지을 수 없었던 공무원들이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더더욱 고맙다. 그러나 이들이 요즘 머리 뺨뺨 짜내면서 하는 일을 보면 잠시나마 공무원에 대해 가졌던 환상은 일순간 신기루처럼 확 사라지면서 '역시 절박통이란 말이 절로 나온다.'



이은호
사회경제부장

'대한민국 1% 엘리트'라는 공무원들이 요즘 벌이는 일은 바로 '정치권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다. 사고를 선박 사고부터 항공기 사고, 열차 사고, 교통사고, 공장 폭발, 홍수, 가뭄 등으로 세분화 하나하나 꼼꼼히 대응할 수 있게 하겠다는 소리. 여기서 뇌리를 확 파고드는 의문 한 대목. 과연 지금까지 이런 매뉴얼이 없어서 제대로 대응을 못 했을까. 아마 정부 기관들이 사고 날 때마다 만들어 놓은 매뉴얼을 모으면 서너 트럭 분은 족히 될 거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명성 자자한 사고 공화국. 그때마다 심혈을 기울여 이력저런 매뉴얼을 만들었을까 하니 더더욱 그렇다. 이미 만들어 놓은 매뉴얼 또 만들어내느라 허투루 남비하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 1%인 공무원들이 할 일이 있다. 바로 훈련이다.

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에 따른 안전 훈련을 철두철미하게 시행하고 있다.

우선 캐나다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별로 자연재해는 물론, 일반 사고까지 유형에 맞춰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 지진이나 태풍이 찾아 재해 공화국으로 악명이 자자한 일본은 온 국민에게 유저원 다닐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전국 179개 체험장에서 재난대처훈련을 의무적으로 받게 한다. 미국도 주별로 자주 발생하는 재난과 위기 유형에 맞게 특화된 훈련을 하고 있다. 허리케인이 많이 발생하는 주, 홍수가 빈발하는 주 등 각주의 상황에 따라 다른 훈련을 받는다. 프랑스는 학교의 총괄 책임자가 반드시 사고 발생 시 대처하기 위한 내부비상대비계획(PO)을 세우고 학생들에게 행동 요령을 훈련하게 한다.

선진국들은 왜 그토록 큰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재

난 훈련에 매진하는 것일까. 매뉴얼이 존재해도 공무원과 시민들이 오롯이 실행할 능력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훈련을 수십 차례, 수백 차례 하더라도 반복해 바야흐로 살아 숨 쉬는 무엇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다. 한번 해보는 게 골백 번 듣는 거보다 낫다는 격언은 재난과 훈련이란 관점에서 전적으로 유효하다.

또 하나 선진국에 배워야 할 것은 바로 훈련 때 반드시 매뉴얼의 실효성을 냉정히 검증해본다는 것이다. 훈련을 하다보면 아무리 훌륭한 매뉴얼도 문제점이 드러나기 마련. 만일 매뉴얼에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수십 년 된 것이라도 흔쾌히 뜯어고친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대한민국이 그토록 흠모해 마지않는 선진국의 '정치권 매뉴얼'이다.

그리고 시종한 김에 '미친 O' 소리 들을 각오하며 하나 더 말해 본다면 지금 대한민국에 절실한 건 매뉴얼을 자잘하게 조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단순화하는 작업이라는 것이다. 매뉴얼 지나치게 많으면 공무원도, 시민들도 이를 체화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 필자가 예기한 부분을 주장한다면 아마 비판을 들뜰 향유하면서 '국민의 공직'이나 '공무원의 공직'이 될 수 있다. 훈련을 하자고 하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할 것이고, 매뉴얼을 단순화하자고 하면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냐는 다른 공무원들의 걱정 세례를 담뱃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반발이 나 우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보다 앞설 수 없다. 모든 공무원이 욕먹을 각오로 나서지 않으면 풀 수 없다는 얘기다.

leeunho@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국회의원 뺑뺑이 방지법'

지난 4월 임시국회 사흘째를 맞았던 4월 7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의석을 채운 의원은 재직 298명 가운데 39명에 불과했다. 일부 중의원을 제외하면 그나마 출석한 의원들마저 질의에 집중하기보다는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때우기에 바빴다.



기초연금과 체중측정 전 검찰총장 사태를 놓고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린 작년 10월 1일, 오전 질의에 이어 오후 2시 정각 속개해야 할 회의가 71명밖에 없어 계속 지연됐다. 박영석 국회의장이 의원들의 이름을 한명 한명 호명하며 출석을 부르는 웃지 못할 상황이 전개됐다.

세월호도 국회의원들의 고질병인 '지각과 뺑뺑이'를 막지 못했다.

여야는 20-21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어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세월호 사고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실시했다.

첫날은 재적의원 288명 가운데 268명이 출석했고, 오후 속개 때도 212명이 재석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이것도 적다고 하겠지만 그동안의 사례에 비춰볼 때 이 정도 출석률이면 훌륭한 편이다.

문제는 질의 이틀째인 21일 벌어졌다. 여야는 오전 10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질의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첫 번째 안건인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중석 요구의 건'을 가결할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본회의 개회의 늦춰졌다. 이 안건을 처리하려면 재적의원 145명(145명)이 출석해야 하지만 개회의 예정 시간에 자리를 지킨 의원은 100명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

본회의장 바깥에서는 의원들의 신속한 출석을 요청하는 안내 방송이 계속 흘러나왔다. 사회를 맡은 이병석 국회의장도 본회의장 밖에 있는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들어와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그래도 성원이 안

되자 이 부의장은 "일단 긴급 현안 질의를 시작한 뒤 최 위원장 관련 안건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여야는 원래 순서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10시 30분이 지나서야 145명이 채워져 의사일정이 시작될 수 있었다. 오후 본회의 때도 예정시간보다 13분이 지난 오후 2시 43분 의사정족수(58명)가 겨우 채워져 회의가 속개됐다.

현안 질의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를 지킨 의원 역시 8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지각도 모자라 3분의 2 이상이 '뺑뺑이'를 친 것이다. '국회의원 뺑뺑이 방지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판이다.

그렇다고 질의 내용이 충실했던 것도 아니다. 총리와 장관을 세워놓고 즉박지르고 의혹만 제기하는 데 급급했다. 관피야 방이나 정부조직개편 등 정치 중요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후보 지원 등에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점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다른 문제도 아니고 전 국민을 분노와 슬픔에 빠뜨린 세월호 사고 문제를 다루면 서 보인 여야 의원들의 행태는 해도 너무했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은 물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이런 현안 질의라든 차라리 열지 않는 편이 나았을 지 모른다. 정치권의 깊은 반성을 촉구한다.

정치경제부 정치팀 기자 zerg@

객석

'자원부국' 대한민국



이정식
해림후쿠이단 사장

'대한민국은 산유국이다'라는 TV 광고가 관심을 끌었던 적이 있었다. 해외 유전 개발 기업을 선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광고는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 상황을 과고하며 공감을 이끌어냈다. 잠재의식 속에 '우리 가진 것이 없다는 박탈감이 자라고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산유국이라는 역설적 표현이 뇌리에 박힌 것이다. 하지만 간과하고 있었던 사실이 있다. 바로 우리 영토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 과연 우리 바다에서 나오는 해조류들을 우리가 100% 활용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미역, 다시마, 김 등은 음식으로서만 가치가 뛰어난 게 아니다.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해 건강기능 식품이나 약품의 원료로 재탄생할 잠재력이 있다. 미역

과 다시마에서는 암세포를 자살시키는 것으로 유명한 생리활성 물질 후코이단을 추출할 수 있다. 김에서는 폴락스테롤을 조절해주고 간 기능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포피란이 나온다. 강력한 항산화작용과 항암작용, 지방 분해작용 등으로 관심을 받는 후코이단 역시 미역에서 추출할 수 있다. 일이 번거롭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후코이단의 주원료가 되는 미역귀는 대부분 바다에 버려졌다.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한 다시마의 가근(假根) 역시 그대로 수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해조류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미역귀로 만든 후코이단은 모즈쿠라는 해조를 사용한 일본 후코이단에 비해 황산기 함량이 두 배나 많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눈앞에 있는 보물을 쓰지도 못하면서 가진 게 없다고 한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우리가 가진 것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그것을 활용해 부가가치 높은 상품으로 재탄생시키려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이다.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 대한민국은 이미 자원부국일지도 모른다.

기자의 눈

KBS의 추락



김민정
문화부/mj_kim@

"김환영 사장이 사퇴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KBS가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 KBS 기자회견은 무기한 제작거부에 돌입했고, PD협회도 제작거부를 선언했다. 김시곤 전 보도국장은 일명 '보도외압일지'를 공개하며 정외대의 언론통제 사실을 상세히 폭로했다. 현재 KBS 내부 보도본부 부장단과 팀장단이 전원 보직 사퇴했으며 TV본부와 기술본부, 라디오센터 등 팀장 308명 중 약 57%(178명)가 자진사퇴했다. 1인 시위도 벌인다. KBS '뉴스9'도 반토막났다. KBS 노조는 김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김 사장은 강력 대응하며 자신의 꿈은(?) 의지를 굽히지 않고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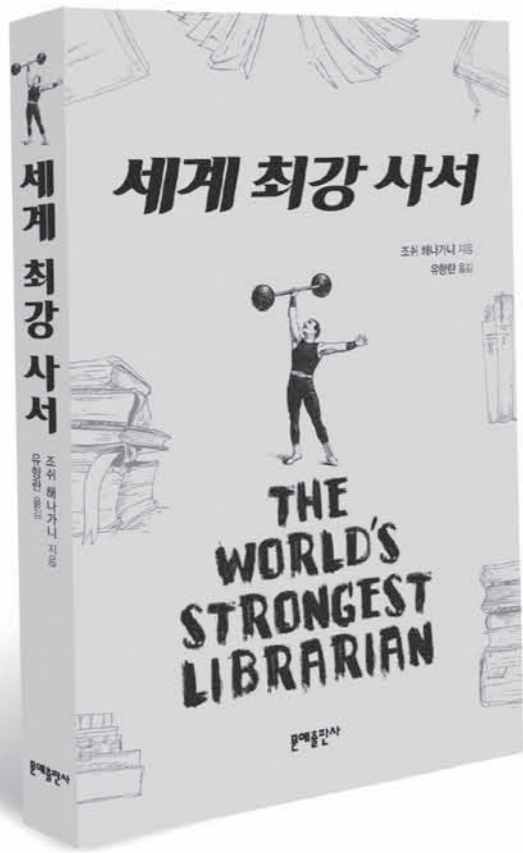
우리나라 대표방송이자 공정보도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KBS가 공영방송의 책무를 잃고 그간 끌어왔던 내부 면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청와대 외압설', '해경비관보도 자제', '뉴스9 큐시트(진행계획표) 미리보기' 등 공정성을 잃어버린 타율적 방송사로 전락하고 있다. 김 사장은 무너져 내리는 공영방송의 신뢰와 믿음에도 PD 출신 사장이라 잘랐다는 논조의 공격한 변명을 더하며 자리 보존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수신료 현실화 TV자막(수신료의 가치, 감동으로 전합니다)으로 온 국민을 세뇌시키더니 이제는 감정에 호소하며 해결 방안을 찾는다. 지금은 공영방송 수장으로서 책임과 의무, 공적 책무가 무엇인지 깊은 자기성찰이 필요한 때다. 침묵하는 다수'를 운운한 그의 알팍한 기대심리는 오만에 불과할지 모른다. 공영방송이 지켜야 하는 기본 정도(正道)는 공정성과 균형, 중립이다. 공정한 뉴스 전달과 건강한 비판, 올바른 시각으로 있는 그대로의 낱것을 담아야 한다. 누구도 꾸밈을 강요할 수 없다. 이것이 공영방송 존재 이유다.

이투데이

社 是
正 道 言 論
經 濟 報 國
未 來 指 向
www.etoday.co.kr

발행인·편집인 김상우	편집국장 이종재	광고국장 임영재
논설실 (02)799-2657	온라인뉴스부 (02)799-2640	금문부 (02)799-2665
정치경제부 (02)799-2655	시정부 (02)799-2663	사회생활부 (02)799-2661
산업부 (02)799-2664	미래산업부 (02)799-2663	사진팀 (02)799-2634
문화부 (02)799-2689	국제경제부 (02)799-2650	사진팀 (02)799-2634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03 / 260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운명적인 시련을 가족의 사랑과 웃음의 힘으로 극복해낸 기적 실화!



세계 최강 사서

조쉬 해나가니 지음 | 유향란 옮김 | 392쪽 | 13,800원

중증 투렛 증후군의 아픔을 책에 대한 열정과 가족의 도움으로 극복해나가는 행복한 사서의 감동 스토리



아버이라는 존재, 우정, 결혼, 그리고 이 책의 저자와 가족들이 결코 만만치 않은 삶의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기적을 슬프고도 애절하게 노래한 원대하고 감동적인 비가(悲歌). 한번 잠으면 절대로 손에서 책을 내려놓을 수 없고, 결코 잊을 수 없으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완벽하고 또 완벽한 보석 같은 작품.

— 펴 읽힌 (What to Read When의 저자)

이 책을 읽으라,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웃고 배우라. —(워싱턴 포스트)
두려움을 모르며 유쾌한 책. —(뉴욕)
고집의 힘에 대한 감동적이며 때로는 재미있는 이야기. —(퍼블)
통찰과 유머, 은혜와 경이로 가득 찬 놀라운 이야기. —멜라니 래 손(Sweet Hearts의 저자)
정말 재미있으면서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매혹적인 회고록. —조 랜스데일(Edge of Dark Water의 저자)
재미있고 진지하며 감정을 풍요롭게 만드는, 경이로운 휴먼 스토리. —루 솔러(New Rules of Lifting의 공동 저자)
조쉬 해나가니는 도서관이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오로지 이런 책들 덕분이다. (세계 최강 사서)아말로 독서의 즐거움이다. —크리스 길아보(The \$100 Startup의 저자)
이 회고록은 앞으로 오랫동안 당신의 가슴 깊이 와 닿을 현대의 고전으로 풍요롭고 지혜롭고 중요한 책이다. 조쉬는 그 이상 바랄 수 없을 만큼 용감한 사람이다. —세스 고든(Linchpin의 저자)



JOSH HANAGAN

인터뷰 영화 '역린' 흥행 주역 조정석

“살수 눈빛에 선한 목소리 매치... 완전 몰입”

배우 조정석이 목소리와 눈빛으로 여심을 제압했다. 지난달 30일 개봉한 영화 '역린'은 손의 분기점을 가쁘히 돌파하며 꾸준한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다. 조선 제22대 왕 정조를 살해할 음모를 꾸민 정유역변을 소재로 한 극에서 조정석은 조선 최고의 살수인 을수 역을 맡았다.

현빈, 조재현, 정재영, 한지민, 김성령 등 초호화 캐스팅으로 개봉 전 화제를 모았던 '역린'에서 조정석은 많지 않은 대사 속에서 오로지 연기력으로 존재감을 발휘했다. 여기에는 다양한 감정이 오가는 가운데 고스란히 담아낸 눈빛 연기가 주효하게 작용했다. “작은 예로, 원거리와 근거리를 각각 볼 때 사람의 동공이 차이가 납니다. 이처럼 감정이 어디까지 가는가에 따라 표현 디테일이 다른데요. 을수의 감정과 상황에 굉장히 집중된 상태로 연기했습니다.”

첫가락만으로 목을 쏘는 잔인한 살수지만, 사랑하는 여인 월혜(정은채)를 향한 설렘과,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노인 광백(조재현)의 앞에선 두려움과 분노를 잘 표현했다.

특히 강렬한 살수의 눈빛에 반해 때로 선하게 나오는 목소리 연기는 애처로운 사연을 가진 악역인 을수를 표현하기에 적격이었다. “사실 제가 생각했던 을수의 면모를 표현하기 위해 음성에 대해 무척 고민했습니다. 그걸 알아 주는 분들이 진짜 고맙고요.”



영화 '역린'에서 가슴 아픈 사연을 지닌 조선 최고의 살수 을수를 연기한 배우 조정석. 사진제공 올댓시네마

조선 최고 살수 '을수' 역 맡아
대본 밖의 성장배경까지 연구
눈빛 연기만으로 존재감 발휘

이는 각각의 인물들 사연이 전개의 중심축을 이룬 이번 영화에서 살수의 캐릭터를 향한 몰입을 도왔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대본의 내용 외적 부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정조(현빈)를 죽이러 가는 명분이 바로 서야 했고, 그에 따라 차근차근 을수의 어린 시절부터 성장배경까지 연구했죠.”

조정석은 을수가 견강 나뭇배에서 첫 등장하는 모습을 가장 인상 깊은 장면으로 꼽았다.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 ‘요동치지 않는 을수의 눈빛’이라는 식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때 을수의 이야기가 단순히 읽히더라고요. 그 시나리오 자체와 캐릭터에 이끌려 작품을 택했죠. 한 편의 동양화 같은 가장 멋진 장면입니다.”

영화 '건축학개론', KBS 2TV 드라마 '최고다 이순신' 등에서 유쾌하고 까칠함을 오가며 개성을 드러냈던 조정석의 진중한 연기 변신에 관심을 집중해야 할 이유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걸그룹 또 다른 매력 솔로 혹은 유닛



뮤직비디오 영상이 흘러나오다 갑자기 안전. 화려한 조명과 앰프가 터질 듯한 음악소리 아래 한 여성 가수가 무대 위를 걸어 나왔다. 블랙 시스루 블라우스와 핫팬츠에 10cm가 넘는 하이힐을 신고 허벅지를 훤히 드러내며 노래와 춤을 시작했다. 끝반을 이용한 과감한 색시댄스와 가창력을 선보이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시크릿 멤버 전효성의 솔로 데뷔 쇼케이스 현장 모습이다.

걸그룹 멤버들이 본격적 솔로활동을 통해 홀로서기에 나서고 있다. 5월에는 전효성에 이어 티아라 멤버 지연도 솔로 데뷔를 앞두고 있다. 이번만 아니다. 유닛 활동을 하는 그룹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 멤버들은 팀 색깔에 묻혀 있던 자신의 재능과 끼를 솔로나 유닛 활동을 통해 마음껏 발휘했고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한 색다른 매력으로 대중에게 다가갔다. 걸그룹 속 대표 솔로가수 혹은 유닛그룹은 누가 있을까.

소녀시대의 리더이자 메인 보컬 태연은 다수의 드라마 OST('쾌도 홍길동', '아테나-전쟁의 여신', '베토벤 바이러스')를 섭렵하며 보컬로서 매력적 보이스를 뽐냈다. 태연은 “멤버들이 많은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목표”라고 솔로활동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2012년 소녀시대 멤버 태연과 티파니, 서현은 태티서라는 이름의 유닛을 결성해 활동했다. 태티서는 유닛그룹 최초로 음악방송 3주 연속 1위에 올라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투에니원 박봄은 2009년 첫 솔로 싱글 앨범 '유 앤 아이(You And I)'를 발표하며 홀로서기에 도전했다. 2011년 4월 발표한 솔로 2집 '돈't 크라이(DON'T CRY)'는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 1위에 올랐다. 투에니원 멤버 씨엘도 지난해 5월 첫 솔로 앨범 '나쁜가집에'를 공개하며 자신의 음악 색깔을 드러냈다.

폭풍 가창력으로 가요계를 점령한 씨스타 효린은 지난해 11월 솔로 정규 앨범을 발매했다. 타이틀곡 '너밖에 몰라'는 각종 음악방송(MBC, KBS, Mnet)에서 1위를 차지했다. 효린은 솔로 데뷔에 앞서 멤버 보라와 함께 유닛 씨스타19를 결성해 활동했다. 씨스타19는 미니앨범 '있다 없으니까'(2013)로 활동하며 '2014 가온 차트 K-POP 어워드' 올해의 가수상 음원부분 2월상 주인공이 됐다.

섹시 아이콘 포미디 현아는 앨범마다 과감한 노출과 매력적인 눈빛으로 좌절을 압도했다. 그는 2010년

투에니원 씨엘·씨스타 효린 등
홀로서기 솔로 앨범 잇단 발매
팀에 가려진 재능·끼 발산 기회

아이돌 그룹 유닛 활동도 활발
색다른 매력으로 대중에게 어필
유명세 이용 수익 창출 지적도

첫 솔로 싱글 '체인지(Change)'에 이어 '버블팝'(2011)으로 상급 발랄한 매력을 드러냈고 가온 디지털 종합 차트 2위까지 올랐다. 같은 해 현아는 비스트 멤버 현승과 유닛그룹 '트리플 메이커'를 결성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트리플 메이커'는 2013년 '골든디스크'에서도 음반부문 베스트 댄스 퍼포먼스상을 받았다.

시크릿 리드 보컬 송지은은 2009년 첫 솔로 앨범 '어젠'을 공개하며 홀로서기를 시작했다. 이후 2011년 두 번째 솔로 앨범 '미친거니'를 발표했다. 지난해 발표한 세 번째 솔로 앨범 '희망고문'에서는 자사와 작곡 등 다양한 작업에 참여해 싱어송라이터로서 가능성을 보여줬다.

큐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그룹에서 보여줄 수 없는 개인의 능력이나 매력적인 부분을 콘셉트로 짜서 활동하게 된다”며 “멤버마다 각각의 개성을 드러내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이 그룹활동과는 차별화되는 솔로활동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걸그룹의 솔로나 유닛의 활동에 대해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배국남 대중문화평론가는 “걸그룹 멤버들의 솔로 활동이나 유닛 활동이 걸그룹과 차별화된 음악적 독창성, 색깔이 아닌 걸그룹의 유명세를 활용해 눈길을 끌고 수입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많다. 음악의 다양성이나 질적 발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민정 기자 mj_kim@

학습만화 Why? 시리즈 <쫓겨난 임금> 원작

부모님이 선택한 여름방학 가족뮤지컬

“마법학교에서 공궤로 슈슈~팡”

why? 마법학교

마법사와 쫓겨난 임금

2014. 7. 4(금)~8. 24(일)

국립중앙박물관 극장용

www.musicalwhy.com kakao story ID: musicalwhy

오픈기념
조기에매할인
60%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주최 국립중앙박물관재단 후원 에리당 후원 국립중앙박물관 문의 1544-5955 ©에리당

랭킹 엔터테인먼트

영화는 송승헌, 임지연 주연의 '인간중독'이 주간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했다. 조니 탭 주연의 블록버스터 '트랜센던스'는 5위를 차지했다. TV는 KBS 2TV 일일 드라마 '사랑은 노래를 타고'가 시청률 29.6%(닐슨코리아 제공, 이하 동일)로 왕좌를 지켜냈다. 김희선, 이서진 주연의 KBS 2TV 주말드라마 '잠 좋은 시절'은 시청률 23.5%로 2위를 기록했다. 음악은 원년 멤버가 뭉친 god의 '미운오리새끼'가 1위를 수성했다. 조덕배의 '나의 옛날 이야기'를 리메이크한 아이유의 동명의 곡은 진입 첫 주 5위를 차지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TV 시청률

순위	프로그램	시청률	방송사
1	사랑은 노래를 타고	29.6	KBS 1TV
2	참 좋은 시절	23.5	KBS 2TV
3	천상여자	18.6	KBS 2TV
4	KBS9시뉴스	18.6	KBS 1TV
5	정도전	18.2	KBS 1TV
6	나만의 당신	13.9	SBS
7	너희들은 포위됐다	12.5	SBS
8	왔다장보리	12.4	MBC
9	닥터이방인	12.4	SBS
10	정글의법칙N브라질	12.2	SBS

영화 박스오피스

순위	영화	누적관객	개봉일
1	인간중독	64만 6876명	2014-05-14
2	고질라	52만 7870명	2014-05-15
3	표적	255만 5410명	2014-03-30
4	역린	364만 8371명	2014-03-30
5	트랜센던스	42만 278명	2014-05-14
6	에이미징 스파이더맨 2	413만 3153명	2014-04-23
7	리오 2	71만 4440명	2014-05-01
8	라스트베가스	162만 4313명	2014-05-08
9	천재 강아지 미스터 피바디	37만 2787명	2014-04-24
10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75만 8010명	2014-03-20

온라인 음원차트

순위	곡명	아티스트	전주비교
1	미운오리새끼	지오디	0
2	너를 위해	정기고	10
3	볼 사랑 벗꽃 말고	하이포, 아이유	-1
4	중독	엑소-K	0
5	나의 옛날 이야기	아이유	진입
6	200%	익동뮤지션	-3
7	야생화	박효신	-2
8	나이트 앤드 데이	휘성	진입
9	미스터 추	에이핑크	-3
10	지우고 싶다	포맨	진입

Inside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2면



퍼스트 클래스 스토리 / 젠하이저

23면



지방 분양시장 활성세가 지속되고 있다. 시장 침체로 그동안 공급이 없던 지역에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지역별 호재가 많아지면서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사진은 최근 화성산업이 대구에서 분양한 침산 화성파크드림 아파트가 지역 내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 1순위에서 모두 마감됐다. 사진제공 화성산업

‘웃돈’ 붙어 웃는다... ‘미분양 무덤’의 반전극

Cover Story

지방 부동산시장 후끈

대구·전주 등 청약 '1순위 마감' 신바람
신규공급 중단으로 부족했던 물량 해소
혁신도시·산업단지 조성 호재로 작용
활황세 속 올해 공급과잉 우려도 제기

커버스토리 20·21면

지방 분양시장의 열기가 좀처럼 식을 줄 모른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기됐던 공급 과잉 우려 전망이 무색할 정도다.

실제 올들어 대구, 전주 등 분양시장에서 최고 100대 1이 넘는 경쟁률로 1순위에 마감하는 아파트들이 수두룩하다. 지난 3월 전남 나주혁신도시에서 분양한 '중흥S클래스'는 6.9대 1로 일찌감치 1순위 마감됐다. 호반건설이 전북에서 분양한 '전북혁신도시 호반베르디움'도 633가구 모집에 1만2710명이 몰려 평균 20.1대 1, 최고 16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다 보니 분양 단지마다 수천만원씩 '웃돈'이 붙기도 한다.

불과 2~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달랐다. 당시 수도권 부동산시장에 찬바람이 뽕뽕 불었지만 지방 부동산 시장은 그보다 더했다. 지방 시장에는 미분양 무덤, 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 등의 부정적인 수식어가 따라다닐 정도였다.

지방 부동산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이유는 뭘까. 부동산 침체기에 건설사들이 신규 주택 공급을 중단하면서 수요에 비해 물량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공급은 적는데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지역별 호재가 많아지면서 수요가 몰렸다는 것이다.

최근 지방 부동산 활황을 이끄는 대구광역시의 예를 들어보자. 2009년 초 대구 미분양 아파트가 2만 가구를

넘어가면서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을 줄였다. 그런데 동 대구역세권 개발, 혁신도시·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호재가 몰리면서 아파트 희소 가치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KB국민은행이 내놓은 집값 변동률 자료를 보면 작년 대구광역시는 8.96% 오르며 집값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올 들어 지난 1분기에도 경북 경산시(4.82%)에 이어 대구 달서구(3.5%), 달성군(3.3%), 서구(3.04%)가 2~4위를 차지했다. 대구지역 전체 집값 상승률도 2.5%로 지방 5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았다. 미분양 아파트도 속속 팔려나갔다. 한때 2만가구를 넘던 대구 미분양 아파트는 올 2월 615가구로 급감했다. 2003년 10월(420가구)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다.

대구뿐만 아니라 경남 창원, 충남 천안, 충북 충주 등 지방 산업도시들에 위치한 '배후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실제 창원국가산업단지 배후 주거지역인 경남 창원의 성산구와 의창구 등은 부산의 인기 주거지역인 해운대 아파트 시세와 맞먹거나 웃도는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아파트의 3.3㎡당 시세는 914만원. 그러나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1323만원, 의창구 신월동 1264만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부산에서도 가장 아파트 값이 비싸다는 해운대구 우동의 아파트 평균 시세는 3.3㎡당 927만원이

다. 공공기관이 옮겨가는 혁신도시 주변 부동산도 인기다. 전남혁신도시 '중흥 S클래스 센트럴 1·2차'는 각각 11.9대 1, 9.7대 1로 1순위에 청약 마감했으며 호반건설이 전북혁신도시에서 선보인 2개 단지도 모두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에 일찌감치 입주자를 모두 채웠다.

분양물량이 급증했던 지방 분양시장은 올해부터는 공급 부담으로 인해 다소 진정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분양가보다 높은 매매가를 형성하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올해 지방 아파트 입주물량이 많아 상승 추세가 꺾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아파트 입주 물량은 10만7997가구였지만 올해는 14만8319가구로 무려 4만가구가 이상 늘어난다. 비록 지방에 호재가 많지만 이 같은 물량을 소화하기엔 역부족이란 설명이다.

실제 그동안 지방 부동산 상승세를 이끌던 세종시 아파트 가격도 주춤한 상태다. 최근 공급 물량이 급증하면서 올 3월 세종시 아파트 매매 가격은 2013년 이후 처음으로 0.04% 떨어졌다. 올해 세종시에 입주 예정인 새 아파트 물량은 총 1만4681가구로 지난해(3438가구)의 3배를 넘는다.

강영관 기자 kwan@

배후수요 든든·시세 안정... 산업단지 주변은 '꿀단지'

'밸리' 인근 분양 혼풍

편의시설·교통망 확충 기대 집값 상승 이끌어
임주기업 근로자들 유입 매매도 원활 '블루칩'
판교 '알파리움' 대구 칠성 '그린코아' 등 인기

분양시장에 혼풍이 불면서 배후 수요가 든든한 첨단산업단지(밸리) 인근 신규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

대구도 산업단지 인근 지역은 산업단지 종사자들 위해 수요가 비교적 탄탄한데다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편의시설 및 교통망 확충 등이 기대돼 집값이 대체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아파트는 직주근접 주택을 선호하는 수요자들의 꾸준한 관심으로 매매가 원활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건설사들도 브랜드를 앞세워 새로운 지역에 진출하는 등 분양시장 선전에 나서고 있다.

◇성적으로 나타난 산업단지 인근 분양 = 22일 부동산정보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실제로

정보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차세대 성장산업 유지를 위한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되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가 지난해 9월 국민·민영 주택 1·2순위 청약에서 평균 2.3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앞서 분양된 판교 알파리움은 이웃한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몰리면서 평균 26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모든 주택형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G밸리 등 탄탄한 배후수요가 뒷받침되는 금천구도 마찬가지다. 지난 2월 '롯데캐슬 골드파크 1'은 최고 경쟁률인 5.39 대 1을 기록했다.

한파가 불던 지방에서도 지난해부터 안정된 분양성적을 거두고 있다. 지난해 분양된 대덕연구개발특구 택지지구인 죽동지구에 분양했던 '금성백



최근 지방 산업단지 인근 분양 물량들이 든든한 배후 수요를 기반으로 분양 혼풍을 이르고 있다. 이에 건설사들도 신규 지역에 분양을 시작하는 등 분양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롯데캐슬골드파크 2차 조감도(왼쪽)와 평택 송담 힐스테이트 투시도.



조 죽동 예비지는 평균 3.18 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후 초기계약률 90%를 훌쩍 넘었다. 또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를 배후 수요로 둔 '경산코아루'는 지난해 7월 한 달 만에 100% 계약을 완료했다.

특히 대구와 경북지역은 첨단산업단지 조성으

로 인해 부동산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지난 4월 대구 북구 칠성동에서 분양한 '오페라 삼정그린코아 더 베스트'는 총 409가구에 무려 3만1436명이 몰려 최고 105 대 1, 평균 76.9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를 마감했다.

이는 곧바로 프리미엄으로 연결되고 있다. 판교 알파리움 전용 96㎡의 경우 프리미엄이 1억원가량 붙었고 광교테크노밸리와 인접한 광교오드카운티도 5000만원가량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 주변 중개업소들의 전언이다.

이처럼 산업단지 인근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배후수요 외에도 안정적인 시세 등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산업단지의 경우 지방을 중심으로 대규모로 조성된다. 이렇다 보니 산업단지 인근의 아파트들은 수도권 대비 저렴한 분양가에 풍부한 배후수요를 뒤 붙여도 환금성이 좋고 안정적인 시세를 형성한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대규모 산업단지가 대거 포진해 있는 산업도시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은 기업 종사자들이 꾸준히 유입돼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모여 주거지를 형성하게 된다. 이후 직장을 그만 둘 때까지 편리한 접근성과 우수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좀처럼 이사가는 경우가 적어 해당 지역은 경기 불황에도 높은 시세를 형성하곤 한다.

◇건설사들도 분양 '활안' = 수요자들의 반응이 뜨겁자 건설사들도 앞다퉈 분양에 나서고 있다. 특히 대형건설사들도 신규 지역에 진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철강도시 당진이다. 이곳에서는 국내 건설업계의 라이벌인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자신감을 건 한판 승부를 벌인다.

먼저 분양 포문을 연 것은 현대건설이다. 현대건설은 915가구 규모의 '당진 힐스테이트'의 견본주택을 지난 9월 열었다.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등 같은 현대차그룹 계열사 직원 이전 수요를 고려한 분양이다. 대우건설도 지난 16일 581가구 규모의 '당진 2차 푸르지오'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섰다.

또한 삼성전자가 들어서는 고덕산업단지와 수도권 고속철도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한 평택에서도 현대건설과 반도건설이 맞붙는다. 이달 중 현대건설은 952가구 규모의 '평택 송담 힐스테이트'를 내놓고 반도건설은 1345가구 규모의 대단지인 '평택소사벌 반도유보라'를 분양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평택소사벌 B5블록에 765가구 규모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롯데건설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업체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밀집한 서울 구로구와 금천구 G밸리 인근에서 분양에 나선다.

서산 예천동 해링턴 플레이스는 오는 6월 중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총남은 기업 이전에 따른 전입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분양시장의 블루칩으로 평가받는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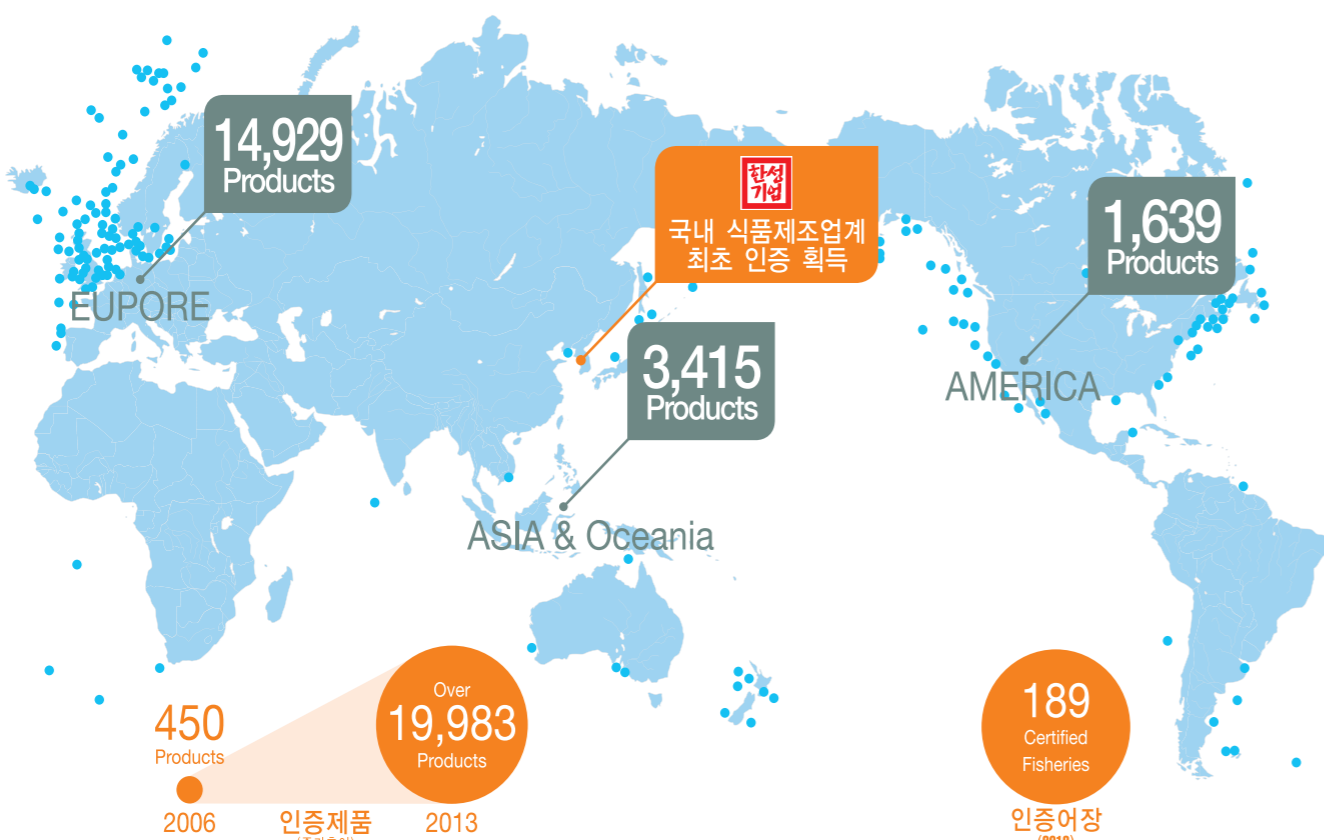
광교신도시에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비롯해 220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테크노밸리 인근에는 첨단 제약 바이오특화 단지가 들어선다. 광교신도시에서는 시티하임2차 오피스텔이 이달말 분양을 시작한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지방 중소도시는 그동안 공급이 많지 않아 새집으로 이사를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이 많아 분양 열기가 뜨겁다"며 "지방 중소도시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올해 상반기 지방 산업단지에도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성원 기자 carlove@



국내 식품업계 최초 MSC-COC 인증획득!

바다의 생명까지 생각하는 기업,
국제적인 친환경 기업으로 다시 도약합니다.



MSC 인증 | 무분별한 수산자원의 남획으로부터 해양자원을 보호하고 검증된 수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윤리적인 방법으로 제공하는 국제 친환경 보증 시스템입니다. MSC의 엄격한 평가기준을 통과한 업체 및 제품에는 Eco-Label이 주어집니다.

MSC COC(Chain of Custody) 인증 | Target 원료(MSC 인증원료)가 제조공정을 거치는 동안 변질 혹은 혼입 사용되지 않았음을 보증하는 인증으로 원료의 사용이력이 추적 가능합니다.



- 전 세계 수산업계 및 생태환경의 미래형적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기관
- 인증은 크게 어획/어장 부문과, 유통/가공(COC)부문으로 구분
- 유럽에서는 필수적인 인증 시스템 중 하나이며, 북미지역 내에서도 주요 인증으로 취급되며 그 인지도는 지속적인 성장중

'혁신도시' 간판 달면 완판

전남·전북·대구·김천 등 분양 과열
공기업 이전 호재 투기 수요 가세
인근 지역까지 집값 상승 이끌어

지방 분양시장의 열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혁신도시 내 아파트 공급이 지방 분양 시장을 이끌고 있다.

실제로 올해 분양한 혁신도시 아파트의 분양 성적은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 '중흥 S클래스 센트럴 12차'는 각각 11.9 대 1, 9.7 대 1로 1순위에 청약을 마감했으며 호반건설이 전북혁신도시에서 선보인 2개 단지도 모두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에 일찌감치 입주자를 모두 채웠다.

대구에서는 서한이 대구혁신도시에 분양한 서한이다음 3·4차의 1순위 청약접수 결과 477가구(특별공급 147가구 제외) 모집에 3673명이 신청해 평균 7.7 대 1의 경쟁률로 전 타입 1순위 마감했다. 이에 지난해 경북 김천혁신도시에서 마지막으로 공급한 아파트 용지 청약경쟁률은 300 대 1을 넘기도 했다.

이처럼 혁신도시 인근의 분양이 좋은 성적을 보이는 것은 무엇보다 '수요'가 창출됐기 때문이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수요가 발생하면서 인

근 지역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공급이 크게 위축됐던 지역이었다는 점도 지방 청약 성공의 이유로 꼽힌다. 최근 1순위 청약을 마감한 이수건설의 '브라운스톤 연제'의 경우 지난해 1년간 공급이 단 200가구에 불과했던 부산 연제구에서 선보인 점이 가장 큰 분양 성공 요인이라는 것이 회사 측 판단이다.

하지만 최근 분양 성공을 낙관적으로만 보기에 조심스럽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지난 2·3년 동안 지방 부동산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최근의 열기는 투기 수요가 가세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혁신도시 수요 대부분은 일정 수준의 주택구매력을 갖춘 공기업 이전수요·기존주택 교체수요로 이뤄졌다"며 "실수요 위주로 구매자가 제한된 지방시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언제까지 이런 분위기가 지속될지 장담할 수 없어 무조건 낙관할 상황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또한 최근 혁신도시를 위주로 고급 아파트 브랜드들이 뛰어들면서 비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분양가 상승을 촉발하고 있다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최근 1년간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수도권은 0.6% 하락했지만 지방은 1.91% 상승했다.

구성원 기자 carlove@

세종발 '청약미달' 먹구름... 전국 분양 열기에 찬물

'공급과잉'에 침체 우려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춤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청약불패'를 기록하던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정부청사가 이전했지만 공무원들이 이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지방 입주물량도 4만 가구나 증가해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작년 말보다 집값 0.13% 하락
교육·쇼핑·병원·대형마트 부족
인근 대전·공주서 출퇴근 선호
김포·송도·당진 등 호조세지만
신규물량 증가 미분양 불안감
김해선 194가구 3순위도 실패

◇'청약불패' 세종시 열기 주춤 = 최근까지 '청약불패' 행진을 이어가던 세종시 아파트 시장의 열기가 주춤해졌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말과 비교할 때 0.13%, 전셋값은 1.59% 각각 떨어졌다. 2013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이다. 지난 4월 '한양수자인'과 5월 '중흥S클래스 리버뷰 2차' 등은 청약미달 사태까지 발생했다.

세종시 부동산 열풍이 식고 있는 것은 수요보다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즉, 세종시로 이주하는 공무원 숫자보다 아파트 공급량이 많았다는 뜻이다. 또한 청사 이전으로 세종시에서 근무하게 된 공무원 중 이곳으로 전입해 오는 공무원도 많지 않다.

아직 이곳이 세종특별자치시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교육, 생활편의 시설(쇼핑몰, 병원, 대형마트 등)이 부족한 탓이 크다는 뜻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세종시에서 지난 3년간 이어졌던 매매가와 전셋값 급등현상은 이제 한계에 다달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혜까지 주면서 주거 정착화를 시도했지만 정착 현재 공무원들은 통근을 선호, 집을 팔고 나가는 경우가 빈번해 도시 조성에도 문제가 있다. 현재 세종시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인근 대전, 공주 등 충청권 출신이 대부분이다"고 설명했다.

◇분양시장 약세 '공급과잉' 계속될 듯 = 최근 대형 브랜드 건설사들이 지방 중소도시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방 사업에 관심이 덜했던 이른바 '1군' 건설사들이 최근 대구, 부산, 광주 등을 중심으로 지방 청약 열기가 뜨겁자 지방으로 눈을 돌려 분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작년 5대 대형 건설사가 지방에 분양한 단지는 1만 1000가구에 달했다. 게다가 올해 지방 입주물량도 4만 가구나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분양 완판'이라는 명성보다는 '미분양'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달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이 호황이던 시절, 대규모 공급과잉은 미분양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시 인근 부동산중개사사무소 측은 "오는 8월 대우건설과 현대엘지 등 총 4000여 가구가 분양되는데 지금 추세로는 분양 성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양극화 심화·국지적 상승세 계속 = 지방부동산 시장이 한풀 꺾이면서 지역별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지적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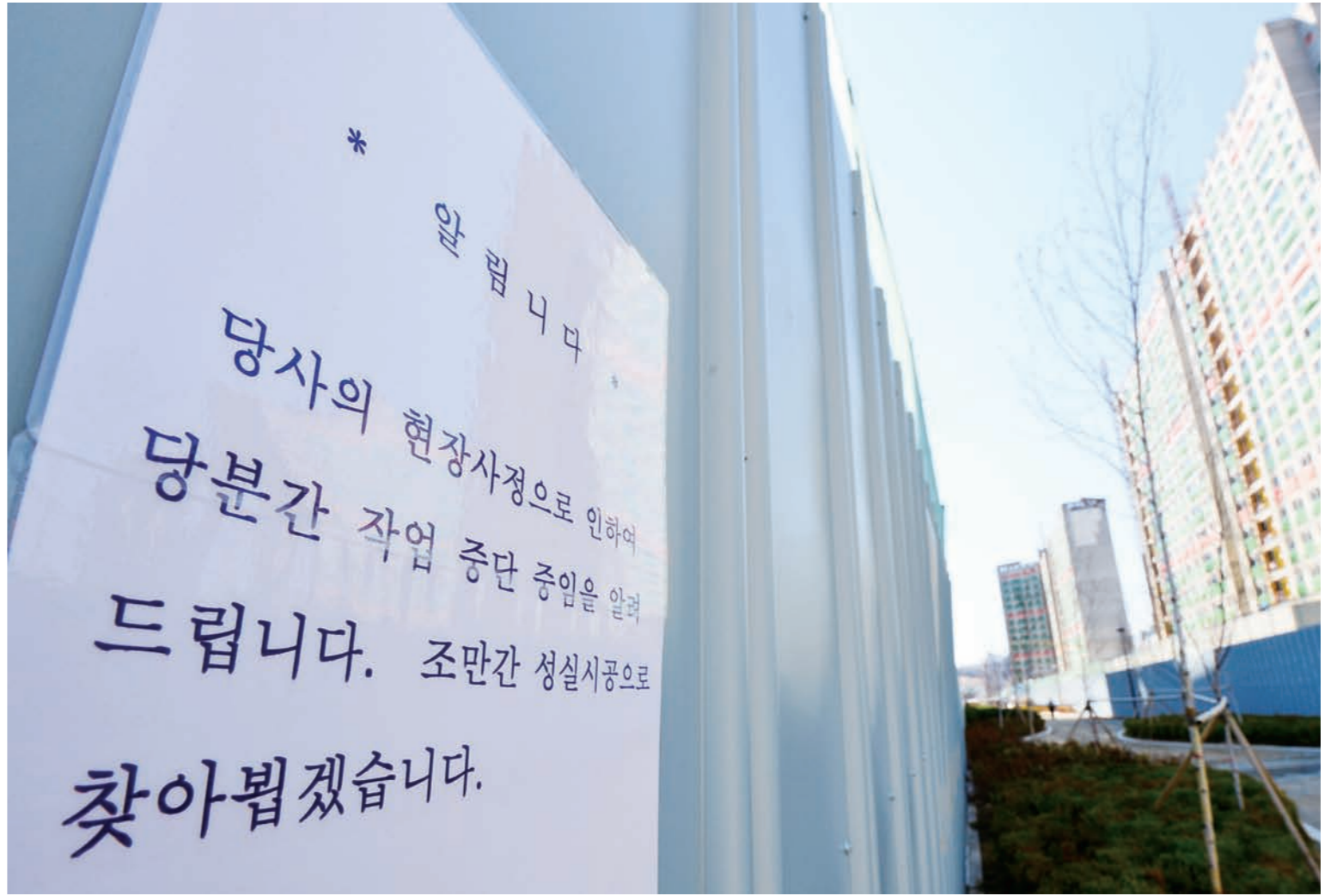
작년까지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리던 경기도 김포·평택, 인천 송도와 충남 당진 등지는 최근 분양 경기가 양호해졌다. 하지만 이때를 노린 건설사들의 물량 공세에 또다시 미분양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포와 평택 등이 호전세를 보일 때 이 틈을 타 건설사들이 대규모 분양을 예정하고 있어 미분양이 다시 쌓일 것으로 보인다. 평택의 경우 5월 이후 신규 분양 물량만 1만 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모집에 들어간 김해 이진 캐슬빌은 967가구 모집 중 194가구가 3순위까지 청약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114 합영진 리서치센터장은 "대구·부산·혁신도시 등 투기 수요가 가세하고 있는 지역이나 신도시처럼 실수요층이 탄탄한 곳을 제외하고는 공급 물량이 늘면서 미분양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며 "청약 대상 지역의 개발 호재나 공급물량·분양가 등을 면밀히 따져 보고 청약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박태진 기자 tipippo@



세종시 신축 아파트 공사장 인근 기림막에 안전점검으로 인한 공사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스

지방부동산 투자, 이것만은 꼭!

거래량 꾸준한 '혁신·계획 도시' 안전 급매물 구입 2년뒤 시세차익 노려야

세종시, 물량 소진되면 가격 오를 것
기업 입주 등 신규수요 지역도 주목

지방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어떤 상품을 노리는 것이 좋을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안정적으로 평가받는 게 아파트다. 그렇다하면 어떤 물량에 투자를 해야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수요와 공급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지역으로 혁신도시, 계획도시 등을 꼽았다.

권일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예컨대 세종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공급 물량이 많아 매매 및 전세가 약세로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만 물량이 소진되면 시세가 다시 높게 돌아온다"면서 "세종시의 경우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가격도 싸 매수 타이밍으로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즉, 값이 쌀 때 아파트를 산 뒤 도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뜻이다. 혁신도시 중에서 아파트 입주가 몰리는 시기에 급매물이나 싼 아파트를 사놓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권 팀장은 조언했다.

그는 "아파트 물량이 몰리는 시기가 있다"며 "이때 급매물로 싸게 나온 물량을 사서 2년 정도 지나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투자 시 안전, 전매제한 등은 반드시 살펴봐야 한

다.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는 요즘 아파트 시설 및 주변 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도 확보해야 한다. 전매제한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대부분 물량은 전매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권 팀장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 완화된 후 투자 전에 확인해 보면 된다. 그러나 계약자 사정에 따라 급하게 물량이 나오다 보니 싸게 나올 때가 있는데 이때는 인근 부동산중개업자들과 연락해 상세히 알아보고 투자한다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개별적인 여건에 따라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태희 부동산사채 연구팀장은 "상품의 개별적인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아파트의 경우,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수요가 많은 곳이 좋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공급과 수요가 많은 곳의 아파트가 최적의 투자 상품으로 꼽힌다.

또한 수요원이 있는, 즉 개발 원천이 있는 혁신도시, 계획도시, 세종시 등의 물량도 눈여겨볼 만하다. 신도시가 아니라도 눈여겨봐 할 곳이 있다. 공급은 없으나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정 팀장은 "신도시가 아니라도 기업이 많은 곳 이면서 신규 공급이 없어서 새 물량으로 갈아타야 하는 지역도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곳"이라며 "이 같은 조건을 고려해 입지별 특색을 살펴보고 투자해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태진 기자 tipippo@

www.dongsuh.co.kr

Maxim

“이제야 커피 마신 것 같네...”

좋은 원두, 좋은 커피

Maxim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맛

커피, 크림, 설탕의 황금비율과 최상급 콜롬비아 원두가 다른 커피로는 채워지지 않는 포카골드만의 '그 맛'을 만듭니다

맛있는 커피의 향기를, 맥심은 더합니다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안전에 유의하시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부실경영' 털고 재무상황 급호전



제주첨단과학기술도에 위치한 JDC 전경.

부패·부채·분규...삼다도의 '3無' JDC

"다른 지역과 달리 돈이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리더라." 제주도를 방문했던 한 투자자의 감탄사다. 실제로 제주도는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부(富)가 증가하는 지역 중 하나다. 통계청 집계를 보면 제주도의 2012년 지역내 총생산은 전년 대비 6.4% 증가했고 경제성장률은 5.3%를 기록했다. 두 수치 모두 전국 1위다. 1인당 소득은 전국 5위다. 돈이 도는 곳에는 사람이 몰린다. 제주의 인구 유입률은 매년 전국 3위권에 든다.

이 같은 제주도의 경제성장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지난 성과와 연관이 깊다. JDC는 제주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체계적 관광지 개발을 선도하는 동시에 외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설립된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기관이다. 설립 이후 지난해 말까지 3조 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했으며 1654개 업체에 7095억원어치의 공사를 수주했다. 제주지역이 국제적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한 지난 10여 년은 JDC의 활동시기와 겹친다.

◇ 이사장 취임 후 재무상황 급호전 = JDC는 제주에 설립된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하는 동시에 국민의 신뢰도 받아야 하는 두 가지 과제가 있다. 하지만 불과 1년 전까지 JDC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정부로부터도 혹독한 평가를 받았다. 급기야 지난해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최하위 등급을 받아 부사장 이상 간부 30명이 일괄사표를 냈고 지역단체들이 기관의 부실경영을 검찰에 고발하는 일도 발생했다.

변화가 나타난 것은 지난해 김한욱 이사장 취임 후 비상경영이 강도 높게 추진되면서다. 특히 김 이사장은 정부 지원에 의존하던 경영구조를 깨기 위해 무차입 경영 원리를 선포하고 외부에서의 자금조달을 중단했다. 그 결과 2011년 138억4000만원, 2012년 201억6000



김한욱 이사장.

김한욱 이사장 고강도 비상경영 200억 넘던 정부출연금 을 16억 작년 매출액·당기순익 크게 늘어 부채 점차 줄고 청렴도 우수등급 건강관 노사관계도 강점 중 하나

만원에 달했던 정부출연금은 2013년 18억원, 2014년 16억원 등으로 크게 감소했다.

JDC의 재무상황은 건전해지고 있다.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을 보면 JDC의 작년 매출액은 4708억6400만원으로 전년(3833억7000만원)에 비해 약 23% 증가했다. 이에 따른 2013년 영업이익은 948억5400만원으로 전년(635억5000만원)보다 50% 가까이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408억1800만원으로 같은 기간 44% 늘었다.

◇ 부패·분규·부채 '3無'...지역주민과 '밀착' = JDC가 지향하는 향후 방향은 부채, 부패, 분규가 없는 '3無(無) 공기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JDC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국가 공기업 30개 기관 중에 4위, 국토부 산하 공기업 중 1위다.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청렴 인센티브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JDC는 설명했다.

부채 측면에서는 오는 2017년까지 금융부채를 아예 없앤다는 목표다. 당장 지난해의 경우 2012년 2860억원이던 금융부채가 2360억원으로 17.5% 줄었고 이에 따른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87.7%에서 70.4%로 17.3%포인트 줄었다. JDC는 현재의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14년~2015년 960억원, 2016년 260억원, 2017년 0원에 이르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한 노사관계는 JDC의 강점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어느 기관이나 임금을 동결하고 복리후생비를 감축하려던 진통을 겪기 마련이다. 하지만 JDC는 최근 이뤄진 노사 완전합의를 통해 1급 직원의 임금을 동결하고 경조비·의료보조금·생일축하금을 없앴으며 각종 복리후생비 8개 항목을 축소했다. 다른 기관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사례다.

한편 JDC의 향후 사업계획의 중요한 방향은 지역주민에게 제주 발전의 과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 "도는 JDC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며 "대규모 프로젝트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일정 부분 도내 지역주민이 참여하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의 고용기회를 확대하면서 지역과 기업이 공동 발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전대천 사장 '서민 가스안전' 쟁점음

〈가스안전공사〉

불량LP가스용기 유통 차단 현장 단속
퓨즈콕·타이머콕 등 안전장치 보급 확대

전대천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서민들에 대한 가스안전 확보를 위해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 사장은 앞서 올해 경영 목표로 가스안전 제도를 혁신하고 안전장치의 보급을 확대해 '국민 안전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전 사장은 우선 불량 액화석유(LP)가스 용기 유통을 막기 위해 기동단속반을 통한 현장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공사는 LP가스에 대한 안전 관리는 물론 각종 안전장치 보급과 제도 개선을 실현했다. 실제로 LP가스 사고건수도 1995년 288건에서 지난해 86건으로 70%나 감소했다.

이는 퓨즈콕, 차단기능형 밸브, 타이머콕 등 안전장치 설치를 통해 시설의 안전성을 대폭 향상시킨 결과다. 또 제도를 개선해 공급자의 점검 강화, 불량 LP가스 용기 유통 근절 등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려 노력한 성과다.

또한 공사는 전 사장의 지휘 아래 전체 가스 사용 가구에 대한 퓨즈콕 장치를 100% 설치 완료했다. 퓨즈콕은 비정상적으로 가스가 샐 때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대표적인 안전장치다. 서민층 LP가스 시설 중 호스를 급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은 201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약 25만5000가구의 시설 개선을 마쳤다. 올해 7만2000가구에 이어 내년까지 총 41만 가구의 서민층 가스 시설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는 첨단 가스안전 기구인 다기능 가스안전 계량기 보급 사업을 사회복지 시설을 대상으로 2년 동안 시범 실시하고 2016년부터는 서민층에도 본격 보급하기



전대천(가운데)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서민들에 대한 가스안전 확보를 위해 임직원들과 함께 가스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로 했다. 아울러 2차 사고 우려가 높은 고령자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타이머콕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타이머콕은 설정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가스 중간 밸브를 닫아주는 안전장치로, 가스를 켜둔 채 자리를 비우거나 장시간 방치해 화재로 이어지는 과열 화재사고 예방에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 가스안전공사는 타이머콕을 올해까지 약 8만7000가구에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전 사장은 가스안전 확보를 위해 꾸준히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직접 종로 광장시장 상인들에게 가스 자율안전 요령이 담긴 전단을 배포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정원오 오창을 원익머트리얼즈에서 열린 비상대응훈련에 참가했고, 20일에는 경기도 김포시의 압력용기 제조업체 한주기계공업을 방문해 현장의 안전관리 운용실태를 점검하는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희준 기자 h9913@

공기업 마당

한수원 '지진에너지 흡수장치' 개발

한국수력원자력이 21일 강진에도 원전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원전용 면진장치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면진장치란 지진 에너지를 흡수해 구조물에 전달되는 충격을 감소시키는 장치로, 구조물 자체가 지진을 견디는 내진과는 다른 개념이다. 한수원은 프랑스와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상업원전용 면진장치 개발에 성공하는 쾌거를 거둬들여 터키 등의 강진(震盪)지역 원전 수출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다. 이번에 개발한 면진장치는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예상 지진보다 에너지가 20배나 큰 리히터 규모 7.3 정도(최대지반가속도 0.5g)의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지진 에너지를 흡수해 구조물에 전달되는 충격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어 원전 구조물 및 설비의 안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됐다.

지역난방공, 연료전지 사업 협약식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서울 노을 연료전지사업의 주주 간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총 107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한수원 29%, 한국지역난방공사 15%, 서울도시가스 15%, 포스코에너지 10%, 제주적출자사가 31%로 각각 지분에 참여하며, 2015년 6월까지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유류부지에 20MW 규모의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발전소가 완공되면 연간 1억5760만kWh의 전기와 약 650억원의 열을 생산·공급하게 되며, 이는 서울시 5만여 가구에 전력공급과 6500여 가구에 난방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홍열 사업본부장은 "노을 연료전지사업은 도심의 유류 부지를 이용해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공급하는 고효율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며 "지역난방공사의 설립 목적에도 부합함에 따라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멀티비타민 웰플러스로 건강을 PLUS+ 하세요!

- 비타민 13가지 + 7가지 미네랄 함유
- 비타민B군 일일영양소기준치의 100% 함유
- 친환경 유기농 부원료 40가지 함유
- 설탕, 인공색소, 중국산 원료 무첨가



우리가족 건강 지킴이 하루에 한 알 WELL PLUS+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미네랄 보충용 제품) 1,250mg x 60정 (1병 2개월 분량), 1일 1정을 씹어서 섭취(천하 베리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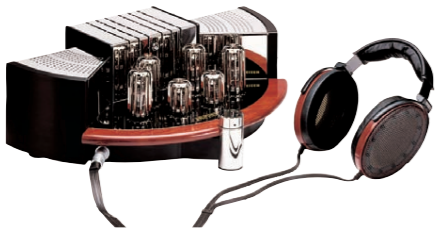


멀티비타민 웰플러스



소음·왜곡 없이 완벽하게... 너의 목소리만 들려

하이엔드 헤드폰 오르페우스



모든 제작 과정이 수작업으로 진행된 오르페우스(Orpheus)는 총 300대만 생산됐다. 생산 제품 대부분을 개인 수집가들이 소장하고 있다. 출시 당시 가격은 약 1540만원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약 4220만원 정도로 가치가 높아졌다. 헤드폰 HE90 및 전용 앰프 HEV 90로 구성된 오르페우스는 자연음에 가장 가까운 사운드를 재현해 헤드폰이라기보다는 최고급 음향기기와 불린다. 쟈하이저의 최첨단 회로기술이 적용된 헤드폰 HE90은 현존하는 어떤 헤드폰보다 음 왜곡률이 낮다.

프리미엄 블루투스 헤드셋 MM 시리즈



Apt-X 코덱을 지원하는 MM 550-X 트래블 및 MM 450-X 트래블은 출장과 여행이 잦은 사용자를 위해 개발된 쟈하이저의 프리미엄 블루투스 무선 헤드셋 제품이다. 최신 블루투스 규격인 Apt-X 코덱을 지원해 넓은 대역폭으로 고품질의 데이터를 손실 없이 전송해 선 없이도 유선 헤드폰을 뛰어넘는 최상의 사운드를 제공한다.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 노이즈가드 2.0 기술이 적용돼 비행기 내부의 엔진 소음 등 시끄러운 외부 환경의 주변 소음을 90% 이상 차단할 수 있다.

프리미엄 헤드폰 모멘텀



스타일 제품군에서 플래그십을 담당하는 모델 모멘텀(Momentum)에 대해 쟈하이저는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과 쟈하이저 고유의 프리미엄 사운드를 갖췄다"고 설명한다. 고품질의 천연 재료를 적용해 순수함의 미학을 강조하는 동시에 최상의 착용감을 제공해 기능적으로도 높은 완성도를 자랑한다. 헤어밴드와 이어패드에는 영국 피타스(Pittards)의 부드럽고 유연한 가죽을 사용했으며, 프리미엄 스테인리스 스틸 헤드밴드 슬라이더를 더했다. 모멘텀에는 쟈하이저 사운드 기술과 함께 강력한 네오디움 자석이 탑재돼 음 왜곡도 0.5% 이하의 선명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

퍼스트 클래스 스토리

쟈하이저일렉트로닉(이하 쟈하이저)은 일반 소비자 및 오디오 전문가, 기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이크로폰, 헤드폰, 음향 시스템, 항공용 헤드셋 등을 생산하는 독일의 오디오 전문업체다. 쟈하이저는 1945년 'Labor W'라는 이름의 가족 기업으로 처음 설립됐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몇 주 뒤, 프리츠 쟈하이저 박사와 하노버 대학의 7명의 엔지니어들이 'Laboratorium Wennebostel(이하 Labor W)'라고 불리는 연구실에 모여 이 회사를 설립했다. 'Labor W'는 1946년부터 'DM 1'이란 마이크를 만들기 시작했으며, 1947년엔 'DM 2' 개발에 착수했다. 1955년 쟈하이저의 직원 수는 250여명에 달했으며, 범주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지구물리학적 장비부터 잠음 보정 마이크로폰인 DM, 마이크로폰 트랜스, 믹서, 미니어처 자석 헤드폰 등을 생산했다. 이후 1958년 Labor W는 쟈하이저로 사명을 바꿨다.

17 쟈하이저 일렉트로닉



◇오디오 역사를 바꾼 혁신 제품 = 1968년 쟈하이저는 세계 첫 오픈형 헤드폰을 출시했다. 음질이 크게 향상된 오픈형 헤드폰의 등장은 헤드폰 산업에서 상당히 혁명적이었다. 쟈하이저의 원조 오픈형 헤드폰 'D 414'는 1000만개가 넘게 팔렸고, 쟈하이저를 헤드폰 브랜드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됐다. 1991년 출시한 헤드폰 '오르페우스'는 최상의 소리만을 추구하는 음악 애호가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쟈하이저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모두 동원된 명품 헤드폰이다. 모든 제작 과정이 수작업으로 진행됐고, 전 세계적으로 단 300대만이 생산됐다. 자연음에 가장 가까운 사운드를 재현해 헤드폰이라기보다는 최고급 음향기기는 칭송을 받는다. 2000년에는 디지털 오디오 포맷을 사용한 첫 번째 스튜디오용 콘덴서형 마이크로폰 'MKH 800'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디지털 오디오 포맷을 사용한 쟈하이저 최초의 스튜디오용 마이크로폰이다. 세계 E.N.G. 동시 녹음 분야에서 오랫동안 대표 모델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쟈하이저 고유의 RF-콘덴서 기술이 적용되어 최고 수준의 흡음력과 깨끗한 사운드의 픽업, 최소화된 기기 고유의 노이즈 등

쟈하이저 박사·하노버大 엔지니어 설립 오디오 전문업체 1968년 세계 첫 오픈형 헤드폰 출시... 모멘텀 시리즈 히트 최고의 기술·최상의 사운드로 음악 애호가 귀 사로잡아

이 돋보이는 전문 스튜디오용 마이크다. 2009년에는 소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최고의 헤드폰으로 인정 받는 'HD 800'을 선보였다. HD 800은 엄선된 부품들과 전문 엔지니어들의 기술력이 결합한 쟈하이저 헤드폰 기술의 정점에 있는 헤드폰이다. 쟈하이저의 전문 엔지니어들에 의해 한정적으로 연간 약 5000대만 생산된다. 2012년에는 하이저 이어폰 중 최고급 플래그십 이어폰으로 칭송받는 'IE 800'을 선보였다. 쟈하이저의 기술력이 총동원된 제품으로, 기존의 하이엔드 헤드폰에서나 가능하던 기술들을 작은 이어폰에서 구현했다. 고급 헤드폰에서나 재현할 수 있는 탁월한 사운드 품질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헤드폰에서 적용 가능했던 와이드 밴드 사운드 트랜스듀서를 지름 7mm의 초소형으로 개발해 적용한 것으로, 높은 음압에도 왜곡이 없는 순수한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이다. ◇완벽한 사운드 위해 아낌없이 투자 = 쟈하이저의 경영철학은 '열정을 토대로 오디오의 미래를 만드는 혁신적인 기업'이다. 쟈하이저는 오래된 경험과 혁신문화, 품질 우수성을 위한 열정과 함께 비전 달성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완벽한 사운드의 추구(Pursuit of Perfect Sound)'는 쟈하이저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탐구해 나가야 할 방향이자 좌우명이다. 쟈하이저는 이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 모든 제품 개발은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 사용자들(마이크를 사용하는 가수, 헤드폰을 사용하는 음악 애호가)에게 강력한 사운드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사운드 품질과 함께 고객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포트폴리오 확장 등 부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디자인과 스타일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가 '모멘텀(MOMENTUM)' 제품군이다. 최근 출시한 스타일리스 제품군의 대표작인 모멘텀 시리즈는 현재 많은 국가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스타일리스 헤드폰 중 하나로 여겨진다. 또한 디자인에 대한 투자 강화는 모멘텀 라인업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군들의 디자인 업그레이드로 나타나고 있다. 쟈하이저는 진정한 품질과 훌륭한 사운드, 시대를 앞서가는 디자인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이선에 기자 isa@



쟈하이저 일렉트로닉 연혁

1945 Labor W 라는 이름의 가족 기업으로 처음 설립	1946 'DM 1' 마이크 개발	1947 'DM 2' 개발 착수	1958 Labor W에서 'Sennheiser Electronic'으로 사명 변경	1968 세계 첫 오픈형 헤드폰 HD 414 출시	1982 현대적 와이어리스 마이크로폰 생산
2012 쟈하이저 아시아 20주년 무선 헤드폰 RS 220 출시 DJ 모니터링 헤드폰 엠페리어 출시 모멘텀 헤드폰 출시	1991 미국 지사 오픈	1990 아일랜드와 영국 지사 오픈	1988 프랑스에 지사 오픈	1987 'MKH 816'라는 짐음 마이크로폰으로 59회 Academy Awards에서 수상	
2013 다니엘-안드레아스 쟈하이저 형제 공동 CEO 임명 IE 800 CES2013에서 혁신상 수상 '제66회 프랑크푸르트 에미 엔지니어링상' 수상 모멘텀 은 이어 추가 색상 출시		2013 게이밍 헤드셋 GAME ONE 및 GAME ZERO 출시 MM 30G 출시 쟈하이저 DVD 800 헤드폰 앰프 및 Digital 9000 무선 시스템, TEC제단으로부터 기술혁신상 수상			

ELLE
TIME & JEWELRY



2014 Jandiro Forest Trekking Shoes

아웃도어 트레킹화!

둘레길, 올레길, 트레킹, 트레일 워킹 등 포레스트 콤포트 슈즈!

산야로 포레스트 트레킹화는 올레길이나 둘레길 같은 산책 코스는 물론, 가파르지 않은 바위산을 오를 때에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다.



SU2435 포레스트 트레킹화!
₩78,000원



SU2437 / SM2436 포레스트 트레킹화!
₩78,000원



SW2433 / SM2432 포레스트 트레킹화!
₩68,000원



SU2430 / SU2431 포레스트 트레킹화!
₩68,000원

내리막 미끄럼에 강하다

산야로 브레이크 등산화!

교체형 스파이크가 형성된 브레이크 등산화 출시!

산야로 브레이크 등산화는 아웃솔 전면부에 4개의 교체형 스파이크를 장착하여 스파이크의 기능에 따라 어떠한 조건에서도 미끄럼을 제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SM2442
렌치 및 스파이크 증정

- 2014 산야로 브레이크 등산화! 판매가 ₩210,000원 ▶ ₩168,000원

www.jandiro.com | 제품문의: 02)6909-8834 | 목동점: 02)2608-7400
분당점: 031)715-9933 인덕원점: 031)422-8688 광주점: 062)351-9000 전주점: 063)276-5000

JANDIRO
SPORTS

서울시장 후보 테마주 '시끌' 제지·광고 선거 수혜주 '조용'

정몽준 테마주 분류 현대통신 막내아들 부적절 발언에 10%↓ 박원순 테마주 모멘츠는 13%↑ 인터넷 SNS 중심 선거운동에 제지 등 전통적 선거 수혜 옛말

6·4 지방선거가 보름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치(인) 테마주가 들쭉이 있다. 특히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나 정치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서울시장 후보 테마주가 출렁인다. 반면 제지, 광고 등 전통의 선거 수혜주는 이제 옛말이 됐다는 게 증권업계의 평가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간의 점유율 경쟁과 맞물려 이들 테마주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정몽준 테마주로 분류되는 종목은 코스닥 폐기물처리업체 코엔텍과 홈네트웍스체인 현대통신. 코엔텍의 2대 주주는 현대중공업인데 바로 정 후보가 현대중공업의 대주주다. 현대통신은 현대건설 사장을 지낸 이내훈씨가 대표이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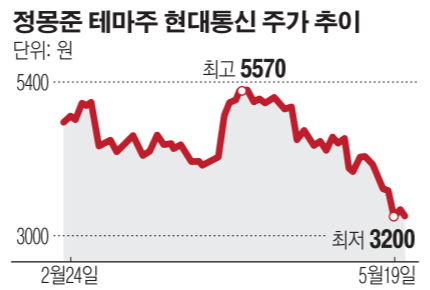
박원순 테마주는 코스닥 레미콘업체 모멘츠가 꼽힌다. 이 회사 김기수 대표는 박 시장이 몸 담았던 아름다운재단에서 운영 이사로 일한 적이 있다. 또 휘닉스홀딩스는

박 시장과 경기도 동창인 흥성구 회장이 이끄는 보광그룹 계열사다.

정 후보가 출마를 공식 발표한 지난 2월 26일, 코엔텍은 4000원을 찍으며 지난해 11월 15일에 비해 주가가 두 배 이상 올랐다. 이날 현대통신도 5090원을 넘기며 저점이던 지난해 10월 4일 대비 200% 이상 뛰었다. 박원순 테마주의 경우, 지난 3월 26일 박 시장이 정 후보에게 역전 당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다음날 모멘츠 주가가 6% 이상 떨어졌다. 휘닉스홀딩스도 이날 장중 최저점인 2655원을 기록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판세는 바뀌었다. 막내아들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정 후보가 공개 사과를 한 지난달 21일 정몽준 테마주는 10% 이상 급락했지만, 박원순 테마주인 모멘츠와 휘닉스홀딩스는 각각 13%, 5% 상승했다. 이 같은 정치 테마주에 대해 증권 전문가들은 실적과 무관하게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일거에 투자자익을 챙길 수 있다는 유혹에 투자자들의 손길이 끊이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반면, 과거 선거 수혜주로 분류됐던 종목들은 별다른 움직임 없이 조용하다. 그동안 선거와 관련해 제지업종과 미디어 광고업종이 직접적인 수혜주로 꼽혔다. 1990년 이후 광고미디어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0.3%이나 선거가 있던 시기의 광고시장 평균 성장률은 14.6%로 더 높게 나타났다. 제지업종도 선거일 전 3개월간 인쇄용지의 내수 평균 출하량이 연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등 선거영향이 실제로 반영됐다.



하지만 한술제지, 무림페이퍼, 한국제지 등의 최근 주가동향을 보면 선거특수가 뚜렷하게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인쇄용지 업체 부진이 지속되면서 제지업계가 난항을 겪고 있다. 광고업종도 세월호 참사 영향으로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2007년 대선부터 온라인과 모바일 선거가 뜨거워지며 포털업체들도 선거 수혜주로 주목을 받았지만, 이마저도 옛말이 됐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인터넷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인쇄용지 시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SNS 중심으로 선거운동이 이뤄져 포털사이트와 광고업종 수혜도 옛말이 됐다"고 분석했다. 송영록 기자 syr@

"주문실수 거래소 책임 크다" 파산 위기 한맥證 소송 검토

"거래대금 지급보류 신청 거절" 거래소 "규정 따라 업무 수행"

21일 한맥투자증권은 주문 실수로 파산 위기에 몰린 것은 한국거래소의 책임이 크다고,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맥투자증권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한국거래소가 착오거래 손실에 큰 책임이 있다"면서 "거래소를 상대로 배임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맥투자증권 비대위는 지난해 12월 코스피옵선 주문 실수가 발생했을 때 거래소에 거래대금 지급 보류를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아 460억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제 광 한맥투자증권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거래소가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국제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라며 "시장 참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장형 기자 jcha@

또한 거래소에서 한맥투자증권의 주문 실수로 발생한 손실액의 대부분을 증권사에서 출연한 손해배상 공동기금으로 충당한 것에 대해 "착오거래로 인한 손실을 제도적으로 막을 의무와 책임은 거래소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에서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법과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면서 "한맥투자증권 사태에 대해서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거래소에서는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 조찬간담회를 열고 한맥투자증권 수습 상황에 대해 회원사들에게 다섯 가지 대응책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54개 증권사 및 선물사 경영진들과 대표이사들이 자리했다.

거래소에서는 이 자리를 통해 사후증거금 제도의 엄격한 시행, 동적 상하한가 제도 시행, 착오매매 일괄 등 록제도 시행, 착오매매 직권 정정 제도 시행, 착오매매 구제 신청 시한 연장(T+1)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동양증권 유안타 품

금융위, 대주주 변경안 승인

대만 1위 증권사인 유안타증권의 동양증권 인수가 승인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유안타 시큐리티스 아시아 파이낸셜 서비스를 동양증권의 대주주로 변경하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유안타 시큐리티스 아시아 파이낸셜 서비스는 동양증권 주식 1억500만 주(지분율 53.6%)를 인수해 대주주가 됐다.

동양증권은 대주주 변경이 승인됨에 따라 구조·유상증자 신주대금 납입을 완료하고 매각 절차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앞서 동양증권은 지난 3월 유안타증권과 본계약을 체결하고 인수·증자대금의 10%인 총 275억원의 계약금을 받았다.

유안타 시큐리티스 아시아 파이낸셜 서비스는 대만 유안타증권의 자회사다. 유안타증권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 총 7조5048억원, 자기자본 3조1986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동양증권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이 총 5조8697억원, 자기자본은 8965억원이다.

조승에 기자 sysy@

현대하이스코 주가 '하이킥'

외국인 러브콜에 10.82% 상승 증권사 목표가 2주만에 넘어서

현대하이스코 주가가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리고 있다. 외국인들의 러브콜에 250일 신고가는 물론 증권사들의 목표가까지 같이 치렀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하이스코는 전 거래일 대비 10.82%(7000원) 상승한 7만1700원으로 전일 장을 마쳤다.

주가를 견인한 것은 기관과 외국인이었다. 기관은 전일 15억3800만원에 이어 오늘도 56억6500만원어치를 쏟아입고, 외국인들은 지난 7일부터 하루 빼고 계속 매수했다. 특히 지난주에는 13억~67억원의 연달아 사들이는 등 누적순매수 금액만 119억원이 넘는다.

이 같은 상승세는 1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본격화됐다.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 673억1700만원, 영업이익 972억6600만원을 기록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8%, 130.2% 증가



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 시장이 현대하이스코 상승세에 주목하는 이유는 또 있다. 증권사들의 목표가를 2주만에 넘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우리투자증권, KTB투자증권은 목표가를 각각 6만5000원, 7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황윤주 기자 hyj@



하나 UBS 자산운용 '차세대배당플러스 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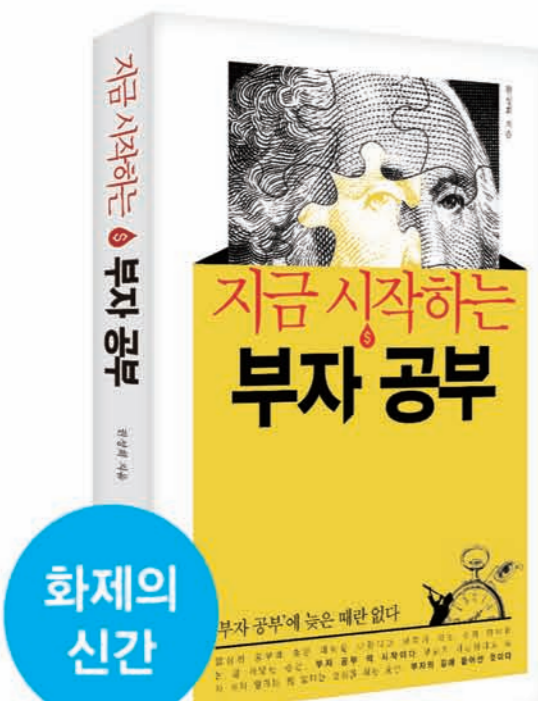
하나 UBS 자산운용은 '하나 UBS 차세대배당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펀드를 하나대투증권에 통해 판매한다.

하나 UBS 차세대배당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펀드는 C1형과 A형 두 종류가 있으며,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는 개방형 펀드다. C1형은 선취판매 수수료가 없고, A형은 납입금액의 1.0% 이내의 선취판매 수수료가 있다. 환매수수료는 종류 C1의 경우 90일 미만에 이익금의 70%, 종류 A형은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를 부과한다. 대신 가입 후 90일 이후에는 별도 환매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다. 황윤주 기자 hyj@

하나 UBS 차세대배당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펀드는 C1형과 A형 두 종류가 있으며,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는 개방형 펀드다. C1형은 선취판매 수수료가 없고, A형은 납입금액의 1.0% 이내의 선취판매 수수료가 있다. 환매수수료는 종류 C1의 경우 90일 미만에 이익금의 70%, 종류 A형은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를 부과한다. 대신 가입 후 90일 이후에는 별도 환매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다. 황윤주 기자 hyj@

평범한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부자 공부에 늦은 때는 없다. 지금 시작하라



'부자의 그릇'을 만들어라 그릇이 커지면 돈은 제 발로 들어온다

평생 돈 벌려고 열심히 노력한 당신이 아직 부자가 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돈이란 월급받아 알뜰하게 저축해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그 누구도, 세상의 어떤 대학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이다. 돈이 따르는 부자에게 배워라. 그러나 부자가 가르쳐주지 않거든 이 책에서 배워라.

- 맨손으로 1000억 번 부자들의 공통점을 분석 통찰한 책 _머니투데이
- 부자와 빈자의 차이는 '돈과 부자'에 대해 공부했는지 결정한다 _한국경제

지금 시작하는 부자 공부 권성의 지음 | 324쪽 | 값 15,000원

1% 부자들의 탈무드 실천법



- 부자의 줄에 서라
- 이웃에게 밥을 사라
- 지혜를 먼저 구하라
- 돈 되는 정보를 누설하지 마라
- 이익의 절반을 가지려면 사업을 시작하라
- 신용이 최고의 화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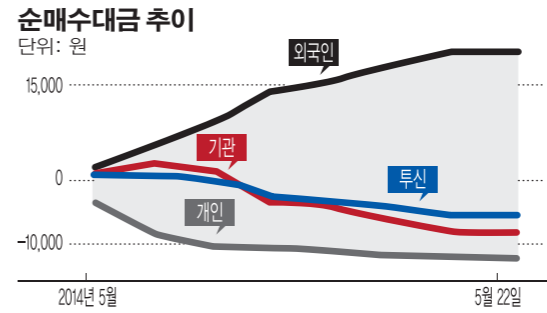
유대인의 비즈니스는 침대에서 시작된다 테시마 유로 지음 · 한양심 옮김 | 272쪽 | 값 13,500원

외인 사면 기관 팔고... 코스피 '깔딱고개'

외인 '대형주 매수'·투신 '중소형주 매도'... 박스권 탈출 주목

외국인과 기관의 지루한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은 연이어 '사자'에 나서고 있지만 기관의 매도 물량이 출회되면서 혼조적인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외국인은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는 반면, 기관은 일관된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다. 수급이 팽팽하게 맞서는 공방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코스피지수의 추가 상승에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올해 들어 1월 2일부터 전일(21일)까지의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는 4842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같은 기간 기관은 1조3483억원 순매도를 나타냈다. 외국인이 매수우위로 전환했던 지난 13일부터 전일까지의 누적 순매수액도 외국인은 2조479억원 순매수를 기록했으며,

이 기간 동안 기관은 7984억원 순매도를 보였다. 기관 순매도 중에서 투신의 순매도가 5507억원에 달했다. 백운민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지수가 2000선을 넘어섰지만 투신을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며 "기조의 확고함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세가 지수 상승을 가로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동필 IBK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며 "코스피지수 1950-2000선 사이의 박스권 매매 형태가 고착화됐다"고 분석했다. 서명찬 키움증권 연구원은 "투자심리가 혼조세를 이루고 있어 환매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코스피 상승세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이 주도했지만



코스닥을 비롯한 중소형주에 대해서 기관 중심의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 공방전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기관의 매도 물량을 압도하는 양상으로 진행될 것이라 분석이

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 회복 모멘텀으로 인한 외국인 매수 기조는 지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추가 상승 국면으로 전개되면서 다소 위축되었던 투자심리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기관의 펀드 환매 물량 출회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안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되며 코스피지수는 랠리를 이어갈 것"이라며 "2020선에 걸쳐져 있는 박스권 상단 돌파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중소형주에 비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대형주가지수 상승세를 이끌면서 글로벌 증시와의 동조 움직임도 가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병규 중앙증권 연구원은 "과거 코스피와는 다른 모습"이라며, "코스피 2000선 안착과 추가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정청 기자 jcha@

'외국인 개인 투자자' 첫 1만명 돌파

국내에 상장된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외국인 개인 투자자가 1만명을 돌파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외국인 개인 투자자는 전월 대비 19명 늘어난 1만7명(1만7천명)을 기록했다. 지난 1991년 말 421명에서 22년여 만에 2배 늘어난 수치다. 외국인 개인 투자자 수는 국내 자본시장이 완전

히 개방된 1998년 말 3151명 수준에 불과했다.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 2011년 2월 말 9000명을 넘었다. 외국인 개인 투자자는 주로 미국, 일본, 캐나다, 대만, 중국 등 한국과 관계가 밀접한 국가에 분포해 있다. 개인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 투자자는 4월 말 현재 3만8401명이다. 개인 1만7명을 제외하면 기관

이 2만8394명(개)이다. 기관은 펀드가 1만7167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기금은 272명, 증권사 856명, 은행 683명, 보험회사 449명, 기타 7167명 등이다. 국가별로는 미국 투자자들이 가장 많았다. 미국은 외국인 투자자 전체의 33.5%인 1만2859명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조세회피지역인 케이만아일랜드가 2946명으로 2위에 올랐다. 케이만아일랜드 투자자는 모두 기관 투자자다. 4월 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은 424조2000억원, 채권은 96조4000억원이다. 조승예 기자 sysy@

펀드 자금유출입 현황

주식형	5월중				4월중		연중	'13년 중
	5.15 [목]	5.16 [금]	5.19 [월]	5.20 [화]	5월중	4월중		
국내	-130	-415	-174	-142	-523	-1,477	-1,167	-5,926
해외	-12	-15	-20	-21	-95	-187	-631	-4,487
계	-142	-430	-195	-162	-618	-1,664	-1,798	-10,413

또 하나의 벽 '펀드환매' 언제까지

전문가들 "단기적 현상" 우려

코스피가 펀드환매 물량에 밀리며 번번히 박스권 탈출에 실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식형펀드 유출입 규모를 놓고 봤을 때 환매강도가 점차 약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1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15%(2.93포인트) 떨어진 2008.33에 거래를 마쳤다. 기관이 1150억원어치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특히 기관 순매도액 중에서 투신의 펀드 환매(1023억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투신의 펀드 환매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은 외국인이 순매수세를 보이기 시작한 지난 15일부터다. 15일 이후 20일까지 기관 순매도액 1조6000억 원 중 투신의 순매도액은 무려 6444억원에 달하고 있다. 올해 들어 2000선을 회복을 기점으로 어김없이 쏟아지는 펀드 환매 물량 탓에 지수는 매년 2000선 안착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고 3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던 최근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보다는 펀드환매 행진이 언제 그칠 것이냐에 모아지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과거 2000선이 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 주식형펀드 환매액은 2012년 하루 평균 1900억원, 2013년 1500억원, 지난 4월 900억원으로 점차 줄고 있다는 점에서 펀드 환매가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실제로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다섯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지만 순유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16일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4150억원의 자금이 순유출됐지만 19일 1740억원, 20일 1420억원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정민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이미 지수 2000선 이상에서 환매된 금액이 기실정된 금액을 넘어서고 있어 대기 물량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외국인의 매수세 효과를 상쇄할 정도로 강한 환매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문선영 기자 moon@

한국인의 true friend

100년을 내다보는 세일에너지, 핵심수혜는 미국MLP

100년

배당수익 시세차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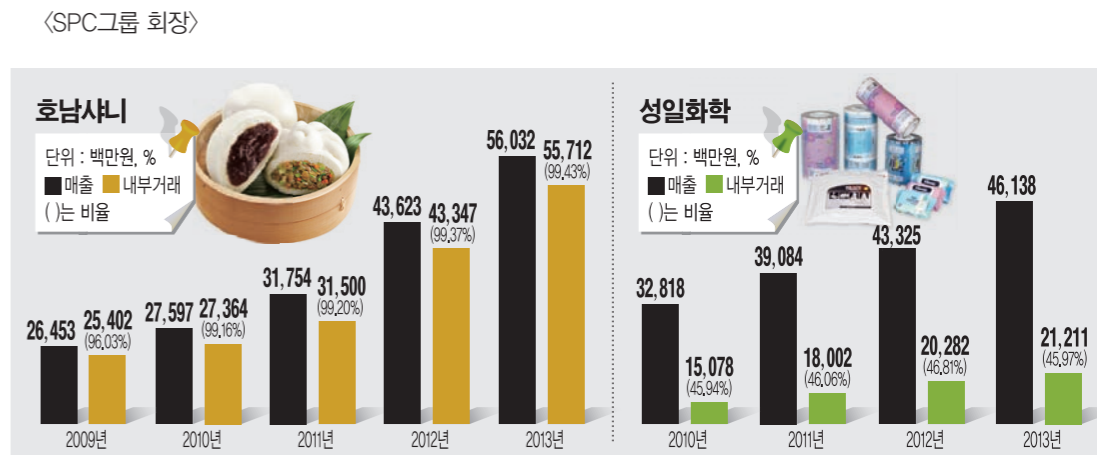
당신의 투자에는 미국MLP의 배당수익과 시세차익이 있습니까?

한국투자 미국MLP 특별자산펀드 [오일가스 인프라-파생형]

▲ 성장성 높은 미국 에너지인프라 자산에 투자
▲ 인프라이용료를 바탕으로 배당 및 시세차익 동시추구
▲ 현지 MLP 전문운용사와 협업을 통한 운용전문성 보장

중견그룹 일감몰아주기 실태 ⑬ SPC그룹

허영인 대주주 호남샤니 내부거래 99%



성일화학도 일감몰아주기로 매출 40%↑

SPC그룹의 지배구조는 허영인 회장 등 일가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파리기라상을 중심으로 지주회사 형태로 재편되고 있다. 2012년 이후로 허영인 회장의 특수관계인이 지분 대부분을 갖고 있던 회사들을 그룹 지배구조 내로 편입하며 파리기라상을 중심으로 지주사 형태로 단순화했다. 지주사적인 파리기라상은 차남 허희수 등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SPC를 지난해 주식교환을 통해 파리기라상이 지분 100%를 보유하며 계열사로 편입했으며 SPL 지분도 현재 100% 보유하고 있다. 오너의 지분이 파리기라상으로 집중되며 일감을 아주기 부담을 상당부분 해소했으며 두 아들이 소유한 파리기라상 지분도 늘린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했지만,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는 회사는 아직 존재한다. 호남샤니는 허영인 회장의 특수관계인이 지분 61.6%(주)샤니 지분 38.4%)를 보유하고 있다. 2010년 호남샤니는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확인을 받아 정부조달 공공구매에 참여하려다가 제과-제빵 업계의 못매를 맞고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이들해 중기청이 발표한 개별기업 규모로는 중소기업에 포함되지만, 관계회사 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졸업하는 897개사의 기업명단에 포함됐다. 호남샤니의 매출액은 2009년 264억에서 꾸준히 늘어났다. 2010년 275억, 2011년 317억, 2012년 436억, 작년 560억의 매출을 올렸다. 다만, 매출의 99% 이상을 내부거래가 차지하고 있다. 호남샤니의 내부거래 매출은 2009년 254억, 2010년 273억, 2011년 315억, 2012년에는 433억이다. 작년에는 557억의 내부거래 매출을 기록했다. 허영인 회장이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는 성일화학의 내부거래 비중도 매출의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지분은 파리기라상(50%)과 샤니(20%)가 보유하고 있다. 성일화학은 법정관리 중 2009년 12월 16일 '파리기라상컨소시엄'과 M&A를 체결하며 SPC 그룹으로 편입됐다. 합성수지 제조와 그라비아 인쇄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그라비아 인쇄란 주로 포장재로 인쇄에 널리 이용되는 오프셋 인쇄방식이다. 성일화학의 매출액은 2010년 328억에서 작년 461억으로 꾸준히 성장했다. 내부거래 액수도 2010년 150억에서 지난해는 212억으로 늘어났으며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박용남 기자 bangn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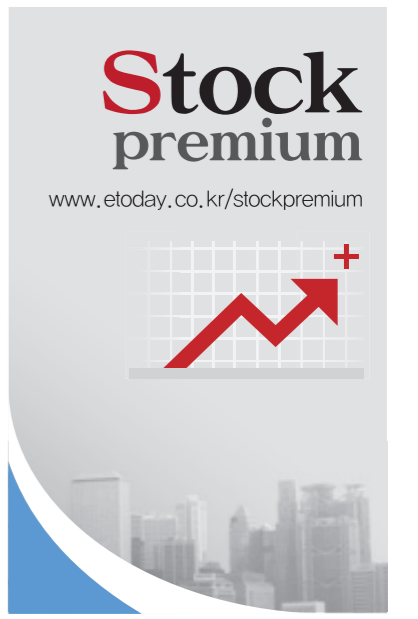
【판매사】 한국투자증권, 위화은행, 하나은행(PB센터), KB국민은행(PB센터 및 STAR TABLE 라운지), 동양증권, 하나대투증권, 현대증권, KB투자증권, SK증권

■ MLP(Master Limited Partnership)란? 미국의 에너지사업 투자합자회사로서, 에너지원의 운송, 집하, 저장시설, 파이프라인 등의 이용료를 수익원으로 함
■ 한국투자 미국MLP 특별자산 [오일가스인프라-파생형] ▶ 판매방법: 제5(6)영안일 기준 가격으로 제9(10)영안일 지급. ()는 17시 경과 후 판매시 적용 ▶ Class A 총보수: 연 1.965% (판매 연 0.6%, 운용 연 1.35%, 기타 연 0.045%), Class A-e 총보수: 연 1.695%(판매 연 0.3%, 운용 연 1.35%, 기타 연 0.045%), Class C 총보수: 연 2.895%(판매 연 1.5%, 운용 연 1.35%, 기타 연 0.045%), Class C-e 총보수: 연 1.695%(판매 연 0.5%, 운용 연 1.35%, 기타 연 0.045%), Class C-W 총보수: 연 1.395%(판매 연 0.0%, 운용 연 1.35%, 기타 연 0.045%) ▶ 선취권수수료: Class A 납입 금액의 1%, Class A-e 납입액의 0.5%, 그 외 없음 ▶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환매 시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환매 시 이익금의 30%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재산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자에게 안전하게 보관 관리되고 있습니다. ※ 본 상품은 환율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취득하기 전에 환매방법과 보수 등 관련된 세부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기 배당수익은 투자자에게 분배되지 않고 재투자되며, 재투자된 미국MLP 시세 하락 시 원금 손실 우려가 있습니다.

펀드베터링 - 한국투자신탁운용

02)3276-4700 www.kim.co.kr

true friend 한국투자 신탁운용



또 소송... 신일산업 경영권 분쟁 '재점화'

지분 5.11% 황귀남 노무사, 이사회해임·정관개정 위한 임시주총 소집 허가 소송

신일산업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됐다. 황귀남 노무사(푸른노무법인 대표)가 신일산업의 임시주총회 소집 소송을 내면서 경영진과 주주간 경영권 분쟁은 격화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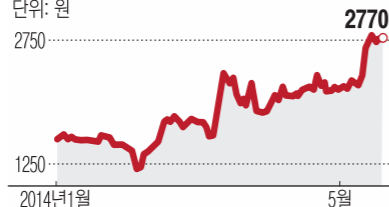
22일 신일산업에 따르면 황귀남 노무사는 신일산업 이사 3인 해임하고 정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의 임시주총회 소집 허가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인노무사인 황귀남씨가 신일산업 지분을 처음 취득한 것은 지난 2월.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주식 260만4300주(5.11%)를 취득했다. 당시 황 노무사는 "경영권 참여 및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해 발행회사의 주식에 투자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보유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일산업은 김영 회장이 지분 8.4%를 보유하고 있고,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해도 9.9%에 불과하다. 황 노무사는 개인주주 윤대중씨와 조병돈씨를 특별관계자로 편입 신고하면서 지분율이 단숨에 11.27%로 뛰었다.



신일산업 주가 추이



황 노무사는 3월 주주총회에서 일반 이사회에 특별 퇴직금을 주는 '황금 낙하산' 조항을 삭제하고, 자신과 윤대중씨를 각각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선임하는

안건을 내며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했다. 그러나 윤대중씨와 조병돈씨의 주식 약 9%가 자본시장법상 주식 대량 보유사항 보고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의결권 행사가 제한돼 무산됐다.

지난달 22일 황 노무사는 지분 2.13%를 추가로 취득해 지분율을 13.4%로 늘렸다. 그는 "신일산업의 대주주로서 앞으로 현 경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물론 신제품 개발과 해외 시장 진출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하며 경영참여 목적을 분명히 했다.

신일산업과 황 노무사측의 경영권 갈등은 이번 소송으로 2라운드에 돌입할 전망이다. 신일산업측은 유상증자를 결정했고, 황 노무사는 임시주총 개최 소송을 내면서 양측 모두 경영권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황 노무사측이 임시주총을 개최하면 경영진측 이사와 감사가 해임될 수 있다.

신일산업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윤주 기자 hyj@

공시 돋보기

주담대출 이자부담 줄이려 주식팔아 대출상환 와이슬 경영진 70만주 매각

국내유일의 휴대폰 SAW필터 생산업체인 와이슬의 김지호 사장과 조병환 부사장이 동시에 70만주를 매각해 이복이 풀리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 19일 50만주를 주당 1만800원에 장내 매도 방식으로 처분했다. 이 거래로 김 사장은 50억원을 현금화했으며 지분은 12.90%에서 10.97%로 줄었다. 같은 날 조병환 부사장 역시 20만621주를 장내 매도해 약 22억2700만원의 현금을 손에 쥐었으며 지분은 4.09%에서 2.88%로 줄었다.

회사 측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부담이 있어 주식 일부를 팔았다"고 설명했다. 즉 김 사장과 조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신주인수권행사 시 납입금을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마련했는데, 이자부담이 지속되자 보유주식 일부를 처분했다는 설명이다.

와이슬은 2011년 4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하나은행, IBK캐피탈 등을 대상으로 150억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했으며, 발행 직후 김 사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이 워런트 전량을 주당 634원



에 사들였다.

작년 12월 김 사장과 조 부사장은 워런트 행사를 통해 각각 34만9192주, 19만6420주를 주당 9164원에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김 사장은 주담대출을 위해 납입금에 154만 2348주를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았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140만4416주에 대한 담보가 해지했으며 현재 담보로 맡겨진 지분은 13만7932주다.

김 사장의 워런트 관련 납입금은 약 32억원이며 워런트 사들인 가격 등을 감안하면 워런트 34만9192주에 대한 투자수익은 3억원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김희진 기자 heejin@

휴바이론도 적대적 M&A '모락모락'

엘엔케이 이도현 대표, 공동보유자 추가... "경영참여 목적"

휴바이론 경영권 분쟁이 점차 가시화될 전망이다.

최근 '경영 참여'를 선언한 이도현 엘엔케이글로벌 대표가 공동 보유자를 추가하며 휴바이론 지분을 늘린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국내 법인인 에버가드가 휴바이론 주식 11만4900주를 주당 870원에 장내 매수했고, 이도현 대표는 공동 보유자에 에버가드를 추가했다.

이로써 이 대표 측 지분은 기존 5.90%에서 0.65%P 증가한 6.55%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에버가드가 휴바이론 지분을 취득하는데 투자한 금액은 1억원 가량이다.

이 대표 측 한 관계자는 "에버가드는 전략적 투자자로 휴바이론 경영에 참여한 것"이라며 "현재 재무적 투자자를 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재무적 투자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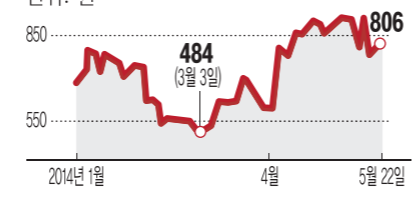
게 되면 향후 추가로 지분 매집에 나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는 과거 3~4년 전부터 휴바이론 주식을 장기 보유하고 있었다"며 "지난 2012년 서주철 휴바이론 전 대표이사의 횡령·배임으로 발생한 손실로 인해 이 대표가 큰 손해를 보기도 했지만, 휴바이론이 우량 기업이라는 판단하에 경영에 참여한 만큼 에버가드 오세동 대표의 경영능력과 이도현 대표의 관리능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주 중에 휴바이론 경영 참여와 관련한 조치가 추가로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엔 전략적 투자자로 휴바이론 경영에 참여한 에버가드는 △경비(용역·장비)분야 △환경바이오 분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주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에버가드의 자본금은 20억원이

휴바이론 주가 추이



이도현 대표 측 지분 현황

관계	성명(명칭)	주식수(주)	비율(%)
보고자	이도현	564,626	3.22
	엘엔케이글로벌	133,333	0.76
특수관계인	이정현	171,010	0.97
	강윤자	83,458	0.48
	김은영	81,767	0.47
	에버가드	114,900	0.65
합계		1,149,094	6.55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5월21일 기준)

고, 자본총액(30억1400만원)과 부채총액(39억9400만원)을 합한 자산총액은(70억800만원)이다. 오세동 에버가드 대표는 회사의 최대 주주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강인호 기자 kangih@

세아특수강, 中 법인 성장에 '好好'

내수판매 증가로 1분기 매출 4.7% 증가... 7월 제2법인 생산 가동

세아특수강이 중국법인 성장과 내수판매량 증가로 잇달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세아특수강은 올해 1분기 매출 1939억원의 성과를 올린데 이어 1852억원 보다 4.70% 증가했다. 같은기간 영업이익은 135억원으로 17.4%, 당기순이익은 742억원으로 23.3% 늘었다.

주력제품인 냉간압조용선재(CHQ WIRE) 등의 시장점유율 확대와 이에 따른 출하 호조가 지속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아특수강은 냉간압조용선재(CHQ WIRE) 및 마봉강(CD BAR) 양 부문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이 모두 40%대를 넘어선다. 그만큼 주력하는 시장도 내수다. 올해도 매출의 90.1%를 국내에서 올렸다.

그러나 중국법인의 성장도 괄목할 만하다. 세아특수강 중국 제1법인인 남통공장의 경우 지난해 매출 796억원, 영업이익 38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25.8%, 41.5%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남통공장은 올해 1분기에만 매출액 635억원, 영업이익 31억원을 기록해 이미 지난해 실적의 절반 80%이 상을 넘어선 상황이다.

올해 7월 생산 예정인 제2법인인 텐진공장의 성장성도 기대되고 있다. 방진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제2법인의 첫해 매출은 2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확보된 수요처와 경험 덕분에 정상화 속도가 제1법인보다 빠른 것으로 중국 법인의 성장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미정 기자 mj@

'이지알 쿨러시스템' 완료 삼모모터스 '고공행진'

현대기아차 1차 벤더인 삼모모터스가 2년 전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조달받은 자금으로 연구개발(R&D)에 착수, 이지알 쿨러시스템 시제품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사 주가는 지난해 실적 호조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되며 올해 40% 넘게 상승하며 연중 고점도 갈아치웠다.

22일 삼모모터스 관계자는 "지난 2012년 지식경제부가 실시하는 투자자 연계형기술개발사업 투자심사 결과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됐다"며 "당시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은 40억원의 R&D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금으로 배기가스 저감장치인 '이지알 쿨러시스템' 모듈화에 착수했고 올해 시제품 개발을 완료했다"며 "최근 연비 효율화와 경량화가 기술적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는데다 친환경 아이টে에 대한 니즈까지 더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양산화하는 것이 남은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삼모모터스가 2년전 발행한 CB에 대한 전환청구권이 몰려들어 잇달아 행사되면서 물량 출회 부담도 제기되고 있지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삼모모터스는 전날 공시를 통해 지난 2012년에 발행한 제6회차 CB 중 마지막으로 남은 18만5528주에 대한 전환청구권이 행사됐다고 밝혔다.

강인호 기자 kangih@

1시간 속성 해설 셰일가스 혁명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저

100년 만에 찾아온 초특급 에너지 혁명이 세상의 승자와 패자를 뒤바꾼다!
셰일가스와 관련된 주요 110개 기업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정체된 IT 산업, 반격에 나선 조선, 철강, 항공, 철도, 소재 산업...
일본 중후장대(重厚長大) 산업의 대부활!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지음
UB, J유엔제이 번역
한국판 199쪽 120,000원

꿈의 에너지 셰일가스혁명!!!

100년 만에 찾아온 초특급 에너지 혁명이 세상의 승자와 패자를 뒤바꾼다!

- 세계에너지 패권 경쟁과 기업의 흥망성쇠 전망
- 미국·일본 제조업 부활...세계에 미칠 영향 심도있는 분석
- 전기자동차·항공산업·조선산업 '대부흥'예측
- 중동의 발전권 약화...천연가스 대국 러시아 위상 흔들 '다원적 에너지 패권시대' 도래

'제3의 에너지' 셰일가스 전쟁시작... 싸움준비 됐습니까 (조선일보 2013년 5월 23일)
OPEC '美 셰일가스 대응' 사본오열 (파이낸셜뉴스 2013년 5월 29일)
유럽까지 셰일가스 혁명... 에너지 독립 부른 꿈 (동아일보 2013년 7월 25일)
"셰일가스 인프라에 투자할 때" (한국경제 2013년 7월 31일)
"셰일가스 혁명 대처 못하면 도태" (한국경제 2013년 8월 2일)
셰일가스 시추장비 대대적 국산화 나선다 (헤럴드경제 2013년 9월 9일)
가장 비싼가스 쓰는 한국, 셰일가스로 에너지비용 줄여라 (매일경제 2013년 9월 11일)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이력

- 일본 경제신문 산교타임즈 대표이사겸 사장
-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출신
- 주요(中央)대학 법학부 정치학과 졸업
- 1977년 산업타임즈사 입사
- 1991년에 반도체 산업 신문 발간, 편집장 취임
- 현재 일본반도체협회 부회장(회장대행)
- 일본 반도체 벤처협회 이사
- 제주시·부산시 명예시민(기업유치공로)

도서출판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문의 02-799-6727 팩스 02-799-2666

e-mail: youngsh@etoday.co.kr

제네시스의 퍼포먼스는 '안전'에서 시작됩니다

| 제네시스, 2014 미국 IIHS 충돌테스트 세단부문 세계 최초 전 항목 만점 |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가 실시한
충돌테스트에서 전 항목 만점으로
최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TOP SAFETY PICK+]을 받은 제네시스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IIHS(1959년 설립)는 미국 내 80여개 보험사가 가입한 비영리단체로, 현지에 출시된 차량의 안전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테스트 차량은 미국시장 기준이며, 국내와 미국 차량은 구조/재질 등 안전성능 관련 사항은 동일합니다.
(국가별 법규대응 차이가 있어 국내차량에는 부형차 보호 대응 사양이 추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 구입문의 및 고객센터, 긴급봉사반 원콜서비스 080-600-6000 ■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V6 램다(라) 3.3 GDI A/T (2WD,18'') : 복합 9.4km/ℓ (도심 8.1km/ℓ, 고속도로 11.7km/ℓ) | CO₂ 배출량 : 189g/km | 배기량 : 3,342cc | 공차중량 : 1,900kg | 자중(4등급) -V6 램다(라) 3.3 GDI A/T (2WD,17'') : 복합 9.0km/ℓ (도심 7.7km/ℓ, 고속도로 11.5km/ℓ) | CO₂ 배출량 : 198g/km | 배기량 : 3,342cc | 공차중량 : 1,880kg | 자중(4등급) -V6 램다(라) 3.3 GDI A/T (AWD,18'') : 복합 8.8km/ℓ (도심 7.6km/ℓ, 고속도로 10.9km/ℓ) | CO₂ 배출량 : 203g/km | 배기량 : 3,342cc | 공차중량 : 1,970kg | 자중(4등급) -V6 램다(라) 3.3 GDI A/T (AWD,17'') : 복합 8.5km/ℓ (도심 7.2km/ℓ, 고속도로 11.0km/ℓ) | CO₂ 배출량 : 210g/km | 배기량 : 3,342cc | 공차중량 : 1,950kg | 자중(4등급) -V6 램다(라) 3.8 GDI A/T (2WD) : 복합 9.0km/ℓ (도심 7.7km/ℓ, 고속도로 11.3km/ℓ) | CO₂ 배출량 : 199g/km | 배기량 : 3,778cc | 공차중량 : 1,930kg | 자중(4등급) -V6 램다(라) 3.8 GDI A/T (AWD) : 복합 8.5km/ℓ (도심 7.4km/ℓ, 고속도로 10.5km/ℓ) | CO₂ 배출량 : 210g/km | 배기량 : 3,778cc | 공차중량 : 2,000kg | 자중(4등급)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무형면의 차이가 있습니다 ▶ 기출발,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않습니다 ▶ 정속주행을 합니다 ▶ 현대자동차는 지점/대리점의 카리스타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같은 개를 같은 가격으로 비싼 거래를 살리고 있습니다